

공개용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조사보고서

(조사번호: 구제 23-2020-5호)

2021. 11. 18.

무 역 조 사 실

< 목 차 >

I. 조사 개요	1
1. 신청인 및 조사대상물품 공급자	1
2. 조사대상물품	3
3. 조사대상물품 범위 검토	7
4.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8
5.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18
6.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현황 및 수급현황	30
7. 비밀취급여부 검토	35
II. 덤핑사실	39
1.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39
2. 덤핑사실 조사경과	39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40
4. 덤핑률 산정 결과	102
III. 국내산업의 피해	103
1. 국내산업의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103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104
3.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여부	131
IV.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142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	142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	146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163
V.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65
1. 최종 덤핑률	165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166
3.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68

VI.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169
1. 산업피해조사 관련 의견 검토	169
2.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 검토	175

VII.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179
--------------------------	-----

< 참고자료 >

1. 산업피해조사 조사경과	183
2. 덤핑조사 조사경과	185
3.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현황	186
4. 조사대상공급자의 생산능력 현황	188
5. 조사대상공급자의 매출량 현황	190

< 별책 : 붙임자료 >

1. 조사개시 공고문	1
2.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결과	4
3.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공고문	6
4. 신청인측 공청회 발언요지	8
1) 한국화학섬유협회	8
2) 성안합섬(주) 노동조합	11
3)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13
5. 수입자측 공청회 발언요지	27
1) 수입자 (솔상인터내셔널(주))	27
2) 수입자 (미도교역(주))	28
6. 신청인측 공청회 후 제출 보완자료	60
7. 수입자측 공청회 후 제출 보완자료	84
8. 신청인측 공청회 후 제출 반론자료	97
9. 수입자측 공청회 후 제출 반론자료	104
10.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속기록	108
11. 국내생산자 등 현지실사 결과보고서	149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금액은 10,000. 물량 등은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I. 조사 개요

1. 신청인 및 조사대상물품 공급자

가. 신청취지

- '20.11.26. 한국화학섬유협회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의 덤핑(신청인 제시 덤핑률 : 22.05%)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함

나. 신청인

- 한국화학섬유협회

- 대리인 : 법무법인(유) 화우(변호사 정동원, 공인회계사 김현수)

구분 \ 신청인	한국화학섬유협회
설립일	1963.8.1.
대표자	김 국 진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9층

* 자료 : 조사신청서

다.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시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형이") 및 그 관계사 ¹⁾	22.05%	대응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신평밍") 및 그 관계사 ²⁾		대응
	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 ("티앤성")		대응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귀왕") 및 그 관계사 ³⁾		대응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형리") 및 그 관계사 ⁴⁾		대응
	그 밖의 공급자		-

* 자료 : 조사신청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조사대상공급자의 대리인

- 티앤성, 귀왕 및 그 관계사 : 법무법인 참진(변호사 박진), 삼정회계법인(공인회계사 박원)
- 형이 및 그 관계사, 형리 및 그 관계사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변호사 장영철), (주)리인타(공인회계사 김동준)
- 신평밍 및 그 관계사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변호사 장영철), (주)리인타(공인회계사 김태익)

라. 조사대상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 '19. 7. 1.부터 '20. 6. 30.까지
-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 '17. 1. 1.부터 '20. 6. 30.까지

-
- 1) 형이 및 그 관계사 :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형이), Zhejiang Hengyi Polymer Co., Ltd.(형이폴리머), Zhejiang Hengyi High-tech Material Co., Ltd.(형이하이테크), Shaoxing Kejiao Hengming Chemical Fiber Co., Ltd.(형밍), Jiaxing Yipeng Chemical Fiber Co., Ltd.(이형), Hangzhou Yijing Chemical Fiber Co., Ltd.(이징) Zhejiang Shuangtu New Material Co., Ltd.(상투),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 Sales Co., Ltd.(형이세일즈) 등 8개사
 - 2) 신평밍 및 그 관계사 :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종시), 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종신), Tongxiang Zhongwei Chemical Fiber Co., Ltd.(종웨이), Tongxiang Zhongchen Chemical Fiber Co., Ltd.(종첸), Tongxiang Zhongchi Chemical Fiber Co., Ltd.(종치), Zhejiang Xinfengming Import and Export Co., Ltd.(신평밍무역), Tongxiang Zhongyi Chemical Fiber Co., Ltd.(종이) 등 7개사
 - 3) 귀왕 및 그 관계사 :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귀왕), Jiangsu Ganghong Fiber Co., Ltd.(강홍), Jiangsu Shenghong Technology Trading Co., Ltd.(성홍테크), Suzhou Shenghong Fiber Co., Ltd.(성홍섬유), Jiangsu Zhongl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중루) 등 5개사
 - 4) 형리 및 그 관계사 : Jiangsu Hengli Chemical Fiber Co., Ltd.(형리), Jiangsu Deli Chemical Fiber Co., Ltd.(더리), Jiangsu Hengke Advanced Materials Co., Ltd.(형커) 등 3개사

2. 조사대상물품

가. 품명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

- 관세품목분류 : HSK 5402.47.9000
- 관세율 : 기본세율 8.0%, 한-중국 FTA협정세율⁵⁾ : 8.0%

나. 조사범위

- 정의 : 테레프탈산(TPA)⁶⁾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⁷⁾을 중합(重合)⁸⁾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⁹⁾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FDY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artially Oriented Yarn, POY¹⁰⁾)가 직방사와 동시에 혼합된 제품을 포함함

다.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한 백색의 실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져 실을 이루고 있는 고분자 결정부분이 길이 방향으로 적절히 배열되어 있어 직물이나 편물의 제조에 요구되는 실로서의 물성이 적합하여 가공없이 사용될 수 있는 제품임

-
- 5) 「한-중국 FTA」(발효 '15.12.20)에 따라 우리나라는 HSK 2012년 기준 품목번호 HSK 5402.47.9000에 대해 기준관세율(8%)과 동일한 양허세율(양허유형 "E")을 적용하고 있음
- 6) TPA(Terephthalic Acid, 화학식 $C_8H_6O_4$)는 원유에서 정제, 분해되어 생성되는 파라자일렌(PX)으로부터 얻어지는 순백색의 분말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용 원료와 비디오, 오디오용 필름, PET병 등의 원재료로도 쓰이며, 페인트 및 산업용 원사 등에도 사용됨
- 7) MEG(Monoethylene Glycol, 화학식 CH_2OHCH_2OH)는 무색, 무취, 흡습성의 시럽형 액체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원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액, 글리세린의 대용, 용제, 윤활유, 유기합성, 전해콘덴서용 페이스트, 계면활성제 필름의 습윤 및 가소제 등의 원료로 사용됨
- 8) 중합(Polymerization)이란 어떤 화합물 분자가 2개 이상 결합하여 보다 분자량이 큰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뜻함
- 9) 연신(延伸, drawing)이란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섬유가 방사(紡絲)된 후의 분자배열이 극히 불량하고 신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분자배열을 개선시키고 강신도(強伸度)등 물리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섬유를 길이 방향으로 잡아 늘리는 조작을 뜻함
- 10)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부분적인'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주로 연신(延伸, drawing), 가연(假捻, false-twisting) 등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됨

- 흡습성이 낮아 정전기를 일으키기 쉬우나, 산과 알칼리, 일광 및 대기에 대하여 저항성이 우수함
- 데니어(denier)¹¹⁾, 필라멘트(filament)¹²⁾의 수, 광택(luster)¹³⁾ 등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구분됨
-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이 중합(重合)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100% 구성요소로 하며 강도¹⁴⁾ xxx~xxxg/d, 신도¹⁵⁾ xxx~xxx%, 열수수축률¹⁶⁾ xxx~xxx%의 물리적 특성이 있음

라. 용도

-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소재로 원사의 가공없이 바로 사용되며, 기능 및 촉감을 다양화하여 용도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연사(Twisted Yarn)¹⁷⁾ 또는 혼섬사(Intermingled Yarn)¹⁸⁾의 모사(母絲)로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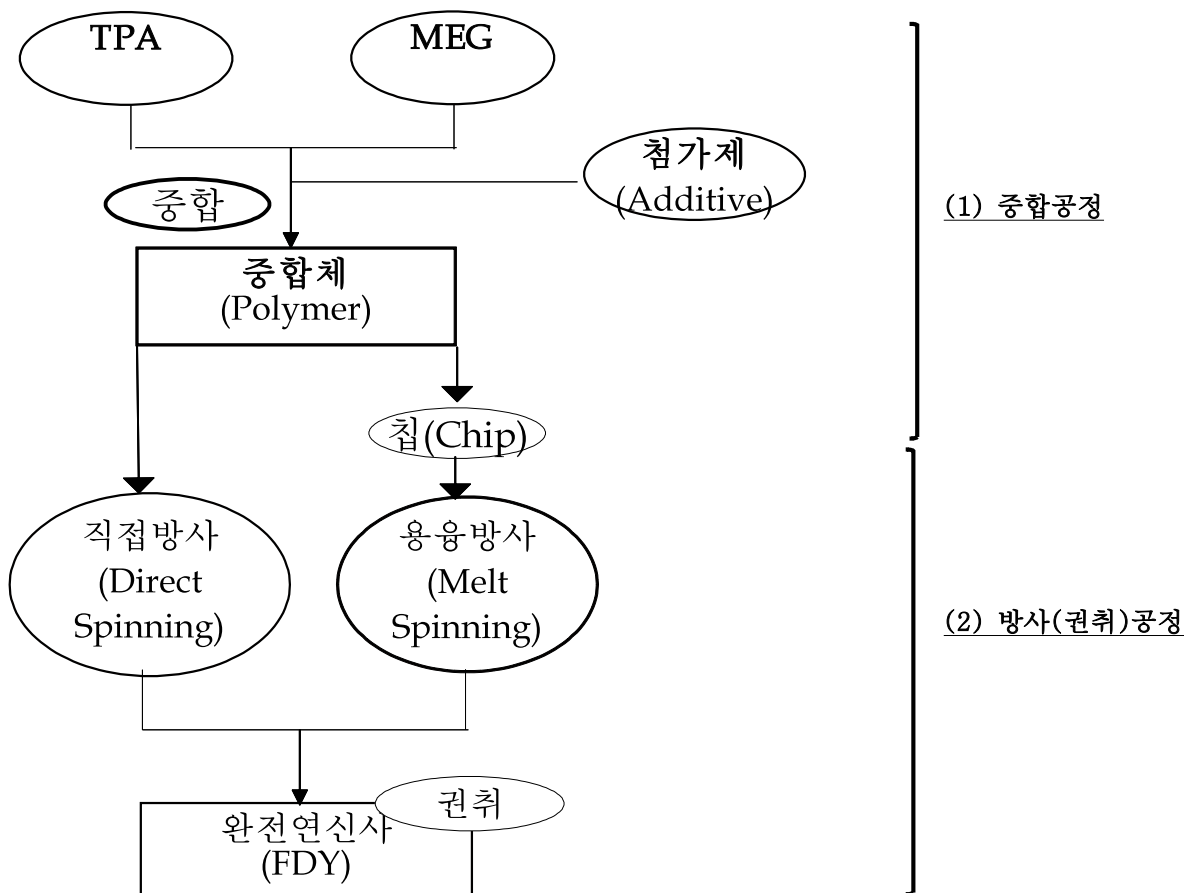
마. 제조공정

- 조사대상물품의 제조공정은 중합공정과 방사공정¹⁹⁾으로 이루어짐

-
- 11)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9,000m 길이의 실 중량을 그램(g)으로 나타낸 것으로 숫자가 작아질수록 실의 굵기가 가는 것을 의미
- 12) 실을 구성하는 가닥수
- 13) 광택은 중합공정에 첨가되는 이산화티타늄(TiO₂, Titanium Dioxide)의 함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BR(Bright), SD(Semi-Dull), FD(Full-Dull) 등으로 구분되며 이산화티타늄이 더 많이 투입될수록 광택은 낮아지게 됨
- 14) 강도(強度)는 재료가 절단 또는 파괴되는데 필요한 하중으로, 단위 g/d(gram per denier)는 1 데니어 굵기의 섬유 한 올이 견딜 수 있는 중량을 의미함
- 15) 신도(伸度)는 섬유의 길이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졌을 때 신장된 길이를 본래의 길이에 대해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 16) 열수 수축률은 100도의 끓는 물에 30분간 처리하였을 경우 수축이 일어난 비율로서 수축시의 비율을 본래의 길이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17) 연사란 방적사 또는 연속된 섬유(Filament)의 실에 꼬임을 주거나 두 올 이상의 실을 합하여 꼬임을 준 실을 의미함
- 18) 혼섬사란 성질이 서로 다른 원사를 혼합하여 가공(성질이 다른 폴리에스테르 실끼리 혼합하거나, 폴리에스테르 실과 폴리에스테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실(예: 나일론)을 혼합한 실을 말함
- 19) 방사공정에는 일반적으로 직접방사와 칩(Chip)방사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용융된 중합체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방사하는 것을 직접방사라고 하고, 용융된 중합체를 고화시켜 작은 알갱이 형태인 칩(Chip)으로 만들었다가 필요에 따라 재용융하여 방사하는 것을 칩방사라고 함

- 먼저, 원재료인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첨가제와 함께 중합(重合)하면 용융된 중합체(Polymer)가 됨
- 이렇게 용융된 중합체(Polymer)를 방사구(Spinneret)를 통하여 xxx~xxxm/min 정도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방사(紡絲)하여 연신후(1st Godet Roller와 2nd Godet Roller간의 속도차이로 연신됨) 빠른 속도 (xxx~xxxm/min)로 권취²⁰⁾하는 공정을 거치면 조사대상물품을 얻게 됨

<제조공정>



20) 권취(捲取) : 실, 극판, 코일 따위를 두루마리 형태로 둥글게 말거나 감는 일

바. 유통경로

- 국내 수입상이 수입하여 국내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국내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함



3. 조사대상물품 범위 검토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제1항 및 조사개시결정(제2021-2호, 2021.1.27.)에 공고된 바와 같이, 조사개시 결정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관한 의견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되지 않음²¹⁾

21) 조사실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무역위원회공고 제202-2호, 2021.1.27.)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하였음. 그러나 귀왕 및 귀왕의 주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3개월여가 지난 '21.5.12, '21.8.27에 Recycled FDY 및 Antimonium Free FDY를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4.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 검토할 사항 >

-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동종물품의 범위를 정함

관 련 법 규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①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가. 품명 및 정의 :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나. 물리적 특성

1) 신청인측²²⁾ 의견

- 신청인측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강도, 신도, 열수수축률, 사(絲)불균제도(不均齊度, Unevenness), 데니어(Denier) 등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²³⁾
- 신청인측은 그 근거로 국내생산자인 A사의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인 'B사'²⁴⁾의 조사대상물품을 비교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음
- 시험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국내산업이 제시한 업계에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FDY원사의 물리적 특성별 규격

22) “신청인측”은 본 건 조사신청을 한 한국화학섬유협회와 그 회원사인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들을 말하며, 이하 본 보고서에서 같음

23) 조사신청서(‘20.11.26) 및 국내산업 추가답변서(‘21.5.14. 및 ‘21.5.21. 제출)

24) A사는 'B사'가 중국의 3대 폴리에스테르 생산기업 중 하나이며, 'B사'의 조사대상물품을 입수할 수 있어서 이를 국내 동종물품과 비교·시험하였다고 답변함(‘21.5.21. 제출)

기준 범위 내에 있거나 국내산업의 관리 범위 내에 있어,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함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비교>

시험항목	단위	FDY50/36SD		FDY75/36SD		규격 ²⁵⁾
		조사대상물품	국내생산품	조사대상물품	국내생산품	
강도	g/d	xxx	xxx	xxx	xxx	xxx ~ xxx
신도	%	xxx	xxx	xxx	xxx	xxx ~ xxx
열수수축률	%	xxx	xxx	xxx	xxx	xxx ~ xxx
사불균제도 ²⁶⁾	U(%)	xxx	xxx	xxx	xxx	xxx이하
데니어 ²⁷⁾	Denier	xxx	xxx	xxx	xxx	기준Denier ±xxx~xxx%

* 자료 : 조사신청서(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험성적서(A사와 피신청인 'B사'의 물품비교, 시험기간: '20.7.9~'20.7.14), 의뢰인: A사)

2) 수입자 및 수요자측 의견

-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에서 수입자와 수요자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음²⁸⁾

3) 조사실 검토

- 25) 강도, 신도 및 열수수축률의 규격은 국내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옷감 등의 원재료로 통상 사용되고 있는 FDY원사의 물리적 특성별 규격으로서(조사신청서 및 신청인 답변서('20.12.18)),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국내산업이 제시한 동 규격 기준 범위 내에 있음. 또한, 국내산업은 사불균제도(U%)는 xxx%이하, 데니어(Denier)는 기준 데니어(Denier) ± xxx~xxx%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함(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5.14.). 한편, 한국산업표준 「KS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의 검사 표준 KS K 1300:2017」(산업표준심의회 '17.12.13. 개정)에 따르면, “인장 강도는 4.0g/D이상, 인장 신도는 45%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동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26) 사(絲)불균제도(不均齊度, Unevenness)는 실의 단위길이 당 중량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평균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평균편차백분률(Percentage Mean Deviation)이라하며, U%로 표기하고, U% 값이 적다는 것은 단위길이 당 중량의 평균편차가 적은 것으로서 실의 굵기가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함(국내산업 답변서, '21.5.21. 제출)
- 27) 데니어(Denier)는 실의 굵기(섬도(纖度))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9,000m 길이의 실 중량을 그램(g)으로 나타낸 것으로 숫자가 작아질수록 실의 굵기가 가는 것을 의미함
- 28) 조사질의서상의 '조사대상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의 차이점'에 대해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인 xxx사와 국내수입자인 xxx사는 두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다고 답변함. 또한, 이해관계인회의('21.4.14.)에서 xxx사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은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용도 등에서 100% “유사”하다고 답변함

- 신청인측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 생산품은 강도, 신도, 열수수축률, 사불균제도, 테니어 등이 업계 통용 규격기준 내지 국내산업 관리 범위 내에 있어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수입자와 수요자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

다. 구성요소 및 용도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이 중합(重合)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소재로 원사의 가공없이 바로 사용되며, 연사(Twisted Yarn) 또는 혼섬사(Intermingled Yarn)의 모사(母絲)로도 사용되고 있는 등 다양한 수요산업의 원료로 공급되고 있음²⁹⁾
- 따라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그 구성요소 및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

라. 제조공정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제조공정은 동일 또는 유사함

마. 품질 및 소비자 평가

1) 수입자 및 수요자측 의견

- 답변서를 제출한 수요자 2개사³⁰⁾는 모두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29)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의 용도>

구 분	용 도
의류용	신사복, 숙녀복, 셔츠, 란제리, 바지, 유니폼, 스포츠 의류 등
인테리어용	카펫의 기포, 침대용 시트, 벽지, 커튼 등
산업용(고강력사)	자동차 타이어코드지, 일반산업용(로프, 토목공사용 보강재, 안전벨트, 타포린, 광고용 등)
산업용(기타)	의료용(인조혈관, 수출용 봉합사 등), 농업용, 포장용, 건축용, 환경용 등

* 자료 : 「폴리에스테르(강력사, FDY) 산업경쟁력 조사」(‘09.10월, 무역위원회 & 한국화섬협회)

30) 답변서를 제출한 수요자 2개사(xxx사, xxx사)는 모두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100%

“상호 대체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답변서를 제출한 수입자 4개사 중 3개사와 수요자 1개사는 대부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음³¹⁾

- 그러나, 수입자 중 미도교역(주)³²⁾는 일반 원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물품과 국내생산품 간에 품질 차이가 없으나, 차별사(특수사)³³⁾에 있어서는 데니어, 사불균제도, 정장률³⁴⁾ 등 측면에서 조사대상물품이 국내 생산품보다 우수하여 선호도가 높다고 주장하였음
- 먼저, 9,000m 길이의 실의 중량(g)을 나타내는 데니어(Denier)에 있어서 국내생산품이 기준 데니어(Denier) 보다 2~3% 낮으며, 단위길이 당 실의 굵기가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사불균제도에서도 조사대상물품이 국내 생산품보다 우수하고, 콘(cone) 마다 감긴 실의 길이가 동일함을 나타내는 정장률에 있어서도 조사대상물품은 콘 마다 실의 길이가 동일하나 국내생산품은 콘 마다 실의 길이가 다른 정도가 많다고 주장하였음
- 미도교역(주)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조사대상공급자가 작성한 조사 대상물품의 물성표(technical specification)는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필요한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체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xxx사는 “품질이 동일”하다고 답변하였음(‘21.3.8. 제출)

- 31) 답변서를 제출한 수입자 4개사 중 xxx사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이 동일” 또는 “국내생산품이 우수”, xxx사는 “국내생산품이 우수”, xxx사는 “품질이 동일” 또는 “조사대상물품이 우수”하다고 답변하였으며, xxx사는 “일반사는 품질이 유사하나, 차별사(특수사)는 조사대상물품이 우수”하다고 답변함(‘21.3.8. 제출)
- 32) 미도교역(주)는 이해관계인회의(‘21.4.14.)에서 일반 원사에 있어서는 품질 차이가 없으나, 자사가 국내 독점 수입하는 xxx사의 차별화 원사는 국내생산품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조사대상물품 5개 품목의 데니어(Denier) 실제 측정치와 물성표(technical specification)를 이해관계인회의 후에 추가 제출하였음(‘21.4.21. 제출)
- 33) FDY는 일반사와 특수사(차별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사는 Semi-dull로서 제품 단면이 “O”형인 범용 대량생산 원사를 말하며, 특수사(차별사)는 Micro(세섬사, 50D이하) 원사, Multi-Filament (Denier per Filament 1 이하) 원사, Polymer(중합체) 개질(Cation Dyeable (양이온 염색 가능), Full-dull, 난연, 항균, 발열, 흡한속건 등) 원사, 특수단면사(편평사, 중공사, 이형단면사 등), Recycled 원사(친환경 재생 폴리에스테르 원사) 등 원단 수요에 맞춰 특별한 기능과 특성을 부여한 원사를 말함
- 34) 미도교역(주)가 주장하는 ‘정장률’은 1콘(cone) 당 권취되는(감기는) 실의 길이를 말하며, 미도교역(주)는 예를 들어 1,500개 콘(cone)으로 원단을 제직할 때, 국내생산품은 콘(cone) 마다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정도가 조사대상물품보다 많다고 주장함(수입자 답변서, ‘21.3.8. 제출)

2) 신청인측 의견

- 신청인측은 앞서 “I.4.나. 물리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별사를 포함한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별 규격 기준 또는 국내산업의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조사대상 물품과 차이가 없고, 수요자들(후공정 원단 제직업체 등)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번갈아 가면서 대체사용하고 있어 사용상의 품질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함³⁵⁾
- 신청인측은 데니어(Denier) 차이는 기준 데니어(Denier) \pm xxx~xxx%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그 범위 내에서는 우열의 차이가 없고, 데니어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며,
- 사불균제도(U%)는 xxx%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는 품질의 차이가 없고, 일반원사에 대한 시험성적서 결과로 전체 조사대상물품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보면 국내산업의 ‘xxx%이하’ 관리기준에서는 국내생산품의 사불균제도(U%)가 오히려 조사대상물품 보다 낮아 그 품질이 우수하였고,
- 국내생산품 생산 시 권취기(winder)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그 가동이 중단되도록 시스템 제어되고 있는바, 동일제품은 일정 권취속도로 동일시간 동안 생산되므로 생산되는 실의 정장률은 동일하며,
- 수요자들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사용하여 동일한 원단을 제직할 수 있고, 원단 제직 시 작업성, 효율, 불량 원단발생 등의 차이가 없어 사용상 품질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있다고 주장함
- 아울러,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이 제출한 차별사 조사대상물품 5개 품목의 물성표 중 비교 가능한 차별사 국내생산품 2개 품목의 물성표를 제출하였고, 비교 결과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간에 의미 있는 물성 차이는 없다고 주장함³⁶⁾
- 먼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강도, 신도, 열수수축률, 데니어 등 물리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며,

35) 조사신청서(‘20.11.26.) 및 국내산업 추가답변서(‘21.5.14. 및 ‘21.5.21.제출)

36) 국내산업 추가답변서(‘21.5.26)

- 수입자측이 제출한 조사대상물품 5개 품목의 물성표 중 사불균제도를 표시하고 있는 2개 품목을 국내생산품과 비교해 보면, 동일한 품목간 비교는 아니지만 국내생산품의 사불균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불균제도는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주장함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특수사간 물리적 특성 비교>

시험항목	단위	FDY 45D/24F CD FD ³⁷⁾		FDY 50D/36F TBR ³⁸⁾		규격
		조사대상물품	국내생산품	조사대상물품	국내생산품	
강도	g/d	xxx ³⁹⁾	xxx ± xxx	xxx ⁴⁰⁾	xxx	xxx~xxx
신도	%	xxx	xxx ± xxx	xxx	xxx	xxx~xxx
열수수축률	%	xxx	xxx ± xxx	xxx	xxx	xxx~xxx
사불균제도	U(%)	-	xxx	-	xxx	xxx이하
데니어	Denier	xxx	xxx	xxx	xxx	기준Denier ±xxx~xxx%

- * 자료 : 수입자의 이해관계인 회의 후 추가제출 자료 및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주) 규격은 국내업체에서 통용되는 규격 내지 국내산업의 관리 범위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특수사간 사불균제도 비교>

시험항목	단위	조사대상물품		국내생산품		규격
		FDY 75D/36F Low Shrinkage	FDY 90D/36F SD High Shrinkage	FDY 45D/24F CD FD	FDY 50D/36F TBR	
사불균제도	U(%)	xxx ⁴¹⁾	xxx ⁴²⁾	xxx	xxx	xxx이하

- * 자료 : 수입자의 이해관계인 회의 후 추가제출 자료 및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주) 규격은 국내산업의 관리 범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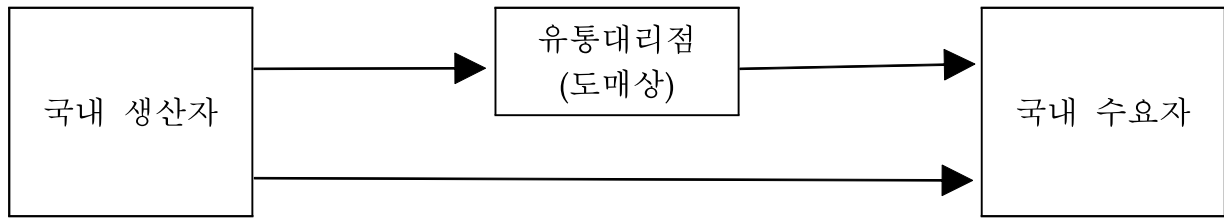
- 37) FDY 45D/24F CD FD는 양이온 염색 가능(Cation Dyeable, CD)하고 광택이 없는(Full-Dull, FD, 완전 무광사) 원사로서, 일반사와는 다른 차별사(특수사)로 분류하고 있음
- 38) FDY 50D/36F TBR은 원사가 반짝임(광택)을 갖으며, 단면이 Y자형(Trilobal)인 이형단면사로, 일반사와 다른 차별사(특수사)로 분류하고 있음
- 39)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성표상 강도 단위가 달라 국내생산품 기준으로 환산함 ($xxxg/dtex = xxx/0.9g/d = xxxg/d$, $1g/dtex=0.9g/d$ 환산식 적용)
- 40)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성표상 강도 단위가 달라 국내생산품 기준으로 환산함 ($xxxg/dtex = xxx/0.9g/d = xxxg/d$, $1g/dtex=0.9g/d$ 환산식 적용)
- 41)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성표상 사불균제도 단위가 달라 국내생산품 기준으로 환산함 ($xxxCV(\%)/1.25=xxxU(\%)$, $CV(\%)=1.25U(\%)$ 환산식 적용). CV(Coefficient of Variation, 변동계수율)(%)는 사불균제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로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임
- 42)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성표상 사불균제도 단위가 달라 국내생산품 기준으로 환산함 ($xxxCV(\%)/1.25=xxxU(\%)$, $CV(\%)=1.25U(\%)$ 환산식 적용)

3) 조사실 검토

- 이해관계인들은 일반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데 이견(異見)이 없으므로 조사실은 일반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고, 차별사(특수사)에 대하여 이를 검토함
-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를 제외한 이해관계인들은 일반사와 차별사를 구분하지 않았는바, 수요자들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상호 대체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수입자와 수요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음
- 아울러, 신청인측은 차별사를 포함한 국내생산품은 사불균제도(U%)와 데니어(Denier)에 있어서 국내산업의 관리범위 이내(사불균제도 xxx%이하, 기준 데니어 \pm xxx~xxx%)에서는 우열의 차이가 없고, 정장률도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있어 동일하며, 수요자들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사용하여 동일한 원단을 생산할 수 있어 품질 및 사용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이 제출한 차별사간 물성표상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 강도, 신도, 열수수축률, 사불균제도, 데니어 등이 업계 통용 규격기준 내지 국내산업의 관리범위 내에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간 의미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신청인측과 다수의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과 물성표상 물리적 특성 비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차별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요자들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상호 대체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바. 유통경로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되거나, 대리점 또는 수입자 단계를 거쳐서 최종수요자에게 유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유통경로가 유사함



사. Recycled FDY 관련 검토

- 차별사의 일종인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가 동종물품인지 여부를 검토한바, 물리적 특성, 제조공정, 구성요소 및 용도, 소비자 평가 및 품질,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은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가 동종물품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임⁴³⁾
-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이 각각 제출한 Recycled FDY의 물성표를 비교해 보면, 강도, 신도, 열수수축률 등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국내업계에서 통용되는 규격 내지 국내산업의 관리범위 내에 있어,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는 PET병의 회수, 세척, Flake(Recycled 폴리에스테르 Chip)로 분쇄, 원사방사 등의 제조공정을 거치고 있어, 제조공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는 모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친환경 의류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와 용도측면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조사대상물품인 Recycled FDY와 국내생산품인 Recycled FDY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신청인측에 따르면 수요자들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대체 사용하고 있고 Recycled FDY의 유통경로는 Recycled가 아닌 FDY의

43) 신청인측의 공청회 후 보완자료('21.9.24. 제출) 및 수입자측의 유선 문의결과('21.10.12.)

유통경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점⁴⁴⁾ 등을 고려할 때, 두 물품은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

<Recycled 폴리에스테르 FDY의 물리적 특성 비교>

시험항목	단위	국내생산품	조사대상물품	규격
		Recycled FDY 75D/36F SD	Recycled FDY 75D/36F SD	
강도	g/d	xxx	xxx ⁴⁵⁾	xxx~xxx
신도	%	xxx	xxx	xxx~xxx
열수수축률	%	xxx	xxx	xxx~xxx
사불균제도	U(%)	xxx	-	xxx이하
데니어	Denier	xxx	xxx ⁴⁶⁾	기준Denier ±xxx~xxx%

* 자료 : 신청인측의 공청회 후 추가제출 자료 및 수입자측의 추가제출 자료

주) 규격은 국내업체에서 통용되는 규격 내지 국내산업의 관리 범위임

아. 종합 검토

-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품명, 정의,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제조공정, 품질 및 소비자평가, 유통경로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이해관계인들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일반사를 제외한 차별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품질이 우수하여 선호도가 높다는 주장을 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측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결과, 신청인, 수입자 및 수요자측의 의견,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이 제출한 물성표 비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사는 물론 Recycled FDY를 포함한 차별사에 있어

44) 신청인측의 공청회 후 보완자료('21.9.24. 제출)

45)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성표上 강도 단위가 달라 국내생산품 기준으로 환산함 ($xxxg/dtex = xxx/0.9g/d = xxxg/d$, $1g/dtex=0.9g/d$ 환산식 적용)

46)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성표上 데니어 단위가 달라 국내생산품 기준으로 환산함 ($xxxdtex = xxx*0.9Denier = xxxDenier$, $10dtex=9Denier$ 환산식 적용)

서도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은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평가에 있어서도 품질 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대체가능한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1) 국내생산자

- 국내생산자는 성안합섬(주), (주)티케이케미칼, 대한화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효성티앤씨(주), (주)휴비스 등 6개사임

(‘19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한국화섬협회 회원여부	조사신청 찬성여부	피해지표 제출여부
xxx	xxx	xxx	회 원	xxx	제 출
xxx	xxx	xxx	회 원	xxx	제 출
xxx	xxx ⁴⁷⁾	xxx	회 원	xxx	제 출
xxx	xxx ⁴⁸⁾	xxx	회 원	xxx	제 출
소 계	xxx	50%초과			
xxx	xxx	xxx	회 원	xxx	미제출
xxx	xxx	xxx	회 원	xxx	미제출
합 계	xxx	100.0			

* 자료 : 조사신청서, 국내산업 답변서

47) <비공개>

48) <비공개>

2) 수입자

(단위 : 톤 ,%)

수입자	수입량(톤)	비 중(%)	답변서 제출 여부 ⁴⁹⁾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제출
			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기타			-
합계		100.0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17년~'20년 상반기 수입량 합계 기준, 총 수입자 xxx개사)

3) 수요자

- 다수의 수요자가 있음

49) 국내수입자 20개사 및 국내수요자 16개사(이 중 15개사는 수입자와 중복)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한 수입자는 미도교역(주), 삼성물산(주), 솔상인터내셔널(주), (주)제이티엠, 디아이동일(주), 덕산엔터프라이즈(주) 등 6개사이며, 답변서를 제출한 수요자는 (주)제이티엠, 덕산엔터프라이즈(주) 등 2개사임

나. 국내산업의 범위

< 검토할 사항 >

-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확인
-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국내생산자가 수입자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 ②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③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4.1조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다음의 예외가 있다.

- (i) 생산자가 덤핑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⁵⁰⁾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그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국내산업은 나머지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하생략)

1) 국내생산자

- 산업주무부처(섬유탄소나노과)⁵¹⁾에 확인한 결과,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자는 성안합섬(주), (주)티케이케미칼, 대한화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효성티앤씨(주), (주)휴비스 등 6개사임

2)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 등은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50) 이 항의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동인들 중 하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하나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b)동인들이 함께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또는 (c)동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단, 이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들중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 또는 감독을 행할 위치에 있을 경우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1)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화학섬유협회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섬유탄소나노과)임(‘20.12.9. 주무부처 의견서 접수)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확인결과,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의 기간에 있어서 xxx사, xxx사, xxx사, xxx사는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으나, xxx사와 xxx사는 동 기간 중 수입한 실적이 있어 이들을 아래와 같이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국내산업 답변서⁵²⁾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의 기간에 있어서 xxx사, xxx사 및 xxx사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xxx사와 xxx사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고, X사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이들을 아래와 같이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가) xxx사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확인 결과, xxx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에 조사대상물품 약 xxx톤(전체 수입물량의 1%이하)⁵³⁾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나, 이는 아주 근소한 수입물량이므로 xxx사를 국내산업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봄

나) xxx사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등을 확인한 결과, xxx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에 조사대상물품 약 xxx톤(전체 수입물량의 1%이하)⁵⁴⁾을 특수관계에 있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xxx사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있으나, 이는 근소한 수입물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xxx사를 국내산업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봄

52)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6.1. 제출)

53) '20.5.1~'20.10.31 기간 중 xxx사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약 xxx톤은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1%이하 수준임

54) '20.5.1~'20.10.31 기간 중 xxx사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약 xxx톤은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1%이하 수준임

다) xxx사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등을 확인한 결과, xxx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의 기간에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인 xxx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동 공급자로부터의 조사대상물품 수입실적은 약 xxx톤(전체 수입물량의 1%이하)⁵⁵⁾인바, 이는 아주 근소한 수입물량이므로 xxx사를 국내산업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봄

라) X사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사신청서 확인결과, X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사대상물품 수입자인 Y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5.1.~'20.10.31.)에 조사대상물품 약 xxx톤(전체 수입물량의 1%이하)⁵⁶⁾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바,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⁵⁷⁾에 따라 X사를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함
- X사에 따르면 동 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Y사에 내국신용장 거래(Local L/C 수출)로만 국내 동종물품을 판매하였기에, X사가 비특수관계자와의 동종물품 내국신용장 수출거래 시에도 특수관계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또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함
- X사는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인 '17년~'20년 상반기 기간 중에 Y사에게 비특수관계자 보다 평균 xxx% 높은 가격으로 국내 동종물품을 판매하였음⁵⁸⁾

55) '20.5.1~'20.10.31 기간 중 우리나라의 xxx사로부터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약 xxx톤은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1%이하 수준임

56) '20.5.1~'20.10.31 기간 중 Y사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약 xxx톤은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1%이하 수준임

57)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58) 신청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17년~'20년 상반기 기간 중 X사는 Y사에게 xxx톤(총판매량 xxx톤의 약 10%미만)을 평균 xxx천원/톤으로 내국신용장 판매한 반면, 비특수관계자들에게는 동 기간 중 xxx톤(총판매량의 약 90%이하)을 평균 xxx천원/톤(기준가격)으로 내국신용장 판매함. 따라서, '17년~'20년 상반기 기간 중 X사의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비특수관계

-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격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X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비특수관계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국내 동종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됨

마) 검토 종합

- 이상의 검토 결과, 성안합섬(주), (주)티케이케미칼, 대한화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효성티앤씨(주), (주)휴비스 등 6개사 전부를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조사실은 성안합섬(주), (주)티케이케미칼, 대한화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효성티앤씨(주), (주)휴비스 등 국내생산자 6개사의 '19년도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 합계(xxx톤)는 국내총생산량(xxx톤)의 전부(100%)로서,
- 본 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성안합섬(주), (주)티케이케미칼, 대한화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효성티앤씨(주) 및 (주)휴비스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으로 함

3)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국내생산자와 산업피해 분석

가) 절차적 측면

(1)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산업피해지표) 제출 국내생산자

- 조사실은 예비조사 기간('21.1.27.~'21.6.25.) 중 국내생산자 6개사 전부에 대해 조사질의서를 발송('21.1.29) 하였으나, xxx사와 xxx사의 2개사만

자 판매가격(기준가격) 보다 평균 xxx% 높았음

‘국내생산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이하 ‘산업피해지표’라 함)를 제출(‘21.3.22)하였음

- 아울러,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협회인 신청인(한국화학섬유협회)에게도 조사질의서를 발송한바, 국내생산자 협회 답변서를 제출(‘21.3.22)하였음
- 그러나, 조사실이 예비조사 기간(‘21.1.27.~’21.6.25.) 중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내생산자 4개사에 대해 본조사 기간(‘21.6.26.~’21.11.25.) 중 동일한 내용의 조사질의서를 재차 발송(‘21.7.6.)하고 그 답변서를 요청한데 대해, xxx사와 xxx사의 2개사가 새로이 ‘산업피해지표’를 제출(‘21.8.13.) 하였는바, 이에 따라 xxx사, xxx사, xxx사, xxx사 등 국내생산자 총 4개사가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하였음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

(가) 예비조사 기간 중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이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만나 반대의견이나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기간(‘21.1.27.~’21.6.25.) 중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회의(‘21.4.14.)를 개최하였음⁵⁹⁾
- 조사실은 회의에 앞서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공요청⁶⁰⁾에 따라 이해관계인회의 참여자에게 ‘국내생산자(신청인 포함)·수입자·수요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공개요약본⁶¹⁾’과 他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 공개요약본’을 제공하였음

59) 조사실은 신청인측(신청인(대리인), 국내생산자 6개사), 피신청인측(조사대상공급자(대리인) 5개사, 조사대상공급자 협회), 수입자 및 수요자측(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수입·수요자 2개사와 수입자 4개사)에게 이해관계인회의 개최사실과 참여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측(신청인(대리인), 국내생산자)과 수입자가 회의에 참석하였음

60) 이해관계인회의(‘21.4.14.)에 앞서 신청인측(‘21.4.1. 요청)과 수입자(‘21.3.29. 요청)가 국내생산자 및 국내수입자·수요자 답변서와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의 공개요약본 제공을 요청함

61) 국내생산자(협회 포함) 답변서 3건, 국내수입자 답변서 6건, 국내수요자 답변서 2건 등 총 11건

- 아울러, 조사실은 조사신청서 공개본, 조사개시 결정 검토보고서 공개본을 예비조사 기간 중에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동 자료에는 산업피해지표 제출기업이 xxx사와 xxx사 등 2개사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조사실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업명과 기업 수 등 산업피해지표 제출기업 관련 정보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으나, 예비조사 기간 중 피신청인(조사대상공급자)과 국내수입자, 국내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이와 관련한 주장이나 의견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나) 본조사 기간 중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및 제6.9조,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8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이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만나 반대의견이나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조사 기간('21.6.26.~'21.11.25.) 중 산업피해조사 공청회('21.9.16.)를 개최⁶²⁾하는 한편, '중간 조사보고서(수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음
- 조사실은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 참여자에게 '중간 조사보고서' 공개본과 他이해관계인의 '공청회 발언요지 공개요약본'을 제공하고, '중간 조사보고서' 공개본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21.9.13.)
- 또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사실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중간 조사보고서(수정본)' 공개본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21.10.19.)
- 이와 관련, 공청회에 참여한 수입자, 수요자, 조사대상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제공되고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중간 조사보고서'와

62) 산업피해조사 공청회('21.9.16.)에는 신청인측(신청인(대리인), 국내생산자 2개사), 피신청인측(조사대상공급자 5개사(대리인)), 조사대상국 정부, 수입자(2개사) 등이 참석하였음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 ‘중간 조사보고서(수정본)’의 공개본에는

- 산업피해지표 제출 국내생산자가 총 4개사라는 사실과 이들 4개사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량의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50%초과)을 점하고 있어 조사실은 이들 4개사의 산업피해지표가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본 조사보고서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 4개사가 제출한 자료를 이용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조사실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 등 산업피해지표 제출기업 관련 정보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으나, 본조사 기간 중 피신청인(조사대상공급자)과 국내수입자, 국내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이와 관련한 주장이나 의견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나) 내용적 측면

- 조사실이 예비조사 기간(‘21.1.27.~’21.6.25.) 중 국내생산자 6개사 전부에 대해 질의서를 발송(‘21.1.29.)한데 대해, 동종물품 국내생산자 6개사 중 xxx사와 xxx사 2개사만 ‘국내생산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산업피해지표)를 제출(‘21.3.22.)하였으나,
- 조사실이 본조사 기간(‘21.6.26.~’21.11.25.) 중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내생산자 4개사에 대해 조사질의서를 재차 발송(‘21.7.6.)한데 대해, xxx사와 xxx사의 2개사가 새로이 ‘국내생산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산업피해지표’)를 제출(‘21.8.13.)하였는바, 이에 따라 xxx사, xxx사, xxx사, xxx사 등 국내생산자 총 4개사가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실은 현지실사⁶³⁾를 통해 이를 검증함

63) xxx사, xxx사, xxx사, xxx사 등 국내생산자 4개사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함(‘21.8.20., ‘21.8.24., ‘21.10.8. 및 ‘21.10.13.). <별책 : 붙임자료> “11. 국내생산자 등 현지실사 결과보고서” 참조

-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6개사 중에서 4개사가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하였고,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한 국내생산자 4개사의 '19년도 기준 동종물품 생산량의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50%초과)을 점하고 있어 이들 4개사의 산업피해지표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산업의 피해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본 보고서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 4개사가 제출한 자료를 이용함
- 따라서, 조사실은 본 보고서 “Ⅲ. 국내산업의 피해”, “Ⅳ.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등에 있어서 xxx사, xxx사, xxx사 및 xxx사 4개사의 산업피해지표* 내지 정보를 대상으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분석함
- * 국내산업의 판매가격,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판매, 재고,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각종 산업피해지표

<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현황 >

(‘19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한국화섬협회 회원여부	조사신청 찬성여부	피해지표 제출여부
xxx	xxx	xxx	회 원	xxx	제 출
xxx	xxx	xxx	회 원	xxx	제 출
xxx	xxx	xxx	회 원	xxx	제 출
xxx	xxx	xxx	회 원	xxx	제 출
소 계	xxx	<u>50%초과</u>			
xxx	xxx	xxx	회 원	xxx	미제출
xxx	xxx	xxx	회 원	xxx	미제출
합 계	xxx	100.0			

* 자료 : 조사신청서, 국내산업 답변서

6.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현황 및 수급상황

가. 개 관

-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3대 인조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합성섬유로서 장섬유(Filament)와 단섬유(Staple Fiber)로 구분됨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에 의하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는 54류에 포함되며, 총 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하에서는 조사대상물품인 완전연신사(FDY)를 포함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폴리에스테르 장섬유(Polyester Filament, PF)의 산업 현황에 대해 살펴봄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분류 >

HSK 코드	품목명	HSK 코드	품목명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 재봉사	5402.47.9000	폴리에스테르 FDY
5402.20.0000	폴리에스테르 강력사	5402.52.0000	기타 폴리에스테르(꼬임 50회 초과)
5402.33.9000	폴리에스테르 DTY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2.46.9000	폴리에스테르 POY	-	-

* 자료 : 「폴리에스테르(강력사·FDY) 산업경쟁력 조사」('09.10월, 무역위원회 & 한국화섬협회)

나. 세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현황

- '17년도 세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량은 약 37백만톤 규모이며, '10년~'17년 기간 중 생산량은 연평균 6.6% 증가하였음

< 세계 폴리에스테르 생산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2010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감율 (‘10-’17)
폴리 에스테르	장섬유	23,723 (63.8)	36,170 (69.4)	36,192 (69.1)	37,165 (69.1)	6.6
	단섬유	13,473 (36.2)	15,941 (30.6)	16,206 (30.9)	16,602 (30.9)	3.0
	합계	37,196 (100.0)	52,111 (100.0)	52,398 (100.0)	53,767 (100.0)	5.4

* 자료 : 한국화학섬유협회 「화섬편람 2020」

* ()내는 폴리에스테르 합계 대비 비중(%)임

- '18년도 기준 세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량은 38,084천톤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31,256천톤(82.1%), 인도 3,297천톤(8.7%), 대만 798천톤(2.1%), 한국 595천톤(1.6%) 등 順임(()내는 세계 전체 대비 비중임)
- '10년~'18년 기간 중 국가별 연평균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량은 중국(8.1%)과 인도(5.4%)는 증가하였으나, 대만(△4.1%), 한국(△2.8%)과 기타 국가들은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10년~'18년 기간 중 세계 전체 대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량 비중은 중국(70.4%→82.1%)이 상승하였고, 인도(9.1%→8.7%)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대만(4.7%→2.1%), 한국(3.1%→1.6%) 등은 하락하였음

< 주요 국가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증감율 (‘10-’18)
중국	16,701 (70.4)	29,628 (81.9)	28,377 (78.4)	28,310 (76.2)	31,256 (82.1)	8.1
인도	2,159 (9.1)	3,162 (8.7)	3,266 (9.0)	3,384 (9.1)	3,297 (8.7)	5.4
대만	1,111 (4.7)	915 (2.5)	861 (2.4)	790 (2.1)	798 (2.1)	△4.1
한국	747 (3.1)	622 (1.7)	625 (1.7)	604 (1.6)	595 (1.6)	△2.8
유럽	430 (1.8)	338 (0.9)	335 (0.9)	396 (1.1)	394 (1.0)	△1.1
일본	188 (0.8)	128 (0.4)	124 (0.3)	121 (0.3)	118 (0.3)	△5.7
브라질	91 (0.4)	69 (0.2)	64 (0.2)	58 (0.2)	74 (0.2)	△2.6
멕시코	78 (0.3)	73 (0.2)	72 (0.2)	69 (0.2)	- (-)	-
구CIS	- (-)	53 (0.1)	61 (0.2)	61 (0.2)	61 (0.2)	-
세계 전체	23,723 (100.0)	36,170 (100.0)	36,192 (100.0)	37,165 (100.0)	38,084 ⁶⁴⁾ (100.0)	6.1

* 자료 : 한국화학섬유협회 「화섬편람 2020」

* ()내는 세계 전체 대비 비중(%)임

다.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현황

-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⁶⁵⁾ 산업은 국내 석유화학업체로부터 원료 (TPA, MEG)를 공급받아 섬유를 제조하여 직물산업, 자동차 산업, 토목 건축 산업 등 다양한 수요산업의 원료로 공급하는 역할을 함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는 FDY, DTY, POY 등을 포함한 총 7개 품목으로 구성됨

- ‘19년도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량은 약 529천톤 규모이며,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생산증가, 원료가격 상승 등 경영악화로 인해 ‘10년~’19년 기간 중 생산량은 연평균 3.8% 감소하였음

64) ‘18년도 세계 전체 합계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집계한 통계자료를 사용함

65)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에 의하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는 54류에 포함되며, FDY, DTY, POY 등을 포함한 총 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 화학섬유 생산현황 >

(단위 : 톤, %)

구 분		2010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감율 ('10-'19)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747,185 (58.4)	625,397 (51.5)	604,346 (49.3)	595,350 (48.3)	528,722 (49.6)	△3.8
	단섬유	531,735 (41.6)	589,073 (48.5)	621,150 (50.7)	637,252 (51.7)	536,443 (50.4)	0.1
	합계	1,278,920 (100.0)	1,214,470 (100.0)	1,225,496 (100.0)	1,232,602 (100.0)	1,065,165 (100.0)	△2.0

* 자료 : 한국화학섬유협회 「화섬편람 2020」

* ()내는 폴리에스테르 합계 대비 비중(%)임

- '18년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의 용도별 출하량은 의류용 약 412천톤 (70.0%), 산업용 약 100천톤(17.0%), 홈 텍스타일용 약 77천톤(13.0%)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의 용도별⁶⁶⁾ 출하량(2018년)>

(단위: 천톤, %)

구 분	의류용	산업용	홈텍스타일용	합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411.9 (70.0)	100.0 (17.0)	76.5 (13.0)	588.4 (100.0)

* 자료 : 한국화학섬유협회

* ()내는 합계 대비 비중(%)임

66)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의 용도>

구 분	용 도
의류용	신사복, 숙녀복, 셔츠, 란제리, 바지, 유니폼, 스포츠 의류 등
인테리어용	카펫의 기포, 침대용 시트, 벽지, 커튼 등
산업용(고강력사)	자동차 타이어코드지, 일반산업용(로프, 토목공사용 보강재, 안전벨트, 타포린, 광고용 등)
산업용(기타)	의료용(인조혈관, 수출용 봉합사 등), 농업용, 포장용, 건축용, 환경용 등

* 자료 : 「폴리에스테르(강력사, FDY) 산업경쟁력 조사」 ('09.10월, 무역위원회 & 한국화섬협회)

라. 국내수급 현황

- 국내의 FDY 수요는 '19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소비가 xxx톤으로 xxx%, 해외소비(수출)가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 국내의 FDY 공급은 '19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공급이 xxx톤으로 xxx%, 해외공급(수입)가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단위 : 톤, 백만원, %)

연도 구분			'17년	'18년	증감률	'19년	증감률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수 요	국내 소비 (내수)	물량	<u>1,000</u>	<u>879</u>	△12.1	<u>1,052</u>	19.7	<u>508</u>	<u>457</u>	△10.0
		금액	<u>10,000</u>	<u>9,576</u>	△4.2	<u>10,545</u>	10.1	<u>5,319</u>	<u>3,967</u>	△25.4
	해외 소비 (수출)	물량	<u>1,000</u>	<u>1,006</u>	0.6	<u>998</u>	△0.9	<u>497</u>	<u>324</u>	△34.9
		금액	<u>10,000</u>	<u>10,607</u>	6.1	<u>10,173</u>	△4.1	<u>5,178</u>	<u>3,079</u>	△40.5
합계		물량	<u>1,000</u>	<u>954</u>	△4.6	<u>1,020</u>	7.0	<u>502</u>	<u>379</u>	△24.5
		금액	<u>10,000</u>	<u>10,189</u>	1.9	<u>10,324</u>	1.3	<u>5,235</u>	<u>3,439</u>	△34.3
공 급	국내 공급 (판매)	물량	<u>1,000</u>	<u>990</u>	△1.0	<u>973</u>	△1.7	<u>482</u>	<u>332</u>	△31.1
		금액	<u>10,000</u>	<u>10,591</u>	5.9	<u>10,018</u>	△5.4	<u>5,084</u>	<u>3,122</u>	△38.6
	해외 공급 (수입)	물량	<u>1,000</u>	<u>816</u>	△18.4	<u>1,204</u>	47.6	<u>576</u>	<u>556</u>	△3.4
		금액	<u>10,000</u>	<u>8,683</u>	△13.2	<u>11,467</u>	32.1	<u>5,799</u>	<u>4,626</u>	△20.2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국내소비(내수) = 국내공급(판매) - 해외소비(수출) + 해외공급(수입)

* 국내공급(판매) = 국내출하 + 수출

7. 비밀취급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 비밀취급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성격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인 경우,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격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 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1)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인(국내생산자)) 조사신청서, 국내생산자(협회 포함) 답변서, 공청회 및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국내생산자 현지실사 답변서 등
- (조사대상공급자) 공급자 답변서
- (이해관계인) 수입자 답변서, 수요자 답변서, 공청회 및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수입자 현지실사 답변서 등

2) 정부 서류

- 본 조사보고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

나. 이해관계인 제출서류의 정당한 사유 제출 여부

- (신청인(국내생산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조사대상공급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이해관계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다. 비밀취급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우려 여부

- (신청인(국내생산자)) 신청인(국내생산자)은 생산현황, 판매 및 재고현황, 손익 및 재무상태, 제조원가, 연구개발 및 투자, 고용 및 임금현황, 현금흐름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유료 구매자료⁶⁷⁾ 등은 영업상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신청인에게 영업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함
-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생산현황, 판매 및 재고현황, 손익 및 재무상태, 제조원가, 연구개발 및 투자, 고용 및 임금현황, 현금흐름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유료 구매자료⁶⁸⁾ 등은 영업상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에게 영업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함

67)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통계자료로 China Chemical & Fiber Economic Information Network(CCFEI, www.ccfEI.net)가 발간한 'Polyester Chain Annual Report 2019'를 제출함

68)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통계의 근거자료로 중국 화섬정보망(Chemical Fiber Information Network, www.ccf.com.cn)과 Leading Industry Research Network(www.leadingir.com)에서 입수한 자료를 제출함

- (이해관계인) 수입자 및 수요자는 수입실적, 판매실적, 재고량, 국내 및 해외 거래선 등의 자료는 영업상 비밀자료로서 비공개를 요청함
-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상기 비밀취급 요청자료와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

라. 비밀취급 자료의 요약서 제출 여부

- 비밀취급 요청 서류를 제출한 자들은 모두 비밀이 아닌 요약서로 비밀취급 요청 서류의 공개본을 제출하였음

마. 기타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는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무역거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함

II. 덤핑사실

1.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 조사개시 당시, 조사실은 관세청 통관자료를 통해 약 130개 공급자를 확인하였으며, 조사기간 내에 모든 공급자에 대해 덤핑사실 조사 및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對한국 수출비중 상위 5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selected respondent)로 선정함
- 그 결과, '형이', '신평밍', '티앤성', '귀왕', '형리'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5개 조사대상 공급자의 對한국 수출비중은 xxx%에 해당함
-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21.2.15.~24.) 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의사를 표명하였음
- 조사개시('21.1.27.) 당시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의 자발대응 신청은 없었음

2. 덤핑사실 조사경과

- 조사실은 '21.1.27. 덤핑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음
-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21.3.3.~8.에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이를 검토하여 당초 '21.3.9.이었던 답변기한을 '21.3.23.로 2주 연장하는 것을 승인·통보하였으며,
- 형이, 신평밍, 형리 조사대상공급자는 '21.3.22.에 추가로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이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21.3.30.로 1주 추가 연장하였으며 연장된 기한 내에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서가 접수됨
- 조사실은 '21.5.18. 5개 조사대상공급자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21.5.27. 모든 조사대상자의 보충질의 답변서가 접수됨

- 조사실은 '21.9.13.~9.30. 5개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 실사검증을 실시함
 - COVID-19 국면으로 현지실사를 대체하여 조사대상공급자의 위임을 받은 국내 대리인 대면조사 및 조사대상공급자 현지 기업인의 온라인 참여 실사를 통해 답변서를 검증함
- 조사실은 '21.8.12., '21.11.2.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5개 조사대상공급자 및 신청인과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함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가. 형이(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및 그 관계사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①형이(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인 ②형이 폴리머(Zhejiang Hengyi Polymer Co., Ltd.), ③형이 하이테크(Zhejiang Hengyi High-tech Material Co., Ltd.), ④형밍(Shaoxing Keqiao Hengming Chemical Fiber Co., Ltd.), ⑤이평(Jiaxing Yipeng Chemical Fiber Co., Ltd.), ⑥이징(Hangzhou Yijing Chemical Fiber Co., Ltd.), ⑦쌍투(Zhejiang Shuangtu New Material Co., Ltd.), ⑧형이 세일즈(Zhejiang Hengyi Petrochemical Sales Co., Ltd.)(이하 “피신청인”)는 절강성에 소재하고 있으며 xxx가 ②xxx(xxx%), ③xxx(xxx%), ⑥xxx(xxx%), ⑧xxx(xxx%)의 최대주주이고 형이그룹 xxx인 xxx(xxx)가 ①xxx(xxx%), ⑤xxx(xxx%), ⑦xxx(Xxx%)의 최대주주임
- 생산자인 xxx, xxx, xxx, xxx, xxx는 조사대상기간동안 조사대상물품 xxx(약 xxx톤)을 수출자인 xxx를 통해 한국에 수출하고 약 xxx%(약 xxx톤)를 xxx를 통해 내수판매하였으며 그룹내 관계사⁶⁹⁾로부터 주요 원재료 및 운송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생산, 판매 및 지분관계로 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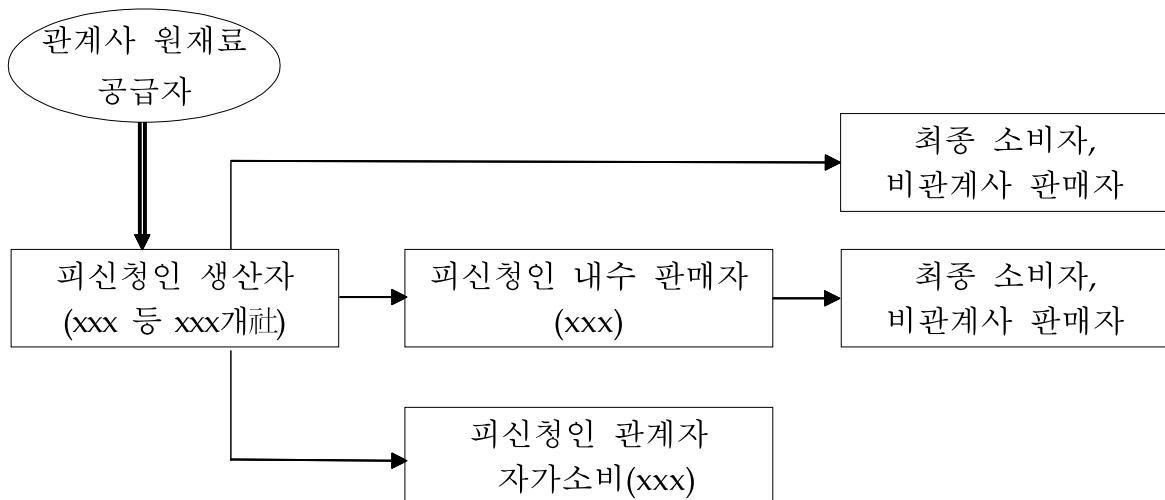
69) 조사대상물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지 않았으나 주요 원재료(TPA, MEG)를 공급하고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관련된 관계사가 xxx개 있으며 이 가운데 xxx는 TPA 원료인 PX (파라자일렌)을 생산·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됨

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을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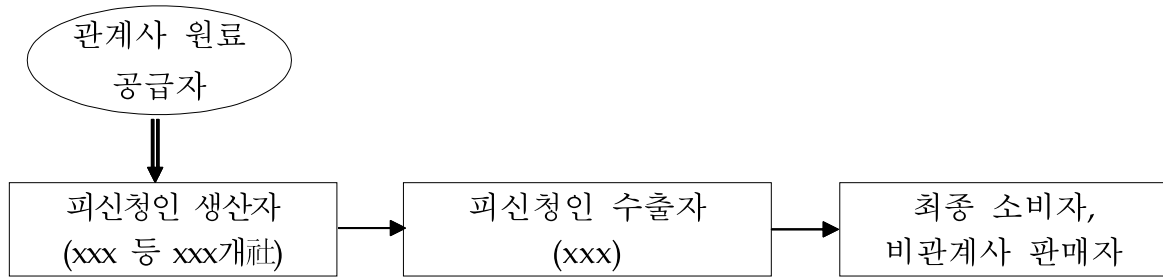
-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생산량은 xxx 약 xxx톤, xxx xxx만톤, xxx xxx톤, xxx xxx톤, xxx xxx톤, xxx xxx톤 등 총 약 xxx톤임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국, 제3국, 공급국 내수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으며 관계사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내수판매량은 약 xxx톤, 금액 xxxCNY(약 xxx원)이며 對한국 수출은 xxx톤, xxxCNY(약 xxx원), 제3국 수출은 xxx톤, xxx CNY(약 xxx원)임
- 조사대상물품의 내수판매는 관계사를 통한 재판매, 관계사 최종 소비 판매, 비관계사 직접판매의 경로로 이루어졌으며 對한국 수출은 비관계사인 최종소비자 또는 도매상에 대한 직접판매로 이루어짐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경로>

· 내수판매



· 수출 판매



2) 조사 경과

- '21. 1. 2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1.3.9.)
- '21. 2. 18.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1. 3. 9. : 답변기한 연장 통보 (답변기한 : '21.3.23.)
- '21. 3. 22. : 답변기한 추가 연장 통보 (답변기한 : '21.3.30.)
- '21. 3. 30. : 피신청인 답변서 접수
- '21. 5. 18. : 보충질의서 송부
- '21. 5. 27.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 '21. 6. 25. : 피신청인에게 예비판정 결과 통보
- '21. 7. 7. : 피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7. 22. : 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8. 12. : 덤핑사실조사 1차 이해관계인 회의
- '21. 9. 27 ~ 9. 28. : 피신청인 실사 검증
- '21. 11. 2. : 덤핑사실조사 2차 이해관계인 회의

3) 답변서 검토

-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회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조사대상 물품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검토함

4)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정상가격,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 다만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관계사 원재료 공급자가 제3의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이 원천자료로 충분히 증빙되지 않고⁷⁰⁾,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비율이 미미⁷¹⁾하여 그 거래단가를 정상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정 시장거래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이용 가능한 자료로 활용함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 (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1)등급(P = 정상 등급품, N = 급외품), (2)염색여부(U = 미원착, D = 원착), (3)테니어(9,000m 길이의 실 그램 수), (4)필라멘트 수(실을 구성하는 가닥수), (5)광택(1=Full dull ~ 6=Super Bright)을 CCN의 기준으로 제시함

70) 피신청인은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특정 1개월간 판매 현황 ERP 화면을 샘플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전체 거래내역이 확인 불가능하며 그 가운데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거래내역이 식별되지 않는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비관계사 판매단가를 충분히 증빙하지 못함

71) 관계사 구매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적정 거래 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xxx, xxx가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TPA, MEG의 원가 조정은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활용함. WTO 협정 2.1.1.1조에 따르면 공급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생산,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입수가 가능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음

* CCN 예시: 150데니어/64필라멘트인 제품이 염색되지 않은 정상 등급품으로서 광택이 full dull인 경우 → “PU1500641”로 표기

- 피신청인은 조사 질의서와 함께 제공된 CCN 안내서를 기준으로 개별 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되,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피신청인은 CCN 구성방법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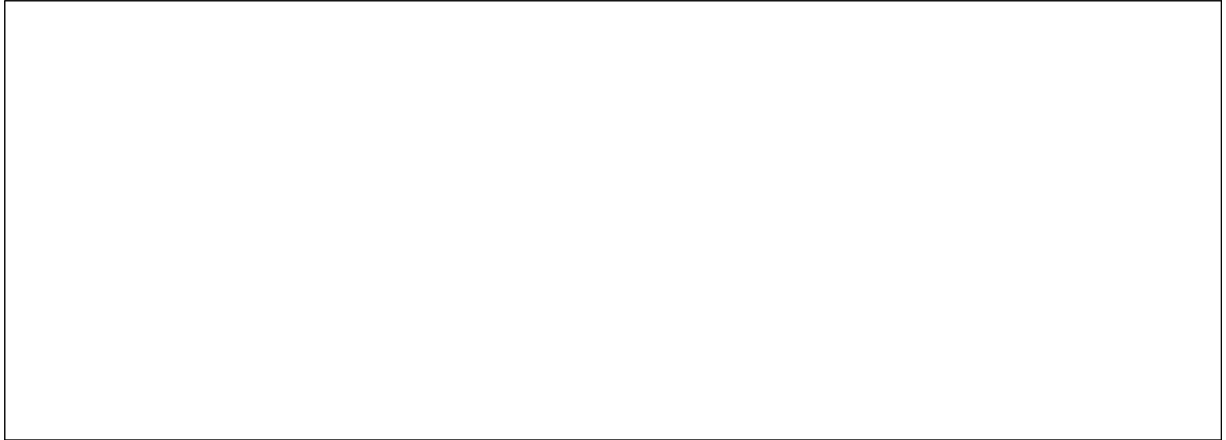
6)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 판매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공급국 총 내수 판매량은 對한국 수출량의 xxx%이며 이는 5% 이상으로 전체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톤)

--	--



나)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재판매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거래건에 대해서는 최초로 비
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함
- 피신청인 생산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 약 xxx톤(총 판
매량의 xxx%)을 특수관계자 xxx를 통해 내수판매 하였는바, xxx가
최초로 비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에 이용함
- 피신청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소비목적으로 판매한 거래 건은 그 물량이
총 내수판매물량 대비 약 xxx%로서 미미한 수준임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Test)

-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⁷²⁾를 비교함
- 피신청인이 관계사⁷³⁾로부터 구매한 주요 원재료(TPA, MEG) 비용이
정상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함

72)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

73) xxx 등 xxx개사

- 이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과 i)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 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i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가 제3의 독립된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을 비교검토함
-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관계사 원재료 공급자가 제3의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이 원천자료로 충분히 증빙되지 않고⁷⁴⁾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비율이 미미⁷⁵⁾하여 그 거래단가를 정상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거래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활용하여 정상성을 반영함
- xxx(xxx) 및 xxx(xxx)의 답변자료를 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 활용⁷⁶⁾함
- 피신청인 제조원가의 정상성을 반영하여 xxx, xxx, xxx, xxx의 제조원가를 각 xxx%, xxx%, xxx%, xxx% 상향 조정함

74) 피신청인은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특정 1개월간 판매 현황 ERP 화면을 샘플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전체 거래내역이 확인 불가능하며 그 가운데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거래내역이 식별되지 않는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비관계사 판매단가를 충분히 증빙하지 못함

75) 관계사 구매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적정 거래 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xxx, xxx가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TPA, MEG의 원가 조정은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활용함. WTO 협정 2.1.1.1조에 따르면 공급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생산,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입수가 가능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음

< 관계사 구매 비율 >

	xxx	xxx	xxx	xxx	xxx	xxx
TPA	xxx%	xxx%	xxx%	xxx%	xxx%	xxx%
MEG	xxx%	xxx%	xxx%	xxx%	xxx%	xxx%

76) xxx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여개 비관계사로부터 TPA 약 xxx톤, MEG 약 xxx톤을 구매하였으며 비관계사 구매비율은 TPA xxx%, MEG xxx%이고, xxx은 xxx여개 비관계사로부터 TPA 약 xxx톤, MEG 약 xxx톤을 구매하였으며 비관계사 구매비율은 xxx%로 모두 정상적인 시장거래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음. 특히 피신청인은 관계사가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TPA, MEG 거래내역을 충분히 증빙하지 못하여 1차 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음. 따라서 xxx 및 xxx의 비관계사 거래가 합리적인 제조원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판매관리비(SG&A)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영업외 수익 및 비용 항목으로 구성하되 금융비용 가운데 이자수익과,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투자수익은 제외함
- 원가미만으로 판매한 물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적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 톤)

다) 구성가격 산정

-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결과 對한국 수출판매가 이루어진 모든 CCN의 내수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성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함

라)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와 신용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는 실제 발생비용을 물량으로 배분하여 조정하였으며 증빙자료로 운송계약서와 운임 요율표를 제출함
 - 신용비용⁷⁷⁾은 매출채권 회전율에 따른 평균신용기간에 형이의 단기차입금 이자율(xxx%)을 곱하여 조정하였으며 해당 증빙자료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래처별 매출채권 현황을 제출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CNY/톤)

--

⁷⁷⁾ 신용비용 = 판매송장금액 × (신용기간 / 365) × 단기차입금이자율



7)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xxx 등 xxx개사가 생산한 조사대상물품을 관계사 xxx를 통해 전량 한국에 수출하였으므로 덤핑가격은 xxx가 한국의 비관계자에게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사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를 조정함
 -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보험료, 은행수수료, 커미션은 거래처별 실제 발생된 비용을 반영함
 - 해상운반비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월별 해상운임비를 물량기준으로 배부하되 음의 비용은 제외하여 반영함

- 신용비용은 신용기간에 형이의 단기차입금 이자율(xxx%)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함
- 포장비는 수출과 내수의 단위당 포장비 차이액(xxxCNY/톤)을 수출 물량에 가산하여 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CNY/톤)

--

8) 관세가격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함

9) 최종덤핑률

-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피신청인의 최종덤핑률은 3.95%임

(단위: CNY/톤)

--

* 덤핑률은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나. 신평밍 중시(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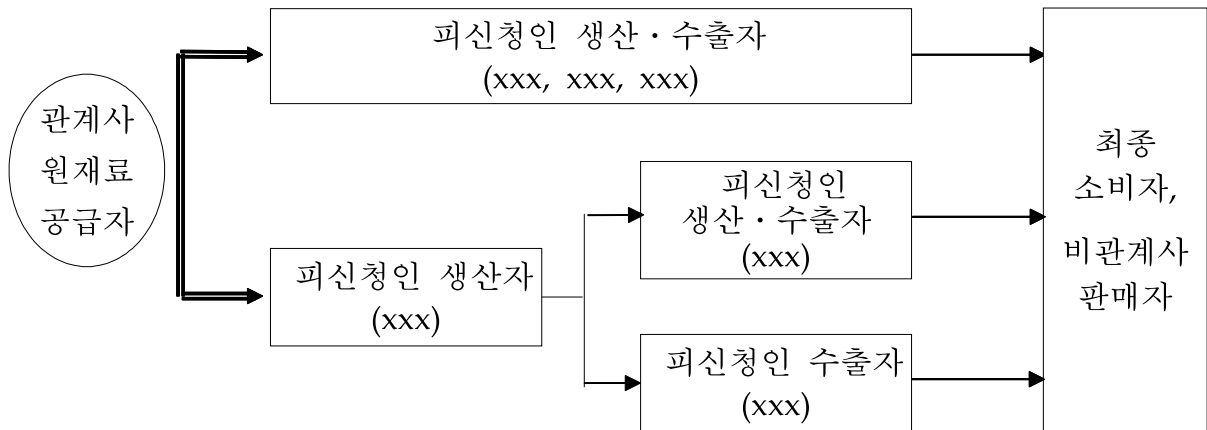
- 신평밍 그룹의 ①중시(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와 그 관계사인 ②중신(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③중웨이(Tongxiang Zhongwei Chemical Fiber Co., Ltd.), ④중첸(Tongxiang Zhongchen Chemical Fiber Co., Ltd.), ⑤중치(Tongxiang Zhongchi Chemical Fiber Co., Ltd.), ⑥신평밍 무역(Zhejiang Xinfengming Import and Export Co., Ltd.), ⑦종이(Tongxiang Zhongyi Chemical Fiber Co., Ltd.)(이하 “피신청인”)는 저장성에 소재하고 있고 모두 xxx(%)이 xxx%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임
- 피신청인은 신평밍 그룹의 자회사로, 그룹 관계사로부터 주요 원재료 및 포장, 운송 서비스를 구매⁷⁸⁾하였으며 피신청인간 내부거래를 통해 조사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등 상호 밀접한 생산, 판매, 지분 관계로 관련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을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생산량은 xxx 약 xxx톤, xxx 약 xxx톤, xxx xxx톤, xxx xxx톤, xxx xxx톤, xxx xxx톤 등 총 약 xxx톤임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국, 제3국, 공급국 내수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으며 관계사간 거래를 제외한 내수판매는 약 xxx톤, 약 xxx CNY(약 xxx원)이고 對한국 수출은 xxx톤, xxx CNY(약 xxx원), 제3국 수출은 xxx톤, xxx CNY(약 xxx원)임
- 조사대상물품의 내수판매는 비관계사인 최종 소비자 또는 도매상에게 직접판매로 이루어졌으며 對한국 수출은 비관계사인 최종소비자 또는

78) xxx 등 xxx개 관계사로부터 원부재료 및 운송서비스를 구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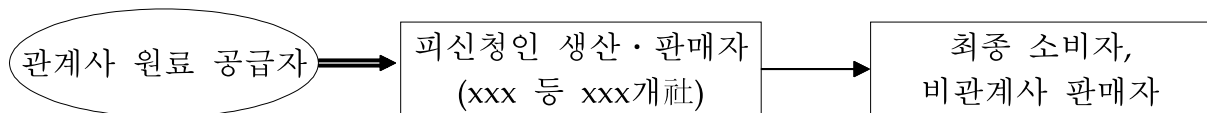
도매상에 대한 직접판매와 관계사를 통한 간접판매로 이루어짐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경로>

· 내수판매



· 수출판매



2) 조사 경과

- '21. 1. 2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1.3.9.)
- '21. 2. 24.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1. 3. 9. : 답변기한 연장 통보(답변기한 : '21.3.23.)
- '21. 3. 22. : 답변기한 추가 연장 통보(답변기한 : '21.3.30.)
- '21. 3. 30. : 피신청인 답변서 접수
- '21. 5. 18. : 보충질의서 송부
- '21. 5. 27.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 '21. 6. 25. : 피신청인에게 예비판정 결과 통보
- '21. 7. 7. : 피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7. 22. : 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8. 12. : 덤핑사실조사 1차 이해관계인 회의
- '21. 9. 15, 9.17. : 피신청인 실사 검증 실시
- '21. 11. 2. : 덤핑사실조사 2차 이해관계인 회의

3) 답변서 검토

-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조사대상 물품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검토함

4)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정상가격,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 다만,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을 기초로 정상 시장가격을 반영함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1)등급(P = 정상 등급품, N = 급외품), (2)염색여부(U = 미원착, D = 원착), (3)데니어(9,000m 길이의 실 중량 그램 수), (4)필라멘트 수(실을 구성하는 가닥수), (5)광택(1=Full dull ~ 6=Super Bright)을 CCN의 기준으로 제시함

* CCN 예시: 150데니어/64필라멘트인 제품이 염색되지 않은 정상 등급품으로서 광택이 full dull인 경우 → "PU1500641"로 표기

- 피신청인은 조사 질의서와 함께 제공된 CCN 안내서를 기준으로 개별 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되,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피신청인은 CCN 구성방법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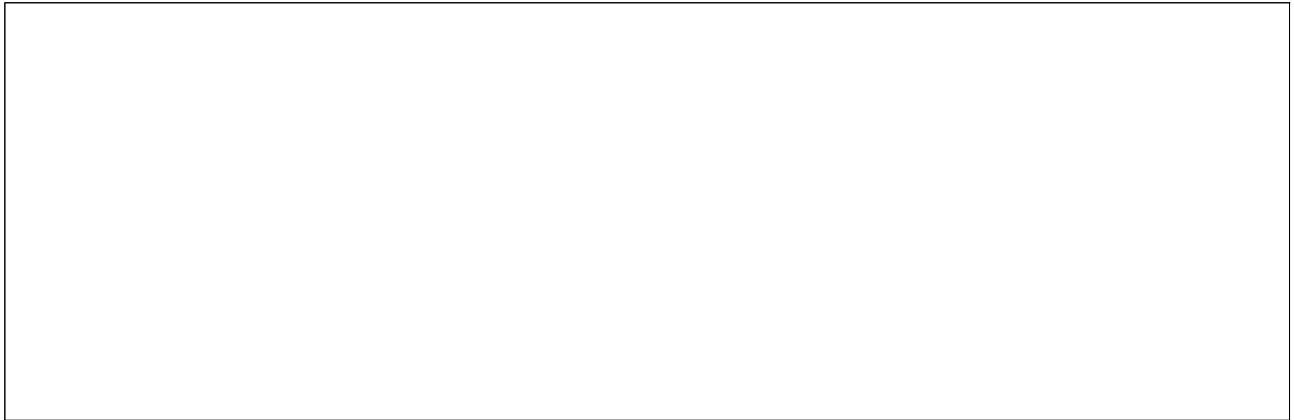
6)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공급국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xxx%이며 이는 5% 이상이므로 전체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톤)

--	--



나)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피신청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내수판매한 거래 건은 없음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Test)

- CCN별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를 비교함
- 피신청인이 관계사⁷⁹⁾로부터 구매한 원재료(TPA, MEG) 비용이 적정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함
 - 이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과 i)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 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i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가 제3의 독립된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을 비교 검토함
 - 피신청인이 관계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비율이 TPA, MEG 모두 80% 미만인 바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과 피신청인이 답변자료로 제출한 비관계사 구매가격의 차이를 제조원가에 반영하여 가산함
 - 피신청인 제조원가의 정상성을 반영하여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제조원가를 상향 조정함

79) xxx 등 xxx개사

- 판매관리비(SG&A)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영업외 수익 및 비용 항목으로 구성하되, 금융비용 가운데 이자소득과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투자수익, 정부 보조금 성격의 기타 수익은 제외함
- 원가미만으로 판매한 물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적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톤)

--

다) 구성가격 산정

-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결과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 구성가격을 적용하나,
 - 모든 CCN이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되어 구성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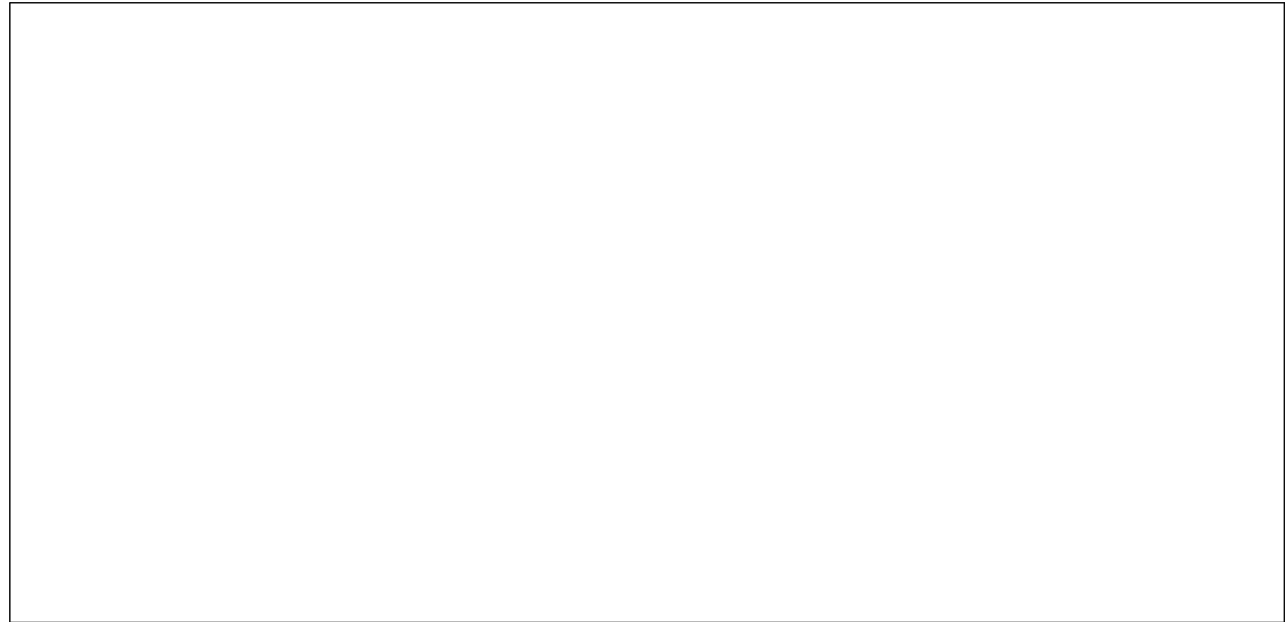
라)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는 실제 발생한 전체 비용을 판매물량으로 배분하여 조정함
 - 신용비용은 평균 매출채권 회수율에 따른 신용기간에 중국인민은행 단기차입 이자율(xxx%) 적용하여 조정함
 - 포장비는 단위당 포장비에 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되 수출과 내수 판매간 단가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함
 - 피신청인은 광고비를 거래건별 판매액으로 배분하여 조정요소로 보고 하였으나, 조사대상물품의 내수판매를 위한 직접 판매비 인지 여부가 증빙되지 않아 조정요소로 적용하지 않음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CNY/톤)

--



7)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한국의 수입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對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는 거래처별 실제 발생한 비용을 조정함
 - 신용비용은 대금지급일에서 송장일자를 차감한 신용기간에 단기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포장비는 단위당 포장비에 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출과 내수 판매간 포장비의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였음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CNY/톤)

--

8) 과세가격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함

9) 최종덤핑률

-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피신청인의 최종덤핑률은 5.79%임

(단위 : CNY/톤)

--

* 덤핑률은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다. 티앤성(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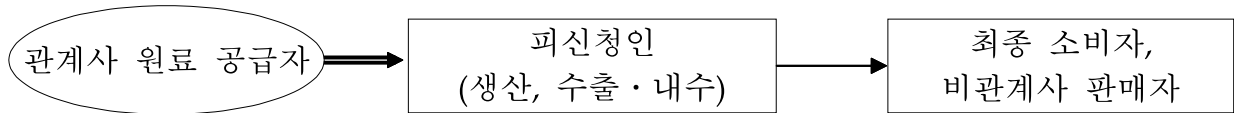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티앤성(이하 '피신청인')은 생산자 겸 수출자로 중국 저장성에 소재하고 있고 xxx(%)가 최대주주(%)로서 생산, 판매에 직접 관련된 관계사는 없으나 xxx(%) 및 그의 xxx(%) 등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TPA, MEG를 구매하였음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국, 제3국, 공급국 내수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으며 내수판매는 약 xxx톤, xxxCNY(약 xxx원)이고 對한국 수출은 약 xxx톤, xxxCNY(약 xxx원), 제3국 수출은 약 xxx톤, xxxCNY(약 xxx원)임
- 조사대상물품의 내수판매와 對한국 수출 모두 비관계사인 최종소비자 또는 도매상에게 직접 판매함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경로>



2) 조사 경과

- '21. 1. 2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1.3.9.)
- '21. 2. 24.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1. 3. 9. : 답변기한 연장 통보 (답변기한 : '21.3.23.)
- '21. 3. 23. : 피신청인 답변서 접수
- '21. 5. 18. : 보충질의서 송부
- '21. 5. 27.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 '21. 6. 25. : 피신청인에게 예비판정 결과 통보
- '21. 7. 7. : 피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7. 22. : 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8. 12. : 덤핑사실조사 1차 이해관계인 회의
- '21. 9. 23 ~ 9.24. : 피신청인 실사 검증
- '21. 11. 2. : 덤핑사실조사 2차 이해관계인 회의
- '21. 11. 8. : 피신청인, 2차 이해관계인 회의 관련 의견 제출

3) 답변서 검토

-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검토함

4)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조사질의서⁸⁰⁾에 대한 답변서에서 아래와 같이 필드별 설명 및 산출 근거를 누락하였고, 조정요소 및 원가계산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 이에 따라 보충질의 답변서 및 실사에서 15건에 달하는 자료 수정을 요청하였는 바, 오기 등 단순 오류사항 인지여부와 별개로 답변 자료 전반에 체계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F-2 내수판매 파일 포맷의 필드별 설명 전체 누락⁸¹⁾
 - F-2 내수판매 신용비용 계산방식 오류로 조정 금액 과다 보고⁸²⁾
 - F-2 내수판매 조정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항목에 대해 파일포맷 제출
 - F-2 내수판매 포맷의 반품 후 수량, 반품 후 금액 누락
 - G-3 구성가격 자료 미제출⁸³⁾

80) 조사질의서에는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 예비 및 최종 판정에 심각한 방해로 하는 경우, 무역위는 별도로 입수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있음

81) 예컨대, 반덤핑 질의서 59p에서는 내륙운반비를 보고하고 운송수단, 운반비 계산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배송업체와의 관계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

82) 원답변서에서 매출채권 회전율에 따른 신용비용 계산시 산식 오류로 약 5배 금액이 과다 보고됨

83)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 G-2 주요 투입요소 및 관계사 거래 자료의 생산원가, 구매비중 등 오기
- G-2 제조회사에서 차감한 스크랩 비용 관련 Wasted Fiber 물량, 금액 오류
- 아울러, '21.9.23.~9.24. 실시된 실사에서 내수판매의 등급(GRA)을 보고하지 않아 공정비교를 위해 필요한 답변자료 누락이 확인되었고, 판매의 완전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음
- 한국수출 전체 판매자료는 등급(AA)을 구분하였으나, 내수판매 자료는 등급 구분을 누락하였는 바, 실사 후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AA 등급 미만 내수판매 중 수출판매 CCN이 차지하는 비중은 $xxx\% (=xxx\text{톤}/xxx\text{톤})$ 로써 보고되지 않은 물량이 상당 비중을 차지함⁸⁴⁾
- 답변서상 내수 및 수출판매의 물량, 금액의 합계가 판매의 완전성 검증을 위해 제출한 검사보고서 및 시산표에서 도출된 자료와 정확히 일치 하지 않아 완전성이 검증되지 않음
-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자료를 일부 인정하지 않거나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⁸⁵⁾
- AA 미만 등급의 내수판매 단가를 AA 등급內 CCN별 판매단가의 가중 평균값으로 대체함

동종 제품의 내수 판매가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구성가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자료를 미제출함

- 84) 피신청인이 2차 이해관계인회의 후 의견서('21.11.8)에서 주장한 $xxx\% (=xxx\text{톤}/xxx\text{톤})$ 비율은 수출판매 CCN 가운데 AA 미만 내수판매 비율로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임
- 85)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2차 이해관계인회의 후 최종 덤핑률 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21.11.8)하였음 : ①원가조정시 피신청인 관계사의 COP 적용 및 ②실사 후 제출한 등급자료를 기초로 최종덤핑률을 산정해 줄 것, ③조정요소, 스크랩비용 제외가 미반영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조사실 검토 결과, i)원가조정 관련: 관계사 COP 자료(G-2.2g(COP))가 시산표, 보조원장 등으로부터 도출, 연결(reconciliation)되는 설명이 누락되고 원재료 구매단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비관계사 구매단가, 관계사의 COP, 관계사의 비관계사 판매단가가 모두 완전성을 갖추어 제출되지 않는 등 답변과 증빙이 불충분 하였음. ii)제품등급 관련: 실사는 기 제출된 원 답변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제품의 등급은 덤핑률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답변사항임에도 당초 답변서에서 누락된 점이 실사에서 발견됨 iii)기타 덤핑률 산출과정 등 공개 관련: 원 답변서의 판매, 원가자료 전반에 걸쳐 본문에서 언급한 체계적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최종보고서 '4)자료의 사용(p63~65)'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정요소 등을 반영하지 않은 근거가 충분히 제시됨. 아울러 조사실은 이해관계인회의에서 피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TPA 가격차이, COM 조정방식, SG&A 반영, COP 산출 등을 포함하여 최종 덤핑률 산출과정을 엑셀 파일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열람 요청이 없었음

- 내수판매 조정요소로 보고한 내륙운반비와 신용비용을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함
- 스크랩 비용의 제조원가 차감을 인정하지 아니함
-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관계사 원재료 공급자가 제3의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이 원천자료로 충분히 증빙되지 않고⁸⁶⁾,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비율이 미미⁸⁷⁾하여 정상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거래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 자료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활용하여 정상성을 반영함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 (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1)등급(P = 정상 등급품, N = 급외품), (2)염색여부(U = 미원착, D = 원착), (3)데니어(9,000m 길이의 실 중량 그램 수), (4)필라멘트 수(실을 구성하는 가닥수), (5)광택 (1=Full dull ~ 6=Super Bright)을 CCN의 기준으로 제시함

* CCN 예시: 150데니어/64필라멘트인 제품이 염색되지 않은 정상 등급품으로서 광택이 full dull인 경우 → “PU1500641”로 표기

- 피신청인은 조사 질의서와 함께 제공된 CCN 안내서를 기준으로 개별 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되,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86) 피신청인은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가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MEG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는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TPA 비관계사 판매단가를 증빙하지 못함

87) 관계사 구매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적정 거래 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관계사 구매비중이 TPA xxx%, MEG xxx%로, TPA의 원가 조정은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활용함. WTO 협정 2.1.1.1조에 따르면 공급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생산,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입수가 가능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은 CCN 구성방법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6)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공급국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xxx%이며 이는 5% 이상이므로 전체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톤)

<div style="height: 400px;"></div>

나)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피신청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내수판매한 거래건은 없음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Test)

- 피신청인이 관계사⁸⁸⁾로부터 구매한 원재료(TPA, MEG) 비용이 적정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함
- 이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과 i)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 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iii)관계사인 공급자가 제3의 독립된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을 비교 검토함
-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관계사 원재료 공급자가 제3의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이 원천자료로 충분히 증빙되지 않고⁸⁹⁾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비율이 미미⁹⁰⁾하여 정상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거래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활용함
- xxx(xxx) 및 xxx(xxx)의 답변자료를 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 활용⁹¹⁾함

88) xxx 등 xxx개사임

89) 피신청인은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가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MEG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는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TPA 비관계사 판매단가를 증빙하지 못함

90) 관계사 구매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적정 거래 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관계사 구매비중이 TPA xxx%, MEG xxx%로, TPA의 원가 조정은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활용함. WTO 협정 2.1.1.1조에 따르면 공급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생산,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입수가 가능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음

91) xxx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여개 비관계사로부터 TPA 약 xxx톤, MEG 약 xxx톤을 구매하였으며 비관계사 구매비율은 TPA xxx%, MEG xxx%이고, xxx은 xxx여개 비관계사로부터 TPA 약 xxx톤, MEG 약 xxx톤을 구매하였으며 비관계사 구매비율은 xxx%로 모두 정상적인

- 스크랩 비용으로 산출한 Wasted Fiber의 물량 및 금액 가운데 FDY에 해당하는 물량 및 금액이 CCN별로 잘못 배분되어 스크랩 비용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차감하지 아니함
-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제조원가를 xxx% 상향 조정함
- 판매관리비(SG&A)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영업외 수익 및 비용 항목으로 구성하되 금융비용 가운데 이자수익과,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투자수익은 제외함
-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를 비교함

(단위: 톤)

--	--

시장거래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음. 특히 피신청인은 관계사가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TPA, 거래내역을 충분히 증빙하지 못하여 1차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따라서 xxx 및 xxx의 비관계사 거래가 합리적인 제조원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구성가격(CV) 산정

-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결과 對한국 수출판매가 이루어진 모든 CCN의 내수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성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함

라) 정상가격의 조정

- 피신청인은 내륙운반비, 핸들링 비용, 보험료, 신용비용을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조정요소로 보고하였으나 산출근거 및 증빙 누락과 답변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내수판매의 완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CNY/톤)

--

7)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한국의 수입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對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를 조정함
 -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는 피신청인이 보고한 거래처별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조정함
 - 해상운반비 가운데 음의 비용⁹²⁾이 발생한 거래 건은 0의 값을 적용하여 조정함
 - 포장비는 수출과 내수판매간 소요 자재, 포장방법 등에서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타 조사대상공급자(xxx, xxx)의 답변 등을 토대로 비용 발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므로 포장비용 단가 차이를 조정요소로 적용⁹³⁾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CNY/톤)

--

92) 피신청인은 보충질의 답변서 및 실사 검증에서, 한국과 중국 간 이동 물동량의 불균형 및 중국 선사들간 과도한 경쟁으로 화주에게 오히려 음의 견적서를 제시하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비정형적 거래상황 및 최종 비용부담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93) xxx의 단위당(kg) 수출 및 내수판매 포장비의 차이액인 xxxCNY를 수출판매 조정요소로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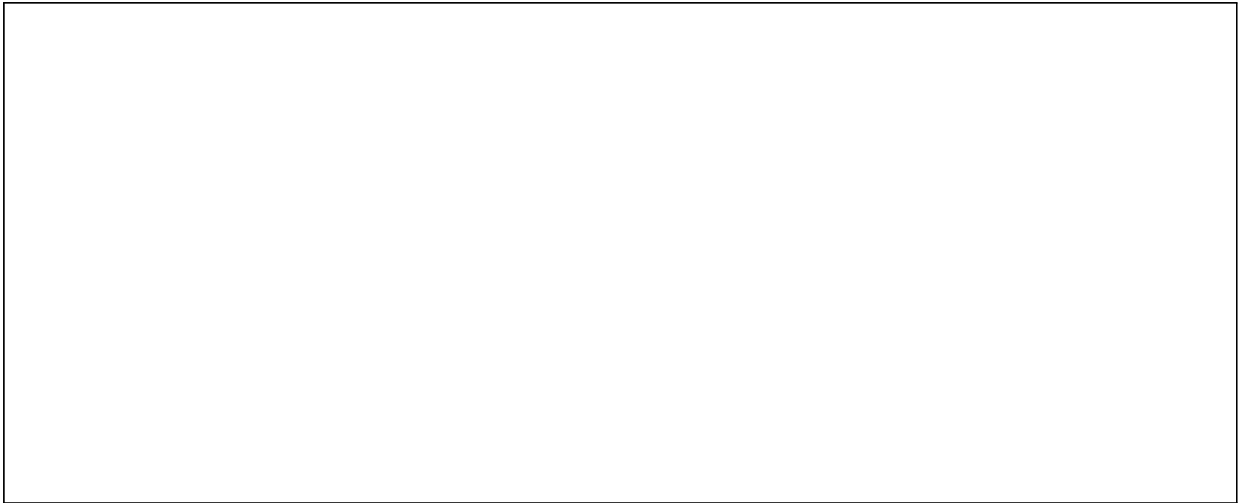
8) 과세가격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함

9) 최종덤핑률

-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피신청인의 최종덤핑률은 6.11%임

(단위 : CNY/톤)



* 덤핑률은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라. 귀왕(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①귀왕(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과 그 관계사인 ②강홍(Jiangsu Ganghong Fiber Co., Ltd.), ③성홍테크(Jiangsu Shenghong Technology Trading Co., Ltd.), ④성홍섬유(Suzhou Shenghong Fiber Co., Ltd.), ⑤종루(iangsu Zhongl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는 장수성에 소재하고 있고, 이스턴 성홍 그룹의 계열사이며 지주사인 xxx(xxx)이 xxx의 최대주주(xxx%)로, xxx은 xxx(xxx%), xxx(xxx%), xxx(xxx%), xxx(xxx%)의 최대주주임
- 생산자인 xxx, xxx, xxx, xxx는 조사대상기간동안 xxx 및 xxx를 통하여 조사대상물품 xxx을 내수판매하였으며, 그룹 내 관계사⁹⁴⁾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구매하는 등 밀접한 생산, 판매, 지분관계에 있어 귀왕 및 그 관계사(이하 “피신청인”)를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생산량은 xxx 약 xxx톤, 강홍 약 xxx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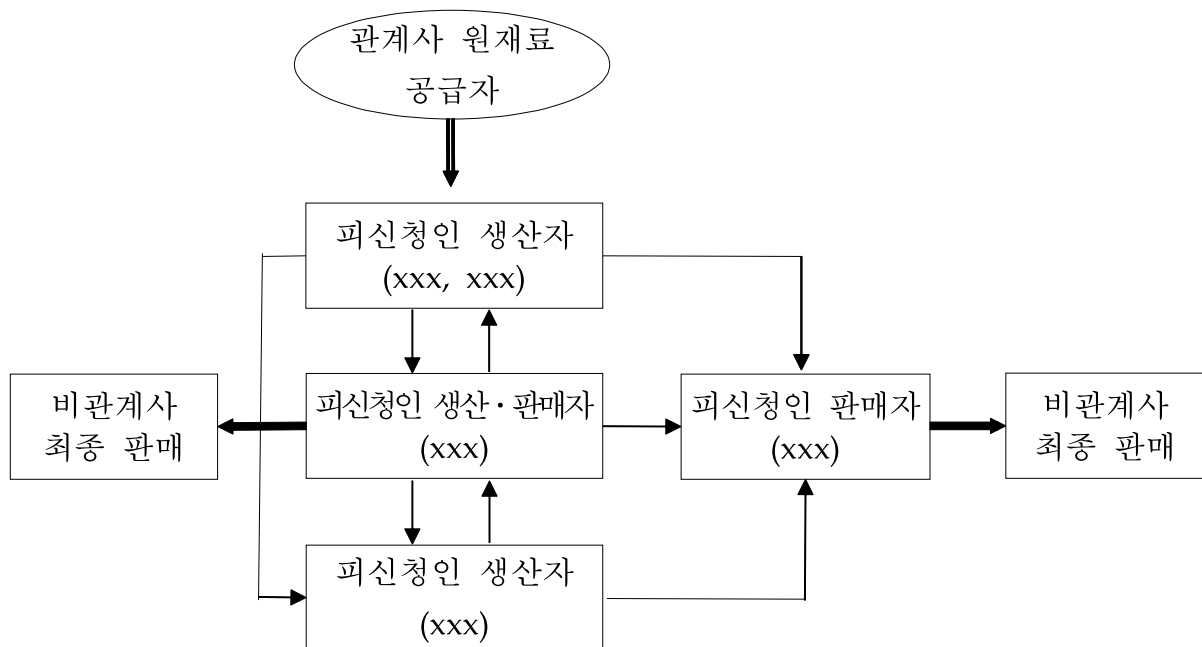
94) xxx 등 xxx개 관계사로부터 TPA 및 MEG를 구매함

xxx 약 xxx톤, xxx 약 xxx톤 등 총 약 xxx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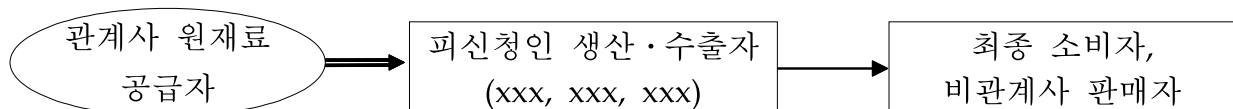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국, 제3국, 공급국 내수시장에 조사대상 물품을 판매하였으며 관계사간 거래를 제외한 내수판매는 약 xxx톤, xxxCNY(약 xxx원)이고 對한국 수출은 약 xxx톤, xxx CNY(약 xxx원), 제3국 수출은 약 xxx톤, xxxCNY(약 xxx원)임
- 조사대상물품의 내수판매는 직접 또는 관계사를 통하여 비관계사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對한국 수출은 관계사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 비관계사 판매자에게 판매함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경로>

· 내수판매



· 수출판매



2) 조사 경과

- '21. 1. 2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1.3.9.)
- '21. 2. 24.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1. 3. 9. : 답변기한 연장 통보 (답변기한 : '21.3.23.)
- '21. 3. 23. : 피신청인 답변서 접수
- '21. 5. 18. : 보충질의서 송부
- '21. 5. 27.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 '21. 6. 25. : 피신청인에게 예비판정 결과 통보
- '21. 7. 7. : 피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7. 22. : 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8. 12. : 덤핑사실조사 1차 이해관계인 회의
- '21. 9. 13 ~ 9. 14. : 피신청인 실사 검증 실시
- '21. 11. 2. : 덤핑사실조사 2차 이해관계인 회의

3) 답변서 검토

-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조사대상 물품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검토함

4)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정상가격,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 다만, 피신청인은 보충질의 답변서('21.5.31) 및 이해관계인회의('21.8.12)에서 기 제출된 답변자료의 일부 CCN에 일반 FDY와 구별되는 특수사제품(DT 및 복합 FDY)이 함께 포함되어 별도의 CCN을 구성하여 수정된 답변자료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사개시 이후 4주간 CCN 구성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CCN의 변경에 따른 수정된 원가 및 판매 자료는 새로운 답변서와 다름없어 이를 그대로 수용할 시 답변서 제출기한(연장 포함 54일)을 규정한 협정 제6.1.1조 등이 무력화 될 수 있음
- 아울러 해당 CCN은 수출 및 내수 시장에 모두 판매되어 공정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 제출된 원답변서의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관계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비중에 따라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단가 및 관계사가 제3의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단가를 기초로 정상 시장가격을 반영함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1)등급(P = 정상등급품, N = 급외품), (2)염색여부(U = 미원착, D = 원착), (3)데니어(9,000m 길이의 실 중량 그램 수), (4)필라멘트 수(실을 구성하는 가닥수), (5)광택(1=Full dull ~ 6=Super Bright)을 CCN의 기준으로 제시함
- * CCN 예시: 150데니어/64필라멘트인 제품이 염색되지 않은 정상 등급품으로서 광택이 full dull인 경우 → "PU1500641"로 표기
- 피신청인은 조사 질의서와 함께 제공된 CCN 안내서를 기준으로 개별 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되,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6)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공급국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xxx%이며 이는 5% 이상이므로 전체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톤)

--

나)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재판매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거래건에 대해서는 최초로 비
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정상가격산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함
- 피신청인 생산자(xxx, xxx, xxx, xxx)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xxx톤
(총 판매량의 xxx%)을 특수관계자인 xxx에게 판매하였는바 xxx가
최초로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에 이용함

- 관계사간 내부거래한 비중이 5%를 초과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소비용으로 판매한 거래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CCN 가중평균 판매단가가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가중평균 판매단가의 98%~102%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건을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함
- 특수관계자 xxx, xxx에게 소비용으로 판매한 CCN 가중평균 가격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가중평균 가격 대비 각 xxx%, xxx%로 해당 거래건을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함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Test)

-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를 비교함
- 피신청인이 관계사⁹⁵⁾로부터 구매한 원재료(TPA, MEG) 비용이 적정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함
- 이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과 i)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 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i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가 제3의 독립된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을 비교 검토함
- 피신청인 관계사인 xxx 등 xxx개사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전체 인보이스 내역과 샘플 증빙을 제출함에 따라 관계사 공급자가 제3의 비관계사에 판매한 가격을 적정 시장가격으로 적용하여 정상성을 반영함
-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xxx, xxx, xxx의 제조원가를 각 xxx%, xxx%, xxx% 상향 조정함
- 판매관리비(SG&A)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영업외 수익 및 비용 항목으로 구성하되 금융비용 가운데 이자수익 및 조사대상물품의

95) xxx 등 xxx개사

생산, 판매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투자수익은 제외하였으며, 원답변서에서 자료가 누락된 성홍테크의 SG&A와 직접판매비의 내륙운송비와 내륙운송보험료를 가산함

- 원가미만으로 판매한 물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적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톤)

--

다) 구성가격 산정

-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결과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 구성가격을 적용함
- 구성가격은 對한국 수출물품의 제조원가에 공급국의 내수판매에서 발생한 판매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값이며 해당 CCN에 대한 제조원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유사 모델 CCN의 제조원가에 피신청인이 정상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함

(단위: CNY/톤)

--

라)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 신용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는 실제 발생한 내륙운임을 물량으로 배분하여 조정함
- 신용비용은 거래매출 건별 입금일과 신용일의 차이에 연평균 단기차입금 이자율(xxx%) 적용하여 조정하였음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CNY/톤)



7)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한국의 수입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보험료는 거래처별 실제 발생한 비용을 물량에 배분하여 조정함
 - 해상운반비 가운데 음의 비용⁹⁶⁾이 발생한 거래 건은 0의 값을 적용하여

96) 피신청인은 보충질의 답변서 및 실사 검증에서, 한국과 중국 간 이동 물동량의 불균형 및 중국 선사들간 과도한 경쟁으로 화주에게 오히려 음의 건적서를 제시하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비정형적 거래상황 및 최종 비용부담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조정함

- 신용비용은 거래매출 건별 입금일과 신용일의 차이에 연평균 단기차입금 이자율(xxx%)을 적용하여 조정함
- 은행수수료는 실제 발생한 수수료를 송장금액 기준으로 배분하여 조정함
- 커미션은 거래건 별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CNY/톤)

--

8) 과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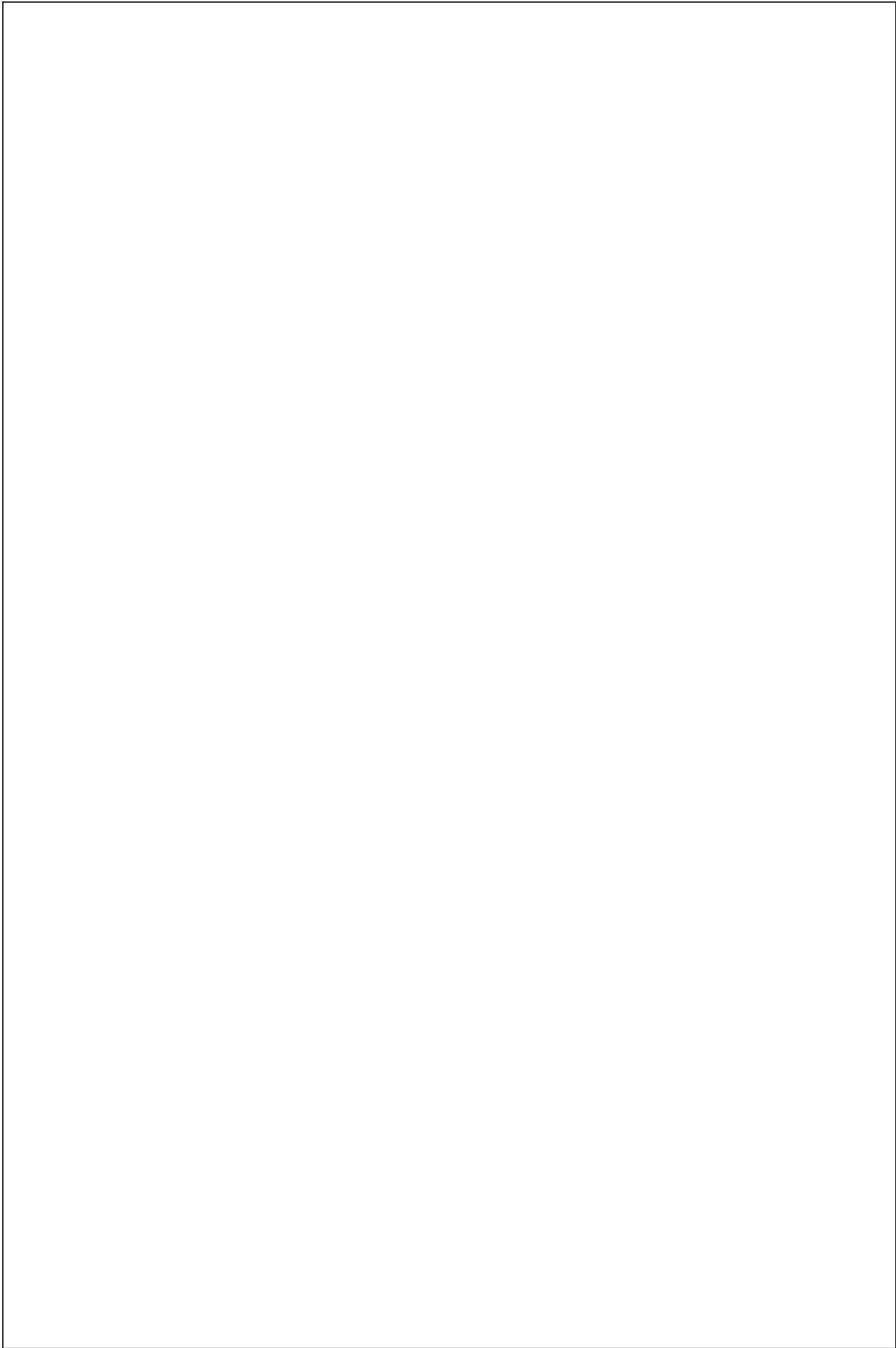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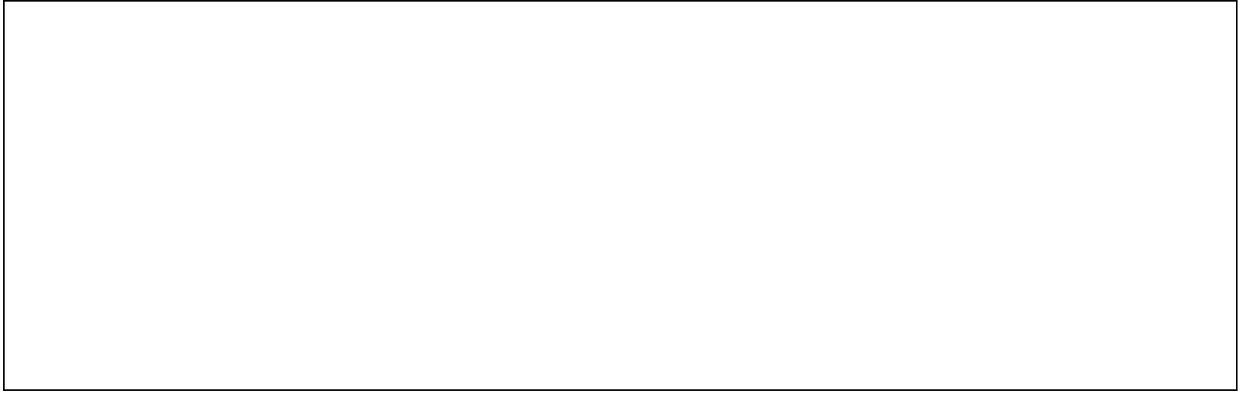
9) 최종덤핑률

-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피신청인의 최종덤핑률은 10.91%임

(단위 : CNY/톤)

--





* 덤핑률은 모델별 덤핑률을 대 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마. 형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①형리와 그 관계사인 ②더리(Jiangsu Deli Chemical Fiber Co., Ltd.), ③헝커(Jiangsu Hengke Advanced Materials Co., Ltd)는 저장성에 소재하고 있고 형리의 최대 주주는 xxx(xxx)이며, xxx는 xxx(xxx%)와 xxx(xxx%)의 최대주주임
- 형리, 더리, 헝커는 형리 그룹의 자회사들로 xxx 등 관계사⁹⁷⁾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의 주요 원재료를 구매하였으며, 상호 지분관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형리 및 그 관계사(이하 “피신청인”)를 단일 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생산량은 xxx 약 xxx톤, xxx 약 xxx톤, xxx 약 xxx톤 등 총 약 xxx톤임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對한국, 제3국, 공급국 내수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으며 내수판매는 약 xxx톤, xxxCNY(약 xxx원)이고 대 한국 수출은 xxx톤, xxxCNY(약 xxx원), 제3국 수출은 약 xxx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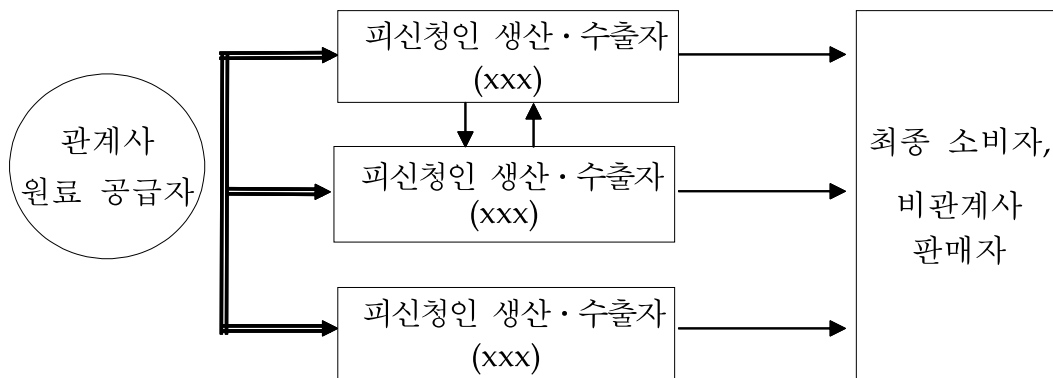
97) xxx. 등 xxx개 관계사

xxxCNY(약 xxx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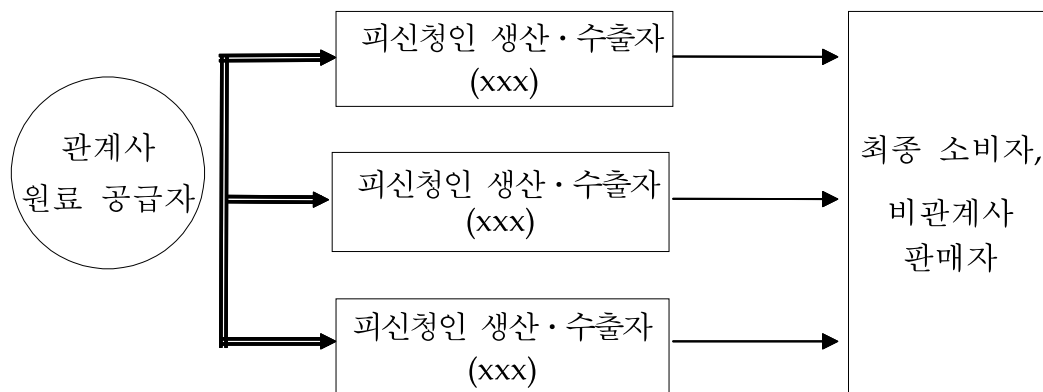
- 조사대상물품의 내수판매는 대부분 직접 비관계사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약 xxx%는 피신청인 관계사간 내부거래하였고 對한국 수출은 직접 비관계사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흐름도>

· 내수판매



· 수출판매



2) 조사 경과

- '21. 1. 2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1.3.9.)

- '21. 2. 24.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1. 3. 9. : 답변기한 연장 통보 (답변기한 : '21.3.23.)
- '21. 3. 22. : 답변기한 추가 연장 통보 (답변기한 : '21.3.30.)
- '21. 3. 30. : 피신청인 답변서 접수
- '21. 5. 18. : 보충질의서 송부
- '21. 5. 27.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 '21. 6. 25. : 피신청인에게 예비판정 결과 통보
- '21. 7. 7. : 피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7. 22. : 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8. 12. : 덤핑사실조사 1차 이해관계인 회의
- '21. 9. 29. ~ 9 .30. : 피신청인 실사 검증 실시
- '21. 11. 2. : 덤핑사실조사 2차 이해관계인 회의

3) 답변서 검토

-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조사대상 물품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검토함

4)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정상가격,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 다만,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관계사 원재료 공급자가 제3의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이 원천자료로

충분히 증빙되지 않고⁹⁸⁾,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비율이 미미⁹⁹⁾하여 그 거래 단가를 정상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정 시장거래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활용함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1)등급(P = 정상등급품, N = 급외품), (2)염색여부(U = 미원착, D = 원착), (3)데니어(9,000m 길이의 실 중량 그램 수), (4)필라멘트 수(실을 구성하는 가닥수), (5)광택(1=Full dull ~ 6=Super Bright)을 CCN의 기준으로 제시함

* CCN 예시: 150데니어/64필라멘트인 제품이 염색되지 않은 정상 등급품으로서 광택이 full dull인 경우 → “PU1500641”로 표기

- 피신청인은 조사 질의서와 함께 제공된 CCN 안내서를 기준으로 개별 거래 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되,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피신청인은 CCN 구성방법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6) 정상가격

98) 피신청인은 관계사 원재료 공급자가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에 대한 증빙으로 관계사 공급자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하기 불가능한바 적정 시장거래가격으로 적용하지 않음

99) 관계사 구매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적정 거래 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관계사 구매비중이 xxx, xxx, xxx 각각 TPA xxx%, xxx%, xxx%, MEG xxx%, xxx%, xxx%로, TPA의 원가 조정은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활용함. WTO 협정 2.1.1.1조에 따르면 공급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생산,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입수가 가능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음

가)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공급국 총 내수 판매량은 對한국 수출량의 xxx%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톤)

--

나)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재판매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거래건은 없음
- 피신청인이 관계사간 내부거래한 비중이 5%를 초과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소비목적으로 판매한 거래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CCN 가중평균 판매단가가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가중평균 판매단가의 98%~102%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가 있어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 피신청인간, 피신청인과 다른 관계사(편직물 제조업체 등)간 거래에서 xxx, xxx 및 xxx(xxx)등 xxx개 관계사에게 판매한 가중평균 가격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가중평균 가격 대비 $\pm 2\%$ 범위를 벗어나 해당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함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Test)

-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를 비교함
- 피신청인이 관계사¹⁰⁰⁾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비용이 적정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함
 - 이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과 i)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 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i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가 제3의 독립된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을 비교 검토함
 - 관계사인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가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이 원천자료로 충분히 증빙되지 않고¹⁰¹⁾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비율이 미미¹⁰²⁾하여 정상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거래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자료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활용하여 정상성을 반영함
 - xxx(xxx) 및 xxx(xxx)의 답변자료를 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 활용¹⁰³⁾하였음

100) xxx 등 xxx개사

101) 피신청인은 관계사 원재료 공급자가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을 제시하고 그 증빙자료로 관계사 공급자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하기 불가능한바 적정 시장거래가격으로 적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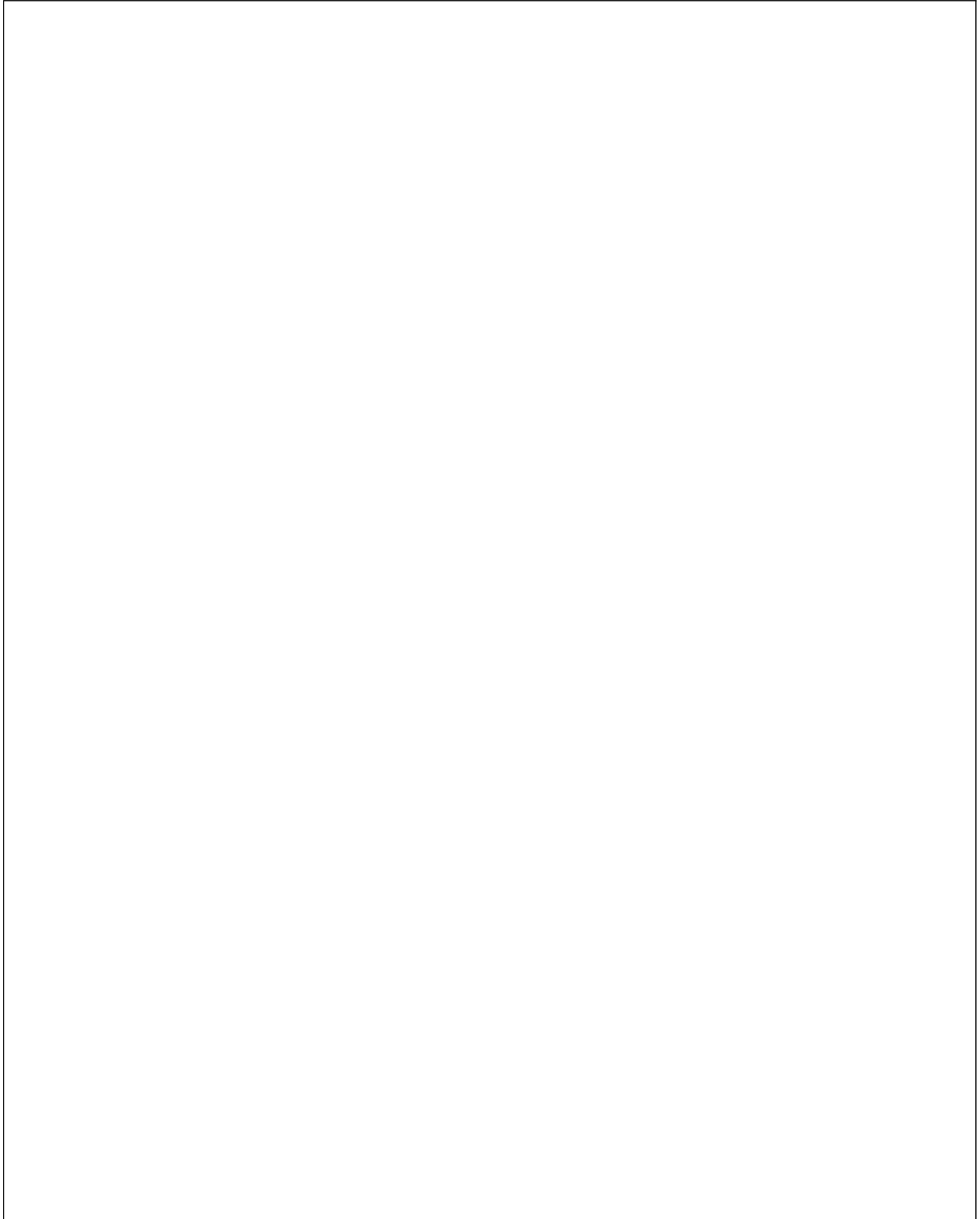
102) 관계사 구매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적정 거래 가격으로 활용하지 않았는바 xxx, xxx, xxx가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TPA 원가 조정은 적정 시장거래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타 조사대상자의 답변자료를 활용함

<주요 원재료의 관계사 구매비율>

원재료	xxx	xxx	xxx
TPA	xxx%	xxx%	xxx%
MEG	xxx%	xxx%	xxx%

- (단위: 톤)

103) xxx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여개 비관계사로부터 TPA 약 xxx톤, MEG 약 xxx톤을 구매하였으며 비관계사 구매비율은 TPA xxx%, MEG %이고, xxx은 xxx여개 비관계사로부터 TPA 약 xxx톤, MEG 약 xxx톤을 구매하였으며 관계사 구매비율은 모두 xxx%로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음. 특히 피신청인은 관계사가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TPA 거래내역을 충분히 증빙하지 못하여 1차 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음. 따라서 xxx 및 xxx의 비관계사 거래가 합리적인 제조원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구성가격 산정

-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결과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1개 CCN에 대해 구성가격을 적용함

- 구성가격은 對한국 수출물품의 제조원가에 공급국의 내수판매에서 발생한 판매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것임

(단위: CNY/톤)

--

라)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하역비,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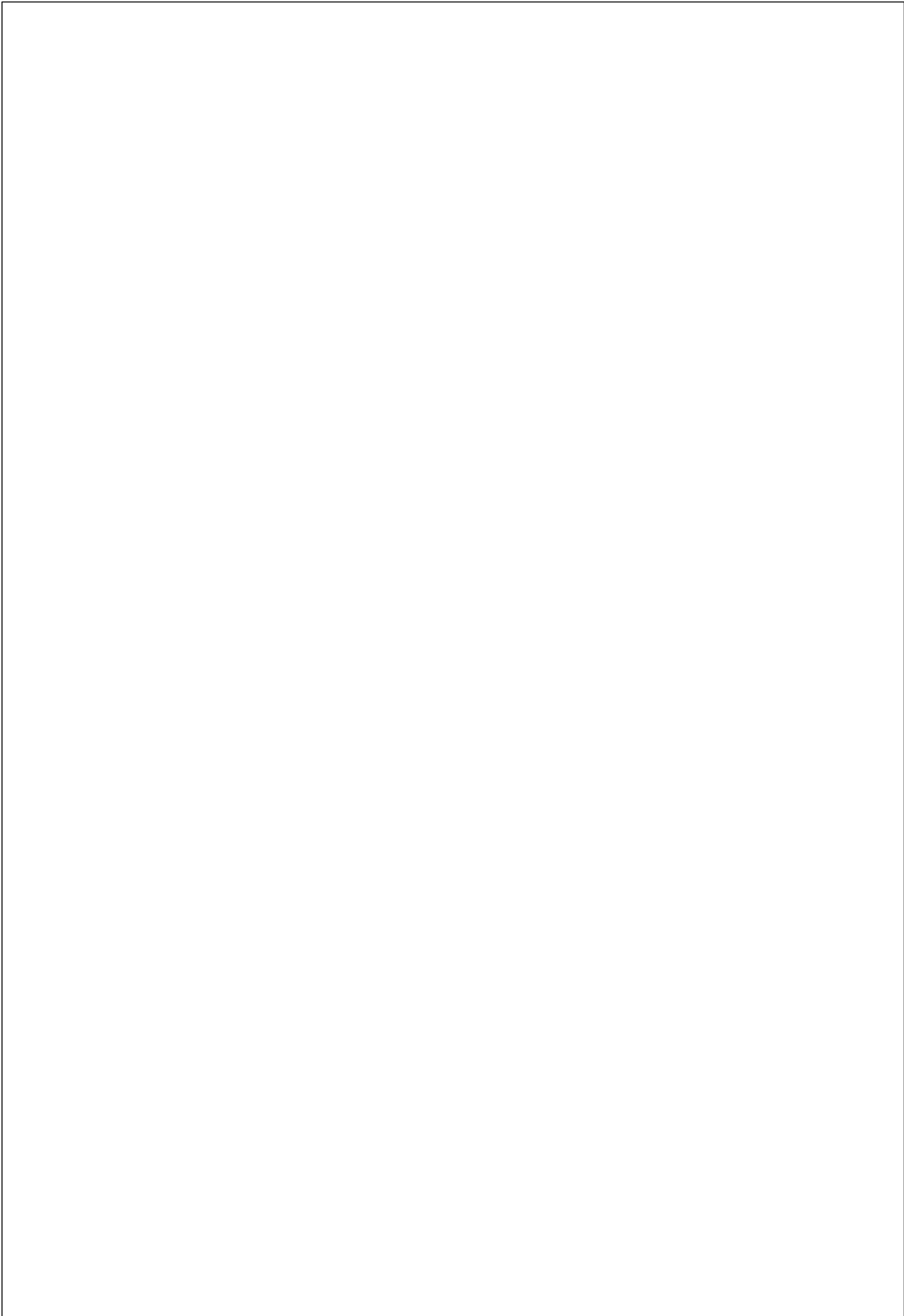
- 내륙운반비, 포장비는 전체 발생된 금액을 물량기준으로 배분하여 조정하였음
- 신용비용은 평균 단기차입금 이자율¹⁰⁴⁾에 거래건 별 신용기간 및 순 송장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하였음
- 다만, 피신청인은 하역작업을 위탁의뢰가 아닌, 자체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어 하역 노무인력과 지게차 운행인력의 임금을 하역비로 보고 하였으나, 하역 노무인력은 수출과 내수의 출하 및 제품과 원재료 입출고 작업에 모두에 투입될 수 있으므로 내수판매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지게차 운행인력의 인건비만을 물량으로 배분하여 반영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CNY/톤)

--

104) 적용된 단기차입금 이자율은 헝리 xxx%, 헝커 xxx%, 더리 xxx%임





7)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한국의 수입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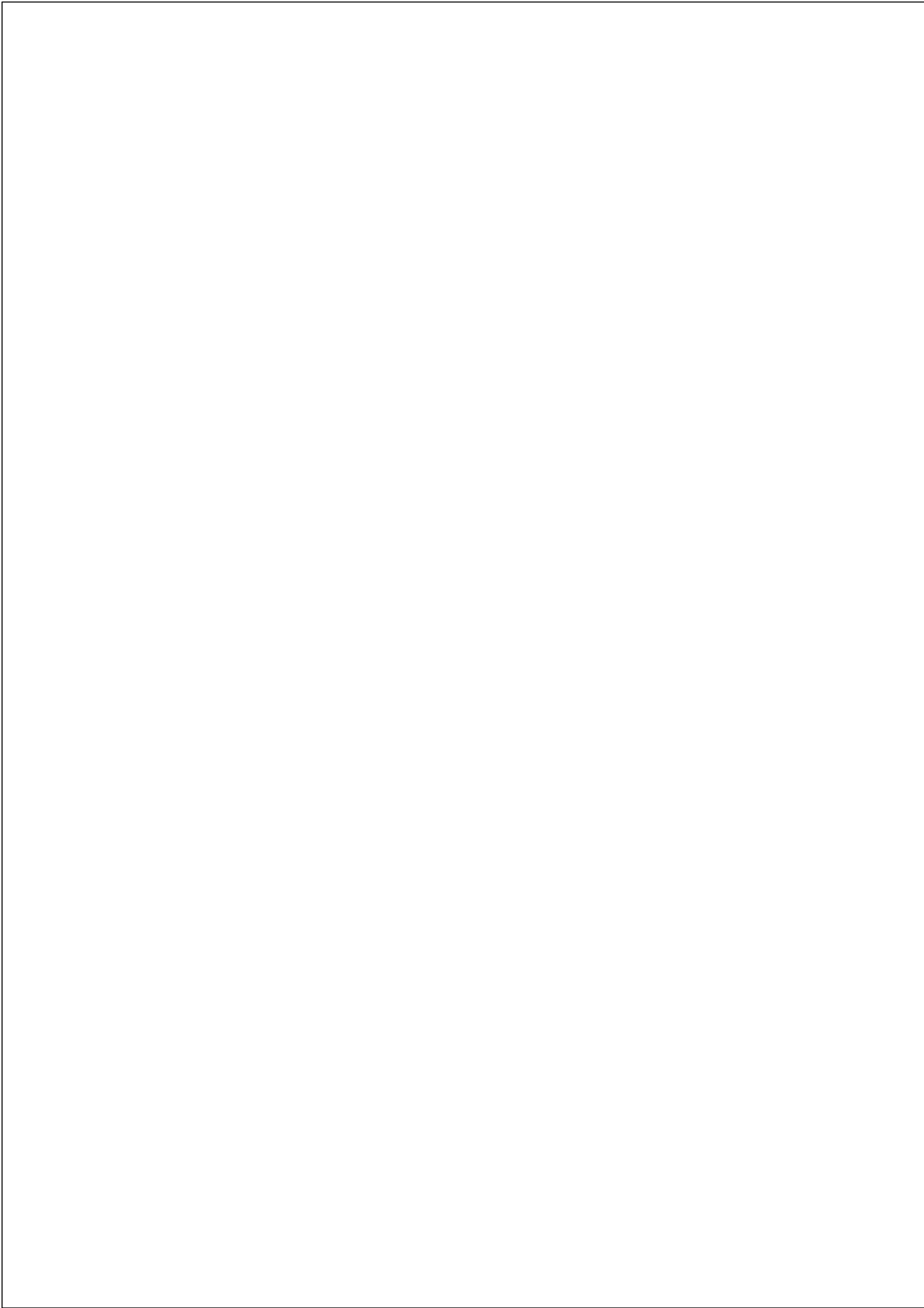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보험료, 은행 수수료, 커미션은 거래처별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조정함
- 해상운반비는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조정하되, 음의 비용이 발생한 거래건은 0의 값을 적용하여 보고함으로써 이를 반영함
- 신용비용은 대금지급일에서 송장일자를 차감한 신용기간에 평균 단기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포장비는 수출과 내수판매간 소요 자재, 포장방법 등에서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타 조사대상공급자(xxx, xxx)의 답변 등을 토대로 비용 발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므로 포장비용 단가 차이를 조정요소로 적용¹⁰⁵⁾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CNY/톤)

105) xxx 및 xxx이 보충질의에서 답변한 평균 포장비용 단가 대비 수출용 포장비용 단가 비율인 xxx%를 수출 포장비용으로 적용함



8) 과세가격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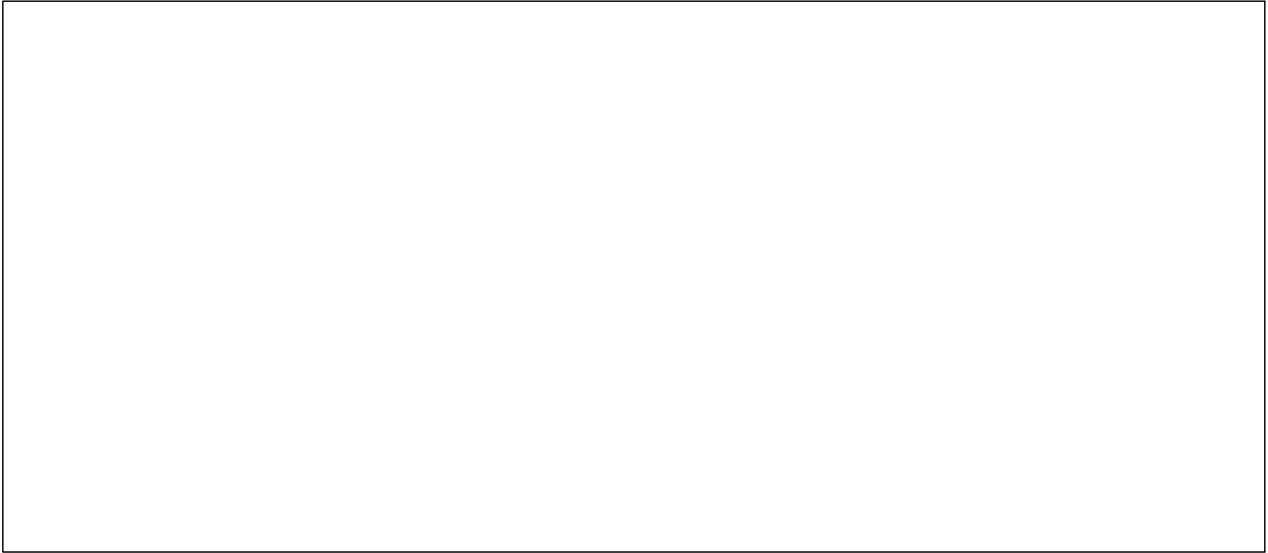
9) 최종덤핑률

-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피신청인의 최종덤핑률은 5.00%임

(단위 : CNY/톤)

* 덤핑률은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4. 덤핑률 산정 결과



- 조사대상공급자(selected respondent)로 선정되어 전체 답변서를 제출한 '형이 및 그 관계사', '신평밍 및 그 관계사', '티앤성', '귀왕 및 그 관계사', '형리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각각 3.95%, 5.79%, 6.11%, 10.91%, 5.00%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 그 밖의 공급자¹⁰⁶⁾에 대한 덤핑률은 'Ⅲ. 국내산업의 피해', 및 'Ⅳ. 덤핑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후, 'Ⅴ. 최종 덤핑 방지관세 부과수준'의 '1. 최종 덤핑률¹⁰⁷⁾'에서 산정함

106)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함

107) 본보고서 p.164

Ⅲ. 국내산업의 피해

1.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이 발전(확립)중인 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전중인 산업이라고 인정되면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계획 및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를 비교하여 검토함

관련 법규

-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IV.5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판단 근거)
 -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에 관한 조사·판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생산자가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으로 보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당해 산업의 실질적 지연 여부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판단함
 - 사업계획 또는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
 -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의 비교
 - 국내산업의 안정성 여부는 국내생산물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생산의 기간·생산의 성격·국내 생산규모 등을 고려한 생산설비의 안정적 가동 여부, 합리적인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확보 여부 등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은 '60년대 후반이후 '70년대에 형성¹⁰⁸⁾ 되기 시작하여 '80년대 및 '90년대에는 세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시장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 인도 등 후발국에 밀려 설비와 생산이 감소하는 성숙기 산업으로 진입하였음¹⁰⁹⁾

- 따라서,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없음

108) 한국화학섬유협회 「화섬편람 2020」에 따르면, '68.3월 대한화섬(주)가 한국최초 폴리에스테르 공장을 준공하였고, '69.3월 한국폴리에스테르섬유공업협회가 설립되었음

109) 「폴리에스테르(강력사, FDY) 산업경쟁력 조사」('09.10월, 무역위원회 & 한국화학협회) 참조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 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 WTO반덤핑협정 제3.1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동 수입품이 이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 WTO반덤핑협정 제3.2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의 저가판매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WTO반덤핑협정 제3.4조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지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가. 답변서 제출 국내생산자

- 조사실이 예비조사('21.1.27.~'21.6.25.) 및 본조사('21.6.26.~'21.11.25. 예정) 기간 중 국내생산자 6개사 전부에 대해 조사질의서를 발송한데 대해, xxx사, xxx사, xxx사 및 xxx사의 총 4개사가 '국내생산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하였음
- 조사실은 I.5.나.3)*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실은 산업피해지표를 제출한 국내생산자 4개사의 '19년도 기준 동종물품 생산량의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50%초과)을 점하고 있어 이들 4개사의 산업피해지표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xxx사, xxx사, xxx사 및 xxx사의 4개사가 제출한 자료를 이용함

* <참조> I.5.나.3)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국내생산자와 산업피해 분석'

나.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 : '물량' 및 '가격' 효과

1)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 검토할 사항 >

-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제3.2조 중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가) 덩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 덩핑물품의 수입물량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820톤으로 18.0% 감소하였으나, '19년에는 1,303톤으로 전년대비 58.9% 증가하였고, '20년 상반기에는 609톤으로 전년동기대비 변동폭($\Delta 0.8\%$)이 미미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17년에서 '20년 상반기까지이며, 이하 같음)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6.8% 증가하였음

< 덩핑물품 수입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110)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수입	물량	<u>1,000</u>	<u>820</u>	△18.0	<u>1,303</u>	58.9	<u>609</u>	△0.8	6.8
	금액	<u>10,000</u>	<u>8,679</u>	△13.2	<u>12,316</u>	41.9	<u>5,062</u>	△17.0	0.4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18년도에 덩핑물품 수입이 전년대비 18.0% 감소한 것은 다음과 같은 덩핑물품의 공급측 요인과 덩핑물품에 대한 수요측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주장함¹¹¹⁾

- 먼저, '18년도 중 원유가격 상승¹¹²⁾에 따른 TPA 및 MEG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미·중 무역마찰의 본격화로 인한 위안화 절상¹¹³⁾ 및 덩핑 물품 수출가격 상승, 국제 원면가격 상승¹¹⁴⁾에 따른 대체제인 화학섬유에 대한 수요증가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한 덩핑물품의 가격상승에 따라 덩핑물품에 대한 국내 수입수요가 감소하였음

* (참조) IV.2.라.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 110) 연평균 증감률은 '17~'20년간을 대상으로 하되, '20년 연간수치는 '20년 상반기 수치의 2배수를 적용하였으며, 이후 동 보고서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다만, 가격, 재고 등 2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 수치를 그대로 적용함
- 111) 미도교역(주)의 국내수입자 현지실사 답변서('21.7.19. 제출)
- 112) 미도교역(주)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17.6월 U\$45, '18.1월 U\$63, '18.10월 U\$70이상으로 상승하였다고 함('21.7.19. 제출 답변서). WTI 국제 원유가격은 '17.6월 U\$45.20, '18.1월 U\$63.66, '18.10월 U\$70.76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국제유가동향')
- 113) 위안화/달러 환율추이(자료: 하나은행) : '17.4말 0.1449, '17.7말 0.1482, '17.12말 0.1527, '18.1말 0.1577, '18.3말 0.1591, '18.5말 0.1556, '18.6말 0.1510, '18.7말 0.1463, '18.12말 0.1456
- 114) 미도교역(주)가 근거자료로 제출한 국제섬유신문 기사('18.6.11.일자, 기사 제목 "원면값 파동 수요업체 '비상'")에 따르면, 국제 원면가격은 미국 원면 주산지인 텍사스 주의 가뭄, 중국 원면 주산지인 신장지역의 홍수와 냉해 등으로 인해 '18.5월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파운드당 96센트(7월물)까지 상승하였다고 보도함

- 한편, 덩핑물품의 수요자인 국내 니트, 화섬 등 후공정 직물업체는 구조적인 고임금과 더불어 '18년도 중 원화 강세¹¹⁵⁾,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따른 염료가격 상승¹¹⁶⁾, 국내·외 FDY 원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인하여 직물에 대한 수출오더 확보가 부진함에 따라 수요측면에서도 덩핑물품에 대한 국내 수요량이 감소하였음
- 따라서, '18년도의 경우 국내소비 감소, 공급측 요인 등의 영향으로 덩핑물품의 수입물량이 '17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19년 및 '20년 상반기에는 증가세를 보였고,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도 덩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연평균 6.8%)하였음

나) 덩핑물품 수입의 상대적 증가 여부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의 국내소비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0% 감소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덩핑물품과 기타국산 물품을 포함한 총수입 물량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나,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0.6% 감소하였음
- 덩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국내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17년 xxx%에서 '18년 xxx%로 전년대비 2.8%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나,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0%p, 5.3%p 상승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14.2%p 상승하였음
- 반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17년 xxx%에서 '18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덩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 확대에 의해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크게 하락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10.9%p 하락하였음
- 또한,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3.3%p 하락하였음

115) 원/달러 환율추이(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월평균환율) : '17.9월 1,132.93, '17.12월 1,085.95, '18.1월 1,066.54, '18.4월 1,068.05, '18.6월 1,095.96, '18.8월 1,120.96, '18.10월 1,132.78

116) 미도교역(주)가 근거자료로 제출한 국제섬유신문 기사('18.6.18.일자, 기사 제목 "염료 파동 염색업체 '비상'")에 따르면, 세계 염료 생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 배출업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염료 생산이 급감하고 있고, 이에 염료가격 폭등 및 품귀현상, 염색 가공료 인상 등 연쇄반응으로 국내 섬유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보도함

< 국내소비 및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변화율))

구분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¹⁷⁾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u>1,000</u>	<u>879</u>	△12.1	<u>1,052</u>	19.7	<u>457</u>	△10.0	△3.0
	금액	<u>10,000</u>	<u>9,576</u>	△4.2	<u>10,545</u>	10.1	<u>3,967</u>	△25.4	△7.4
총수입 (b=c+d)	물량	<u>1,000</u>	<u>816</u>	△18.4	<u>1,204</u>	47.6	<u>556</u>	△3.4	3.6
	금액	<u>10,000</u>	<u>8,683</u>	△13.2	<u>11,467</u>	32.1	<u>4,626</u>	△20.2	△2.6
덤핑물품 수입(c)	물량	<u>1,000</u>	<u>820</u>	△18.0	<u>1,303</u>	58.9	<u>609</u>	△0.8	6.8
	금액	<u>10,000</u>	<u>8,679</u>	△13.2	<u>12,316</u>	41.9	<u>5,062</u>	△17.0	0.4
기타국산 수입(d)	물량	<u>1,000</u>	<u>789</u>	△21.1	<u>630</u>	△20.1	<u>255</u>	△28.6	△20.1
	금액	<u>10,000</u>	<u>8,703</u>	△13.0	<u>7,791</u>	△10.5	<u>2,735</u>	△39.0	△18.2
동종물품 내수판매(e)	물량	<u>1,000</u>	<u>943</u>	△5.7	<u>901</u>	△4.4	<u>357</u>	△18.7	△10.6
	금액	<u>10,000</u>	<u>10,545</u>	5.4	<u>9,545</u>	△9.5	<u>3,252</u>	△32.2	△13.4
시장 점유율	덤핑물품(c/a)			(△2.8%p)		(13.0%p)		(5.3%p)	(14.2%p)
	기타국산(d/a)			(△0.8%p)		(△2.2%p)		(△1.1%p)	(△3.3%p)
	동종물품(e/a)			(3.6%p)		(△10.8%p)		(△4.2%p)	(△10.9%p)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국내시장점유율 현황 그래프 >

(단위 : %)

<비공개>

117) 본 보고서에서 시장점유율, 가동률, 영업이익률, 투자수익률, 비중 등 관련 지표의 연평균증감률과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간 중('17~20년 상반기) 증감률 변동폭(변화율, %p)과 연도별 증감률 변동폭(변화율, %p)을 각각 적용하였으며, 이후 본 보고서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 검토할 사항 >

- 덤핑물품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판매 되었는지 또는 덤핑물품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 또는 가격인상 억제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 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제3.2조 중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의 저가판매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가)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10,580천원으로 5.8% 상승하였으나, '19년 9,450천원, '20년 상반기 8,31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7%, 16.4% 하락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0% 하락하였음
- 이에 비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11,187천원으로 11.9% 상승하였으나, '19년 10,598천원, '20년 상반기 9,10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3%, 16.6%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1% 하락하였음

- '17년에는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 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18년 이후 조사대상기간 중에는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음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연도별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한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a)	10,000	10,580	5.8	9,450	△10.7	8,317	△16.4	△6.0
동종물품 판매가격(b)	10,000	11,187	11.9	10,598	△5.3	9,102	△16.6	△3.1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 덤핑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2.1%)

<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그래프 >

(단위 : 천원/톤)

<비공개>

나)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1)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여부

- '17년에는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18년 이후 조사대상기간 중에는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음

-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 대비 '17년 xxx% 수준에서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 수준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xxx%p 하락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 대비 덤핑물품의 가격차이도 '17년 xxx천원, '18년 △xxx천원, '19년 △xxx천원, '20년 상반기 △xxx천원으로서 '18년 이후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기조를 보여주고 있음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변화율))

구분\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0</u>	<u>10,580</u>	5.8	<u>9,450</u>	△10.7	<u>8,317</u>	△16.4	△6.0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0</u>	<u>11,187</u>	11.9	<u>10,598</u>	△5.3	<u>9,102</u>	△16.6	△3.1
가격차이(a-b)		△		△		△		-
가격비율(a/b)								()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2)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17년에는 국내 동종물품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18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 판매되었음
-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연평균 6.0% 하락한데 대해 국내 동종물품은 연평균 3.1% 하락하였음
- '18년이후 '20년 상반기 기간 중에는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내수 판매가격의 xxx~xxx%*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산업은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에 영향을 받아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임

* (참조) III.2.다.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국내 동종물품과 덤핑물품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율
동종물품판매가격(a)	10,000	11,187 11.9	10,598 △5.3	9,102 △16.6	△3.1
제조원가(b)	10,000	11,027 10.3	10,047 △8.9	9,140 △11.9	△3.0
제조원가비중(b/a)					()
내수무분 영업이익	△	△ 적자감소	△ 적자감소	△ 적자전환	적자치속
덤핑물품 판매가격	10,000	10,580 5.8	9,450 △10.7	8,317 △16.4	△6.0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3)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실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 보다 '17년 xxx 천원, '18년 xxx천원, '19년 xxx천원, '20년 상반기 xxx천원 낮았는바, 조사대상기간 중 상당한 가격차이가 지속되는 추세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 대비 '17년 xxx%,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었음

< 국내 동종물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	10,000	10,580 5.8	9,450 △10.7	8,317 △16.4	△6.0
동종물품 적정판매가격(a)	10,000	10,966 9.7	10,140 △7.5	9,288 △10.4	△2.4
동종물품 실제판매가격(b)	10,000	11,187 11.9	10,598 △5.3	9,102 △16.6	△3.1
가격차이 (a-b)					-
가격비율 (b/a)					()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주1) 동종물품 적정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비) ÷ (1 - 적정영업이익률¹¹⁸⁾)

118) 신청인측은 조사대상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은행 경제 통계 기업경영분석」 “화학섬유(C205)” 업종의 ‘16년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6.05%를 적정영업 이익률로 제출한바, 이를 적용함(조사신청서 및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5.14 제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와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산업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대부분 저가로 판매되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등락 방향이 일치하였으며,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이 적정판매가격의 xxx~xxx%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판매가격의 xxx~xxx%*)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업적자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가격이 상승 억제되도록 덤핑물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특히,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준이고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국내시장의 가격결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생산자가 제조원가(판매가격의 xxx~xxx%*)를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임

* (참조) III.2.다.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피해구제수준 산정 시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 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생산자의 이익률',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자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 등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음

다.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의 경영상태에 관한 지표에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피해지표 : 생산량감소 · 가동률하락 · 재고증가 · 판매량감소 · 시장점유율축소 · 가격하락 · 이윤감소 · 투자수익감소 · 고용감소 · 임금하락 · 자본조달애로 · 투자축소 등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 · 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4. 국내산업의 생산량 · 가동률 · 재고 · 판매량 · 시장점유율 ·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 · 이윤 · 생산성 · 투자수익 · 현금수지 · 고용 · 임금 · 성장 · 자본조달 · 투자능력
- WTO반덤핑협정 제3.4조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지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 생산량 및 가동률

-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3% 증가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연간 약 xxx톤 수준을 유지하였음
-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989톤, '19년 963톤, '20년 상반기 332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 2.6%, 31.0% 감소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7% 감소하였음
 - 신청인측은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10.6%)하고, 수출판매량도 대체로 감소('18년 0.6%증가, 연평균 △13.5%)함에 따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연평균 △12.7%)하였지만, 수출판매량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상쇄하기 위한 내수판매량이 확대되었다면 생산량은 증가하였을 것인바, 덤핑물품 수입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내수판매량이 충분히 증가되지 못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함¹¹⁹⁾

* (참조) IV.2.다. ‘수출실적’

- 한편, 신청인측은 덤핑물품 수입확대 및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급감에 따라 xxx~xxx기간 중 국내산업은 생산시설의 상당부분을 가동 중단하거나 생산을 축소하였다고 함¹²⁰⁾
-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동일한 수준이나 생산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가동률도 '17년 xxx%, '18년 xxx%, '19년 xxx%로 서서히 하락하였으며, '20년 상반기에는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26.5%p 하락하였음
- 신청인측은 '17~'19년 기간 중 생산량과 가동률이 서서히 하락한 것은 가동률을 줄이더라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¹²¹⁾
- 이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생산현황 >

(단위 : 톤,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¹²²⁾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u>1,000</u>	<u>1,006</u>	0.6	<u>1,010</u>	0.4	<u>504</u>	△0.2	0.3
생산량(b)	<u>1,000</u>	<u>989</u>	△1.1	<u>963</u>	△2.6	<u>332</u>	△31.0	△12.7
가동률(b/a)								(△26.5%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추가 답변서

119)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5.28. 및 '21.8.20. 제출)

120) 국내산업은 덤핑물품 수입확대 및 COVID-19영향으로 xxx~xxx기간 중 상당부분의 생산시설을 가동 중단하거나,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였다고 함(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5.31., '21.8.19., '21.8.20. 및 '21.8.25. 제출)

121) 국내생산자들은 가동률이 하락하더라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며, 숙련된 고용인원을 함부로 축소시킬 수 없다고 주장함(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5.14. 제출)

122) 연평균 증감률은 '17~'20년간을 대상으로 하되, '20년 연간수치는 '20년 상반기 수치의 2배수를 적용하였으며, 이후 동 보고서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다만, 가격, 재고 등 2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 수치를 그대로 적용함

< 내수 및 수출 현황 >

(단위 : 톤,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총출하	<u>1,000</u>	<u>987</u>	△1.3	<u>973</u>	△1.4	<u>332</u>	△31.2	△12.8
동종물품 내수판매	<u>1,000</u>	<u>943</u>	△5.7	<u>901</u>	△4.4	<u>357</u>	△18.7	△10.6
동종물품 수출	<u>1,000</u>	<u>1,006</u>	0.6	<u>998</u>	△0.9	<u>324</u>	△34.9	△13.5
덤핑물품 수입	<u>1,000</u>	<u>820</u>	△18.0	<u>1,303</u>	58.9	<u>609</u>	△0.8	6.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2) 판매 및 재고

- 국내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은 '17년 1,000톤에서 '20년 상반기 332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8% 감소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943톤, '19년 901톤, '20년 상반기 357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7%, 4.4%, 18.7%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6% 감소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17년 1,000톤에서 '18년 1,259톤, '19년 1,370톤, '20년 상반기 1,458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4% 증가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가 연평균 3.0% 감소하고, 기타국산 수입물량이 연평균 20.1%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연평균 10.6% 감소하고 기말재고가 연평균 13.4% 증가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연평균 6.8%)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신청인측은 국내산업의 생산량이 소폭 감소('18년 △1.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 기말재고가 전년대비 25.9% 증가한 것은 내수판매량('18년 △5.7%) 및 자가소비('18년 △34.4%) 감소에 따른 영향이며,
- '19년 기말재고가 계속 증가(8.8%)한 것은 '18년에 증가한 재고자산이 여전히 판매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수출판매량이 소폭 감소('19년 △0.9%)한

상태에서 국내소비 확대('19년 19.7%)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 수입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19년 △4.4%) 및 시장점유율이 축소('18년 xxx% → '19년 xxx%) 되었기 때문이며,

- '20년 상반기의 기말재고 증가(6.1%)도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확대('19년 xxx% → '20상 xxx%)에 따른 영향이라고 주장함*123)

* (참조) III.2.나.1).나) <국내소비 및 시장점유율 현황> 표 및 IV.2.다. '수출실적'

< 판매 및 재고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변화율))

연도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기초재고(a)	물량	<u>1,000</u>	<u>1,319</u>	31.9	<u>1,661</u>	25.9	<u>1,807</u>	8.8	21.8
생산량(b)	물량	<u>1,000</u>	<u>989</u>	△1.1	<u>963</u>	△2.6	<u>332</u>	△31.0	△12.7
총출하 (c=d+e+f)	물량	<u>1,000</u>	<u>987</u>	△1.3	<u>973</u>	△1.4	<u>332</u>	△31.2	△12.8
	금액	<u>10,000</u>	<u>10,591</u>	5.9	<u>10,018</u>	△5.4	<u>3,122</u>	△38.6	△14.5
내수판매(d)	물량	<u>1,000</u>	<u>943</u>	△5.7	<u>901</u>	△4.4	<u>357</u>	△18.7	△10.6
	금액	<u>10,000</u>	<u>10,545</u>	5.4	<u>9,545</u>	△9.5	<u>3,252</u>	△32.2	△13.4
수출 ¹²⁴⁾ (e)	물량	<u>1,000</u>	<u>1,006</u>	0.6	<u>998</u>	△0.9	<u>324</u>	△34.9	△13.5
	금액	<u>10,000</u>	<u>10,607</u>	6.1	<u>10,173</u>	△4.1	<u>3,079</u>	△40.5	△14.9
자가소비 ¹²⁵⁾ (f)	물량	<u>1,000</u>	<u>656</u>	△34.4	<u>1,007</u>	53.5	<u>246</u>	△44.3	△21.0
기말재고 (g=a+b-c)	물량	<u>1,000</u>	<u>1,259</u>	25.9	<u>1,370</u>	8.8	<u>1,458</u>	6.1	13.4
재고율(g/c)	물량								()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23)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5.28. 및 '21.8.20. 제출)

124) xxx사, xxx사, xxx사 및 xxx사는 Local수출을 수출로 기장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들은 이들 국내생산자들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임(조사신청서 및 감사·사업보고서('20.11.26 제출), 국내산업 답변서 및 감사보고서('21.3.22 및 '21.8.13. 제출),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5.3. 및 '21.8.19. 제출))

125) 자가소비에는 내부대체(후공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시 원재료로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품목), 타계정대체(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샘플) 등을 포함함(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8.25. 제출)

3) 시장점유율

-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7년 xxx%에서 '18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0.9%p 하락하였음
-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도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3.3%p 하락하였음
- 이와 같은 국내 동종물품과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14.2%p 상승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임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증감률 (17~20상)
		증감률			
동종물품		(3.6%p)	(△10.8%p)	(△4.2%p)	(△10.9%p)
덤핑물품		(△2.8%p)	(13.0%p)	(5.3%p)	(14.2%p)
기타국산 수입물품		(△0.8%p)	(△2.2%p)	(△1.1%p)	(△3.3%p)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국내시장점유율 현황 그래프 >

(단위 : %)

<비공개>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내수 판매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11,187천원으로 11.9% 상승하였으나, '19년 10,598천원, '20년 상반기 9,10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3%, 16.6%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1% 하락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11,027천원으로 10.3% 상승하였으나, '19년 10,047천원, '20년 상반기 9,14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9%, 11.9%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0% 하락하였음
- 이러한 제조원가의 하락은 조사대상기간 중 제조원가의 xxx~xxx%를 차지한 단위당 재료비가 연평균 8.5%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단위당 노무비가 연평균 11.0% 증가¹²⁶⁾함에 따라 제조원가의 하락 정도를 다소 상쇄한 것으로 보임
- 주요 원재료¹²⁷⁾인 TPA와 MEG는 국제석유가격에 연동되는바, 톤당 TPA 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20년 상반기 7,485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2% 하락하였으며, 톤당 MEG 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20년 상반기 5,480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2% 하락하였음
- 앞서 살펴본 '가격효과' 및 후술하는 '원재료 가격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덤핑물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가격이 제조원가(xxx~xxx%)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격 하락 내지 상승이 억제됨에 따라, 제조원가 하락(연평균 △3.0%)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연평균 △3.1%)에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는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연평균 △6.0%)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참조) III.2.나.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및 IV.2.라.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126) 국내생산자들은 노무비 증가의 원인은 호봉승급, 매년 최저임금인상, '18.7월 이후 주 52시간 적용 등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함(국내산업 추가답변서, '21.5.14. 제출)

127) 주요 원재료는 TPA, MEG, 첨가제(xxx, xxx 등) 등이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TPA가 재료비의 xxx~xxx%를 차지하고, MEG가 재료비의 xxx~xxx%를 차지하여, TPA와 MEG 합계가 재료비의 xxx~xxx%를 차지함

< 내수 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 (변화율))

연도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판매가격(a)		<u>10,000</u>	<u>11,187</u>	11.9	<u>10,598</u>	△5.3	<u>9,102</u>	△16.6	△3.1
단위당 제조원가 (b=c+d+e)		<u>10,000</u>	<u>11,027</u>	10.3	<u>10,047</u>	△8.9	<u>9,140</u>	△11.9	△3.0
	재료비(c)	<u>10,000</u>	<u>11,522</u>	15.2	<u>9,768</u>	△15.2	<u>7,673</u>	△25.8	△8.5
	노무비(d)	<u>10,000</u>	<u>10,216</u>	2.2	<u>10,782</u>	5.5	<u>13,695</u>	25.6	11.0
	경 비(e)	<u>10,000</u>	<u>10,136</u>	1.4	<u>10,483</u>	3.4	<u>11,260</u>	9.1	4.0
단위당 제조원가 비중 (판매가격 대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0</u>	<u>10,580</u>	5.8	<u>9,450</u>	△10.7	<u>8,317</u>	△16.4	△6.0
동종물품 생산량		<u>1,000</u>	<u>989</u>	△1.1	<u>963</u>	△2.6	<u>332</u>	△31.0	△12.7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1) 단위당 제조원가 = 제조원가/생산량

주2) 덩핑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2.1%)

< 주요 원자재 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TPA	<u>10,000</u>	<u>12,463</u>	24.6	<u>10,619</u>	△14.8	<u>7,485</u>	△34.8	△9.2
MEG	<u>10,000</u>	<u>9,798</u>	△2.0	<u>6,814</u>	△30.5	<u>5,480</u>	△20.3	△18.2
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0</u>	<u>11,187</u>	11.9	<u>10,598</u>	△5.3	<u>9,102</u>	△16.6	△3.1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5) 덩핑마진의 크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덩핑물품의 덩핑률은 미소마진 이상이므로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덩핑마진이 덩핑물품의 판매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참조) II. '덤핑사실'

6) 이윤

-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17년 △xxx백만원에서 '18년 △xxx백만원, '19년 △xxx백만원, '20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적자가 지속되었음
 - 이에 따라 내수부문 영업이익률도 '17년 △xxx%에서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지속적인 부진세를 보이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2.5%p 하락하였음
 - 이러한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률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업종의 평균영업이익률과는 차이를 보였음
- * 화학섬유(C205)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률(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기업경영분석)
: '17년 4.37%, '18년 3.96%, '19년 5.08%, '20년 3.73%
- 이와 같은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부문 영업이익 적자 추세는 앞서 '가격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제조원가(판매가격의 xxx~xxx%)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한편, 오히려 판매가격을 인하(연평균 △3.1%)한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임

* (참조) III.2.나.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 내수부문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10,000	10,545	5.4	9,545	△9.5	3,252	△32.2	△13.4	
매출원가(b)	10,000	10,316	3.2	9,155	△11.3	3,302	△28.3	△12.9	
매출총이익(c=a-b)	10,000	19,518	95.2	24,888	27.5	1,306	△89.5	△36.1	
판매비(d)	10,000	9,485	△5.2	9,964	5.1	3,792	△15.3	△8.8	
영업이익(e=c-d)	△	△	적자감소	△	적자감소	△	적자전환	적자지속	
영업이익률(f=e/a)	△	△		△		△		(△2.5%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7) 투자수익률

-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투자수익률은 '17년 Δ xxx%에서 '18년 Δ xxx%, '19년 Δ xxx%, '20년 상반기 Δ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인 부진세를 보였으며, 이는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한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내수부문 투자수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영업이익 ¹²⁸⁾ (a)	△	△	적자감소	△	적자감소	△	적자전환	적자지속
투자자산총액 ¹²⁹⁾ (b)	<u>10,000</u>	<u>9,733</u>	△2.7	<u>8,346</u>	△14.3	<u>7,692</u>	△8.9	15.4
투자수익률(a/b)	△	△		△		△		(0.4%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8) 현금흐름

-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17년 Δ xxx백만원에서 '18년 Δ xxx백만원, '19년 Δ xxx백만원, '20년 상반기 Δ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적자가 지속되었음
-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내수부문 영업이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내수부문 영업이익	△	△	적자감소	△	적자감소	△	적자전환	적자지속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28)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임

129) 투자자산총액은 총 자산액 중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매출액 비율임(다만, '20년 상반기 투자자산총액은 금액의 1/2을 적용함)

9) 고용 및 임금

-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17년 1,000명에서 '18년 1,061명, '19년 1,083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6.1%, 2.1% 증가하였으나, '20년 상반기에는 1,06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2% 증가하였음
- 신청인측은 고용은 비탄력성¹³⁰⁾을 가지는바, '18년 고용인원 증가는 '18.7월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한 인원충원에 따른 것이고, '19년의 증가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한 인원충원 및 통계적인 이유 등 때문이며¹³¹⁾, '20년 상반기 고용인원 감소는 COVID-19 등으로 인한 판매량 급감과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¹³²⁾
- 1인당 평균임금은 '17년 10,000천원, '18년 9,864천원, '19년 9,992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 1.3%씩 소폭 등락하였으나, '20년 상반기에는 4,45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하락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8% 하락하였음
- 이는 국내산업이 호봉승급, 매년 최저임금인상, '18.7월 이후 주 52시간 적용 등¹³³⁾ 임금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가 덤핑물품의 수입확대의 영향(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또는 상승억제에 따른 임금하락 또는 임금상승 억제)을 받은 것으로 보임

130) 신청인측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과 단체협약 등으로 인해 고용은 비탄력적이라고 답변함(조사신청서, 국내생산자 추가 답변서('21.5.14., '21.5.28 및 '21.8.19.제출))

131) 국내생산자들은 '18.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으로 xxx조 xxx교대 실시에 따른 인원충원이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으며, '19년 고용인원 증가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원충원과 함께 기업 전체 고용인원을 생산량 기준으로 동종물품과 기타 물품으로 안분할 때, '19년의 경우 기타 물품의 생산량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동종물품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답변함(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5.14. 및 '21.5.28. 제출, 국내산업 답변서 및 추가 답변서, '21.8.13. 및 '21.8.25. 제출)

132) 국내산업은 덤핑물품 수입확대 및 COVID-19영향으로 xxx~xxx기간 중 상당부분의 생산 시설을 가동 중단하거나,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였다고 함(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5.31., '21.8.19., '21.8.20. 및 '21.8.25. 제출)

133) 국내생산자들은 노무비 증가의 원인은 매년 직급승격 및 호봉승급, 매년 최저임금인상, '18.7월 이후 주 52시간 적용 등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함(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5.14., '21.8.19. 및 '21.8.20. 제출)

- 이 상에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 적용 등에 따라 연평균 고용인원에 대한 덤핑물품의 영향은 다소 미약하였지만, 1인당 평균임금은 저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고용 및 임금 현황 >

(단위 : 명, 천원, 톤, %)

연도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평균 고용 인원	생산직	<u>1,000</u>	<u>1,073</u>	7.3	<u>1,083</u>	1.0	<u>1,066</u>	△2.0	2.2
	사무직	<u>1,000</u>	<u>986</u>	△1.4	<u>1,085</u>	10.0	<u>1,070</u>	4.1	2.3
	계	<u>1,000</u>	<u>1,061</u>	6.1	<u>1,083</u>	2.1	<u>1,067</u>	△1.2	2.2
연평균 1인당 임금	생산직	<u>10,000</u>	<u>9,809</u>	△1.9	<u>10,035</u>	2.3	<u>4,326</u>	△14.6	△4.7
	사무직	<u>10,000</u>	<u>10,290</u>	2.9	<u>9,730</u>	△5.4	<u>5,231</u>	△0.9	1.5
	평균	<u>10,000</u>	<u>9,864</u>	△1.4	<u>9,992</u>	1.3	<u>4,455</u>	△12.5	△3.8
동종물품 생산량		<u>1,000</u>	<u>989</u>	△1.1	<u>963</u>	△2.6	<u>332</u>	△31.0	△12.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0) 생산성

-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생산량, 1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치는 조사대상기간 중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량, 총매출액 및 총부가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연평균 11.0~16.4%의 감소세를 보였음
- 1인당 생산량은 '17년 1,000톤, '18년 932톤, '19년 889톤, '20년 상반기 312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8%, △4.6%, △30.2%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6% 감소하였음
- 1인당 매출액은 '17년 10,000백만원, '18년 9,980백만원, '19년 9,246백만원, '20년 상반기 2,926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2%, △7.4%, △37.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6.4% 감소하였음
- 1인당 부가가치는 '17년 10,000백만원에서 '18년 10,897백만원으로 9.0% 상승하였으나, '19년 7,236백만원, '20년 상반기 3,523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3.6%, △23.5%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1.0%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생산성 관련 지표가 악화된 것은 조사대상기간 중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 물품의 수입확대 등으로 인해 생산량,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감소한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임

* (참조) III.2.다.1) '생산량 및 가동률', 2) '판매 및 재고', 6) '이윤'

- 신청인측은 고용인원 및 제조원가에 대해 내수와 수출부문으로 구분할 수 없어 1인당 부가가치도 내수와 수출부문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 및 수출판매 손익이 모두 악화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가 악화되었는바, 이는 주로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인해 충분한 내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¹³⁴⁾

* (참조) IV.2.다. '수출실적'

134)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5.28. 및 '21.8.20. 제출)

< 생산성 관련 지표 >

(단위 : 톤, 백만원, 명, 톤/명, 백만원/명,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량(a)	<u>1,000</u>	<u>989</u>	△1.1	<u>963</u>	△2.6	<u>332</u>	△31.0	△12.7
총매출액 ¹³⁵ (b)	<u>10,000</u>	<u>10,591</u>	5.9	<u>10,018</u>	△5.4	<u>3,122</u>	△38.6	△14.5
총부가가치 ¹³⁶ (c)	<u>10,000</u>	<u>11,564</u>	15.6	<u>7,840</u>	△32.2	<u>3,758</u>	△24.4	△9.1
고용인원(d)	<u>1,000</u>	<u>1,061</u>	6.1	<u>1,083</u>	2.1	<u>1,067</u>	△1.2	2.2
1인당 생산량(a/d)	<u>1,000</u>	<u>932</u>	△6.8	<u>889</u>	△4.6	<u>312</u>	△30.2	△14.6
1인당 매출액(b/d)	<u>10,000</u>	<u>9,980</u>	△0.2	<u>9,246</u>	△7.4	<u>2,926</u>	△37.9	△16.4
1인당 부가가치(c/d)	<u>10,000</u>	<u>10,897</u>	9.0	<u>7,236</u>	△33.6	<u>3,523</u>	△23.5	△11.0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1) 성장성

-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가동률 하락, 내수 부문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하여 내부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등 성장성이 저해된 것으로 보임

< 성장성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가동률								(△26.5%p)
시장점유율								(△10.9%p)
내수 매출액	<u>10,000</u>	<u>10,545</u>	5.4	<u>9,545</u>	△ 9.5	<u>3,252</u>	△32.2	△ 13.4
내수 영업이익	△	△	적자감소	△	적자감소	△	적자전환	적자치속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2) 자본조달능력

-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인 내수부문 영업손실로 인해 내부

135) 국내 동종물품 전체(내수판매 + 수출)의 매출액임

136) 총부가가치 = 법인세차감전손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자본조달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임

< 자본조달능력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매출액 ¹³⁷⁾	<u>10,000</u>	<u>10,591</u>	5.9	<u>10,018</u>	△5.4	<u>3,122</u>	△38.6	△14.5
- 내수 매출액	<u>10,000</u>	<u>10,545</u>	5.4	<u>9,545</u>	△9.5	<u>3,252</u>	△32.2	△13.4
영업이익 ¹³⁸⁾		△	적자전환	△	적자감소	△	적자전환	적자지속
- 내수 영업이익	△	△	적자감소	△	적자감소	△	적자전환	적자지속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조사대상기간 중 xxx사의 기업 신용등급이 '17년 xxx에서 '18년 xxx로 하락하는 등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의 외부 자본조달능력도 약화된 것으로 보임¹³⁹⁾

< 국내생산자의 회사채 신용등급¹⁴⁰⁾ >

구분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xxx사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3)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국내산업의 설비투자액은 '17년 10,000백만원에서 '18년 5,467백만원, '19년 4,49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5.3%, 17.7% 감소하였으며, '20년 상반기에는 1,602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1.6% 감소하였음

137) 국내 동종물품 전체(내수판매 + 수출)의 매출액

138) 국내 동종물품 전체(내수판매 + 수출)의 영업이익

139) <비공개>

140) 한국기업평가(Korea Ratings, www.korearatings.com)에 따르면, '장기 채무 신용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로 구분, 다만,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등급의 정의'는 'BBB'는 '보통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로, 'BB'는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가능성 상존'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규모는 크지 않았음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10,000	5,467	△45.3	4,498	△17.7	1,602	△3.5	△31.6
연구개발							7.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가) 수입자측 의견

- 수입자측은 국내생산자들이 폴리에스테르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등한시한 결과, 일반사 위주 생산, 공급량 감소,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하락 내지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함¹⁴¹⁾
- 또한, 수입자측은 공청회('21.9.16.) 시에 FDY 생산은 일시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서, 국내생산자들의 설비투자는 낡은 설비에 대한 보수성의 설비 보완, 설비 교체에 불과하며, 국내생산자들은 FDY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하는 상태이며,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에 따른 적자로 인해 투자여력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¹⁴²⁾
- 수입자측은 공청회 후 신청인측이 제출한 보완자료에 대한 반론자료에서 FDY 설비투자는 장치산업으로서 수백억원대의 일괄적인 투자로 모든 시설이 첨단화, 자동화, 대형화되어야 가격경쟁력, 품질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 (주)티케이케미칼이 인수한 코오롱머티리얼(주)의 설비는 이미 30년 이상된 설비이고 코오롱머티리얼(주)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에서 퇴출('19년)될 때 폐기 예정인 일부 설비를 저단가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함¹⁴³⁾

141) 국내수입자 답변서(xxx사, xxx사 및 xxx사, '21.3.8. 제출)

142) 미도교역(주)의 공청회 발언요지('21.8.27. 제출)

나) 신청인측 의견

- 신청인측은 중국산 덩핑물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덩핑물품의 저가판매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투자여력 상실, 덩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더 낮아질 우려, 외부조달 보다는 내부자금으로 투자자금 충당, 규모가 작은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서의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투자를 방해받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있는 소량 다품종의 차별화 제품 생산 설비구축 등 생존을 위해 설비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함¹⁴⁴⁾
- (주)티케이케미칼은 공청회('21.9.16.) 시에 FDY산업을 사양산업으로 판단하였다면 '19.9월 생산설비와 인력 등을 포함한 코오롱머티리얼(주)의 차별사 사업부문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수관련 자료를 제출함¹⁴⁵⁾

다) 조사실 검토

- 수입자측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투자규모가 대규모 장치산업에 필요한 투자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내산업이 FDY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신청인측은 FDY 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며, 덩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설비투자가 제약을 받고 있으나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 국내 동종물품의 조사대상기간 전체의 매출액 합계 대비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합계 비율은 적지 않은 약 xxx% 수준¹⁴⁶⁾으로서, 국내 산업이 '18년이후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수입자측이 주장하듯이 국내생산자들이 FDY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143) 미도교역(주)의 공청회 후 신청인측 보완자료에 대한 반론자료('21.10.1. 제출)

144) 국내생산자 답변서('21.3.22. 제출) 및 추가 답변서('21.4.29., '21.5.4., '21.5.14. 및 '21.8.20. 제출), <참고 3>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현황' 참조

145) 신청인측의 공청회 후 보완자료('21.9.24. 제출)

146) 국내 동종물품의 조사대상기간 쏘기간의 매출액 합계(xxx백만원) 대비 조사대상기간 쏘기간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합계액(xxx백만원) 비율은 약 xxx%임

- 특히, (주)티케이케미칼은 '19년도에 생산설비와 인력 등 코오롱머티리얼(주)의 차별사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음

* (참조) IV.2.다. '수출실적'의 표 <동종물품 전체(내수+수출) 손익현황> 참조

- 따라서, 국내산업은 신청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조달능력 등이 약화됨에 따라 설비투자과 연구개발 투자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임

14) 종합 검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국내산업은 연평균 고용인원 등 일정 수준을 유지한 부문도 있지만, 생산량 및 가동률, 재고 및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임금,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대부분의 피해지표가 덤핑물품의 수입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매년 감소하여 연평균 12.7% 감소하였고, 가동률도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매년 하락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매년 감소하여 연평균 10.6% 감소하였고, 기말재고는 매년 증가하여 연평균 13.4%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 시장점유율은 '17년 xxx%에서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10.9%p 하락하였음
- 내수부문 영업이익률은 '17년 △xxx%에서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지속적인 부진세를 보이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2.5%p 하락하였음
-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국내산업은 시장점유율 축소 및 재고 확대와 함께,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자본조달 능력 등이 제약되고 설비투자과 연구개발이 저해됨으로써 국내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임

3.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여부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유무는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라고 볼만한 지표가 없을 경우에 검토할 사항임
- 실질적 피해우려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지 여부를 검토함
 - 실질적 피해관련 지표에 추가해서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생산 능력의 증가, 추가적 수입수요 증대 가능성, 재고상태 등을 검토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가. 덤핑물품의 현저한 수입 증가 여부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8%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향후에도 수입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참조) III.2.나.1)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 덤핑물품의 수입현황 >

(단위 : 톤,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u>1,000</u>	<u>879</u> △12.1	<u>1,052</u> 19.7	<u>457</u> △10.0	△3.0		
덤핑물품 수입	<u>1,000</u>	<u>820</u> △18.0	<u>1,303</u> 58.9	<u>609</u> △0.8	6.8		
동종물품 내수판매	<u>1,000</u>	<u>943</u> △5.7	<u>901</u> △4.4	<u>357</u> △18.7	△10.6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조사 대상기간 중 14.2%p의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을 볼 때,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의 확대가 예상됨

<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

(단위 :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증감률 ('17~'20상)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2.8%p)	(13.0%p)	(5.3%p)	(14.2%p)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 그래프 >

(단위 : 톤, %)

<비공개>

나.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여부

1)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생산능력

가) 절차적 측면

- 조사실이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조사질의서에서 “입수가능한 범위에서 공급국 전체의 조사대상물품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21.1.27)한데 대해, xxx사¹⁴⁷⁾(이하 ‘xxx사’이라 함)가 관련 자료를 제출(‘21.3.23)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조사결과의 기초가 되는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실은 xxx사가 제출한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검토함
- xxx사는 화학섬유관련 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중국 화섬정보망(Cheical Fiber Information Network, 이하 “CCF”라 함)에서 입수한 폴리에스테르 장섬유(FDY, POY 및 DTY 포함)의 생산능력, 생산량 통계¹⁴⁸⁾에 대해, 중국의 전문산업조사기관인 Leading Industry Research Network(이하 “LeadingIR”이라 함)에서 입수한 ‘19~’21년도의 예상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 대비 FDY 산업비중¹⁴⁹⁾ xxx%를 적용하여 산출한 조사대상국 전체의 FDY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자료를 제출하였음

147) xxx사가 자료 제출(‘21.3.23.)

148) 조사대상공급자인 xxx사는 중국 화섬정보망(Cheical Fiber Information Network, www.ccf.com.cn)에서 입수한 아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의 생산능력, 생산량 통계 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출함

<2016-2020년 조사대상국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수급 대차대조표>

(단위: 천톤/년)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 출처 : 중국 화섬정보망(Cheical Fiber Information Network, www.ccf.com.cn)

149) 조사대상공급자인 xxx사는 중국의 전문산업조사기관인 Leading Industry Research Network(www.leadingir.com)에서 입수한 ‘19~’21년도 예상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 비중 자료(FDY xxx%, POY xxx%, DTY xxx%)를 근거자료로 제출함

- 한편, 신청인측도 조사신청서에서 조사대상국의 생산능력에 대한 근거자료로 중국의 전문 화섬시장 조사기관인 CCFEI¹⁵⁰⁾(China Chemical & Fiber Economic Information Network)에서 입수한 조사대상국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자료¹⁵¹⁾를 제출하였음
- 조사실은 xxx사가 제출한 CCF의 조사대상국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능력 통계는 신청인측이 제출한 CCFEI의 '16~'20년간의 각 연도별 생산능력 통계의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통계 간에 큰 차이가 없고,
- “Ⅲ.3.나.2)”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가 제출한 '17~'19년 및 '19.7~'20.6월의 기간별 생산능력 통계가 xxx사가 제출한 조사대상국 전체의 FDY 생산능력 통계의 상당부분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조사대상공급자가 제공한 자료가 상당한 정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Ⅱ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은 조사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50) China Chemical & Fiber Economic Information Network(CCFEI, www.ccfEI.net)은 '02년 설립된 화학, 화학섬유 및 직물 전문 온라인 정보, 컨퍼런스 및 컨설팅 제공 기관으로서, 중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화학,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비스코스, 스판텍스, 폴리프로필렌, 직물 등에 대한 시장분석, 통계, 가격 정보,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151) 신청인측은 조사신청서에서 조사대상국의 생산능력에 대한 근거자료로 중국 CCFEI에서 입수한 조사대상국의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통계를 제출함

<조사대상국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능력>

(단위: 천톤/년)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 출처 : Polyester Chain Annual Report 2019, CCFEI, 2020년은 예상치

- 조사실은 xxx사가 조사대상물품 관련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xxx사가 제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및 잉여생산능력에 대하여 검토함

나) 내용적 측면

-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생산능력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1,137톤, '19년 1,218톤, '19.7-'20.6(POI)기간 1,257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3.7%, 7.1% 및 3.2%¹⁵²⁾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19년기준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생산능력은 1,218톤이고, 생산량은 1,196톤으로 우리나라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xxx톤)의 약 xxx배 규모이며, 가동률은 xxx%수준으로 연간 1,297톤 규모의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 시장상황에 따라 대규모의 추가적인 덤핑물품의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바, 조사대상국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덤핑물품 생산능력과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 * '19년기준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잉여생산능력(xxx톤)은 우리나라 국내생산자 6개사의 동종물품 총생산량(xxx톤)의 약 xxx배 규모임

<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생산능력 >

(단위 : 톤, %)

구 분 \ 연 도	'17년	'18년		'19년		'19.7-'20.6		'20.7-'21.6 예상 ¹⁵³⁾
			증감률		증감률	(POI)	증감률	
생산능력(a)	<u>1,000</u>	<u>1,137</u>	13.7	<u>1,218</u>	7.1	<u>1,257</u>	3.2	<u>1,332</u>
생산량(b)	<u>1,000</u>	<u>1,103</u>	10.3	<u>1,196</u>	8.5	<u>1,206</u>	0.8	<u>1,279</u>
가동률(b/a)								
잉여생산능력(a-b)	<u>1,000</u>	<u>1,261</u>	26.1	<u>1,297</u>	2.8	<u>1,440</u>	11.1	<u>1,526</u>

* 자료 : 조사대상공급자 답변서

152) '19.7-'20.6(POI)기간의 생산능력 증감률 3.2%는 '19년 대비 증감률임

153) xxx사는 '19.7-'20.6(POI) 수치에 폴리에스터 원사 산업의 예상성장률 xxx%를 적용하여 '20.7-'21.6 예상치를 산출함

2)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물품 생산능력

- 답변서를 제출한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의 연간 덤핑물품 생산능력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1,274톤, '19년 1,397톤으로 각각 27.4%, 9.6% 증가하였고, '19.7-'20.6(POI)기간에도 1,597톤으로 매년 생산능력이 확대되었음
- '19년기준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의 연간 덤핑물품 생산능력은 1,397톤이고, 생산량은 1,465톤으로 우리나라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xxx톤)의 약 xxx배 규모이며, 가동률은 xxx%수준으로 연간 1,325톤 규모의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 '19년 기준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의 덤핑물품 잉여생산능력(xxx톤)은 우리나라 국내생산자 6개사의 동종물품 총생산량(xxx톤)의 약 xxx배 규모임
-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는 조사대상기간 중 xxx~xxx% 수준의 전반적으로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시장여건에 따라 對한국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물품 생산능력 >

(단위 : 톤, %)

구 분	연 도	'17년	'18년 증감률	'19년 증감률	'19.7-'20.6 (POI)
생산능력(a)		<u>1,000</u>	<u>1,274</u> 27.4	<u>1,397</u> 9.6	<u>1,597</u>
생산량(b)		<u>1,000</u>	<u>1,281</u> 28.1	<u>1,465</u> 14.3	<u>1,458</u>
가동률(b/a)					
잉여생산능력(a-b)		<u>1,000</u>	<u>1,267</u> 26.7	<u>1,325</u> 4.6	<u>1,743</u>

* 자료 : 조사대상공급자 답변서

3)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수출확대 가능성

- 답변서를 제출한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의 덤핑물품 매출량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1,441톤, '19년 1,985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4.1%, 37.8% 증가하였으나, '19.7-'20.6(POI)기간에는 1,928톤으로 '19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덤핑물품의 내수판매량과 수출량도 매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매출량의 xxx~xxx%가 내수판매된 반면, 수출비중은 전체 매출량의 xxx~xxx%에 불과함
- 특히,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의 덤핑물품 對한국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량의 xxx~xxx%에 불과하여, 세계 및 조사대상국의 시장여건에 따라 對한국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공급자의 매출 현황 >

(단위 : 톤, %)

구 분	연 도	'17년	'18년	증감률	'19년	증감률	'19.7-'20.6 (POI)
매출량(a=b+c) (비중)		<u>1,000</u> (100.0)	<u>1,441</u> (100.0)	44.1	<u>1,985</u> (100.0)	37.8	<u>1,928</u> (100.0)
• 내수판매량(b) (비중)		<u>1,000</u> ()	<u>1,436</u> ()	43.6	<u>1,985</u> ()	38.2	<u>1,914</u> ()
• 수출량(c) (비중)		<u>1,000</u> ()	<u>1,542</u> ()	54.2	<u>1,986</u> ()	28.8	<u>2,258</u> ()
對한국 수출 (비중)		<u>1,000</u> ()	<u>943</u> ()	△5.7	<u>1,477</u> ()	56.6	<u>2,089</u> ()
제3국 수출 (비중)		<u>1,000</u> ()	<u>1,723</u> ()	72.3	<u>2,140</u> ()	24.2	<u>2,310</u> ()

* 자료 : 조사대상공급자 답변서

주) ()내 비중은 매출량 대비임

다. 덤핑물품의 가격효과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 증대 가능성

-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7년에는 국내 동종물품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18년 이후 조사대상기간 중에는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되었으며,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연평균 6.0% 하락함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인 영업적자 속에서도 가격이 하락(연평균 △3.1%)하는 등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에도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을 억제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또한,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 뿐만 아니라 기타국산 물품의 판매가격 보다도 크게 낮아 향후 덤핑물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0</u>	<u>10,580</u>	5.8	<u>9,450</u>	△10.7	<u>8,317</u>	△16.4	△6.0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0</u>	<u>11,187</u>	11.9	<u>10,598</u>	△5.3	<u>9,102</u>	△16.6	△3.1
기타국산 판매가격(c)	<u>10,000</u>	<u>11,036</u>	10.4	<u>12,366</u>	12.0	<u>10,708</u>	△14.6	2.3
가격차이(a-b)		△	-	△	-	△	-	-
가격비율(a/b)			()		()		()	()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 덤핑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2.1%)

라. 덤핑물품의 재고 현황

-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의 덤핑물품 재고율은 '17년~'19년 기간에는 xxx~xxx%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7-'20.6(POI)기간에는 xxx%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19.7-'20.6(POI)기간 중 덤핑물품 재고 xxx톤은 '19년 기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xxx톤) 보다 큰 규모로서 동 재고물량의 일부가 對한국 수출로 전환될 경우 누적된 재고(조사대상기간 중 재고율 xxx~xxx%)로 인해 이미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공급자와 국내산업의 재고 현황 >

(단위 : 톤, %)

연 도		'17년	'18년		'19년		POI('19.7~'20.6)
구 분				증감률		증감률	/'20상반기 ¹⁵⁴)
조사대상 공급자	생산량(a)	<u>1,000</u>	<u>1,281</u>	28.1	<u>1,465</u>	14.3	<u>1,458</u>
	재고량(b)	<u>1,000</u>	<u>1,378</u>	37.8	<u>1,386</u>	0.6	<u>2,955</u>
	재고율(b/a)						
국내산업	생산량(a)	<u>1,000</u>	<u>989</u>	△1.1	<u>963</u>	△2.6	<u>332</u>
	재고량(b)	<u>1,000</u>	<u>1,259</u>	25.9	<u>1,370</u>	8.8	<u>1,458</u>
	재고율(b/a)						

* 자료 : 조사대상공급자 답변서

마.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은 직물, 편물산업을 보유한 세계 주요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바, 현재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등 3개국으로부터 반덤핑조치를 부과 받고 있으며, 베트남은 반덤핑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이에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덤핑물품의 對한국 수출확대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됨

< 제3국의 덤핑물품 수입규제조치 현황 >

제소국	덤핑물품	부과기간	덤핑률
인도	All Fully Drawn Yarn HS 5402.47	'15.10.21.~'20.12.31.(5년) ('20말까지 부과기간 연장) * '09.03.26.부터 덤핑관세 부과	US\$256~547/MT
파키스탄	Polyester Filament Yarn HS 5402 3300, 5402 4700, 4802 6200	'17.08.26.~'22.08.25.(5년)	3.25~11.35%
인도네시아	Spin Drawn Yarn HS 5402.4700	'19.08.20.~'22.08.19.(3년)	5.4~15%
터키	Fully Drawn Yarn HS 5402.47	'21.01.09.~'26.01.08.(5년) * '14.10.16.부터 덤핑관세 부과	US\$0.25~0.30/kg
베트남	Polyester Filament Yarn HS 5402.33, 5402.46, 5402.47	조사 중 * '21.8.3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부과기간: '21.9.3.~'21.12.31.)	3.36~17.45%

* 자료 : 조사신청서, WTO 홈페이지, 현지 언론

154) 조사대상공급자는 '19.7~'20.6(POI) 기준이며, 국내산업은 '20년 상반기 기준임

바. 종합 검토

- '19년기준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생산능력은 1,218톤, 생산량은 1,196톤으로 연간 1,297톤 규모의 잉여생산능력(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xxx톤)의 약 xxx배)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생산능력과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 특히, '19년기준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의 덤핑물품 생산능력은 1,397톤, 생산량은 1,465톤으로 연간 1,325톤 규모의 잉여생산능력(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xxx톤)의 약 xxx배)을 보유하고 있음
-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공급자 5개사의 對한국 수출비중은 전체 매출량의 xxx~xxx%에 불과하여, 세계 및 조사대상국의 시장여건에 따라 對한국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18년~'20년 상반기 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저가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국산 물품의 판매가격 보다도 크게 낮아 덤핑물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19.7-'20.6(POI)기간 중 덤핑물품 재고 xxx톤은 '19년 기준 국내총생산량(xxx톤) 보다 큰 규모로서 동 재고물량의 일부가 對한국 수출로 전환될 경우 누적된 재고(조사대상기간 중 재고율 xxx~xxx%)로 인해 이미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의 주요 수출국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등은 이미 덤핑물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고 베트남은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덤핑물품의 對한국 수출확대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됨
- 따라서, 앞서 “Ⅲ.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덤핑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와 아울러,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생산능력 및 잉여생산 여력, 수출확대 가능성, 저가판매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수요 증대 가능성, 재고물량의 규모, 주요 수출상대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및 조사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덤핑물품의 저가수입 확대에 의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됨

IV.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3조 제1항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 WTO반덤핑협정 제3.5조

덤핑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 첫째, 앞서 “Ⅲ.2.나.1)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18년(820톤)에는 국내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준연도('17년을 말하며 이하 같음, 1,000톤)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19년(1,303톤)과 '20년 상반기(609톤)에는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상반기) 전체적으로도 연평균 6.8% 증가하였으며,
-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8년에는 xxx%로 국내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준연도('17년 xxx%)와 비교하여 하락하였으나,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크게 확대(각각 10.1%p, 14.2%p)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연평균 △10.6%)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18년에는 기준연도('17년 xxx%) 대비 3.6%p 소폭 상승하였으나,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기준연도 대비 크게 하락(각각 △7.2%p, △10.9%p)하였음
- 둘째, 앞서 “Ⅲ.2.나.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기준연도('17년 xxx%)와 비교하여 '18년에서 '20년 상반기 기간 중에는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되었고,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6.0% 하락하였음
-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19년과 '20년 상반기에는 영업적자 속에서도 가격이 하락(전년동기대비 각각 △5.3%, △16.6%)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3.1% 하락하였으며,

-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이 적정판매가격의 xxx~xxx%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받아 가격상승이 억제되는 등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셋째, 이상과 같은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및 가격 효과에 따라 국내 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생산량 및 가동률의 하락, 시장점유율 축소 및 재고 확대와 함께,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자본조달 능력 등이 제약되고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이 저해됨으로써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다음 표와 같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임*

* (참조) III.2.다.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덩핑물품과 주요 국내산업 피해지표 >

(단위 : 톤, %, 천원/톤, 백만원, 명, (변화율))

지표	연도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물 량	덤핑물품 수입	<u>1,000</u>	<u>820</u>	△18.0	<u>1,303</u>	58.9	<u>609</u>	△0.8	6.8
	동종물품 내수판매	<u>1,000</u>	<u>943</u>	△5.7	<u>901</u>	△4.4	<u>357</u>	△18.7	△10.6
시 장 점 유 율	덤핑물품			(△28%p)		(13.0%p)		(5.3%p)	(14.2%p)
	동종물품			(3.6%p)		(△108%p)		(△42%p)	(△10.9%p)
가 격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0</u>	<u>10,580</u>	5.8	<u>9,450</u>	△10.7	<u>8,317</u>	△16.4	△6.0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0</u>	<u>11,187</u>	11.9	<u>10,598</u>	△5.3	<u>9,102</u>	△16.6	△3.1
	제조원가	<u>10,000</u>	<u>11,027</u>	10.3	<u>10,047</u>	△8.9	<u>9,140</u>	△11.9	△3.0
	(비중)								()
	· 가격차이 비율(a/b)								()
	적정판매 가격(b')	<u>10,000</u>	<u>10,966</u>	9.7	<u>10,140</u>	△7.5	<u>9,288</u>	△10.4	△2.4
	· 가격차이 비율(b/b')								()
생 산 량		<u>1,000</u>	<u>989</u>	△1.1	<u>963</u>	△2.6	<u>332</u>	△31.0	△12.7
가 동 률				-		-		-	(△26.5%p)
내수판매량		<u>1,000</u>	<u>943</u>	△5.7	<u>901</u>	△4.4	<u>357</u>	△18.7	△10.6
영 업 이 익	내수부문 영업이익	△	△	적자감소	△	적자감소	△	적자전환	적자지속
	내수부문 영업이익률	△	△		△		△		(△2.5%p)
연평균 고용인원		<u>1,000</u>	<u>1,061</u>	6.1	<u>1,083</u>	2.1	<u>1,067</u>	△1.2	2.2
생 산 성 (1인당부가가치)		<u>10,000</u>	<u>10,897</u>	9.0	<u>7,236</u>	△33.6	<u>3,523</u>	△23.5	△11.0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요인에 대해 검토
 - 덤핑물품 외의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중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 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이 포함된다.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수입물량은 '17년 1,000톤, '18년 789톤, '19년 630톤, '20년 상반기 255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0.1% 감소함
-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3.3%p 하락하였음
-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덤핑물품 보다 높았으며, 국내 동종물품 보다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감소하였고, 시장점유율도 하락하였으며,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현황 >

(단위 : 톤, %, 천원/톤,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기타국산 물품	수입물량	<u>1,000</u>	<u>789</u>	△ 21.1	<u>630</u>	△ 20.1	<u>255</u>	△ 28.6	△ 20.1
	시장점유율			(△0.8%p)		(△2.2%p)		(△1.1%p)	(△3.3%p)
	판매가격	<u>10,000</u>	<u>11,036</u>	10.4	<u>12,366</u>	12.0	<u>10,708</u>	△ 14.6	2.3
덤핑물품	수입물량	<u>1,000</u>	<u>820</u>	△ 18.0	<u>1,303</u>	58.9	<u>609</u>	△ 0.8	6.8
	시장점유율			(△2.8%p)		(13.0%p)		(5.3%p)	(14.2%p)
	판매가격	<u>10,000</u>	<u>10,580</u>	5.8	<u>9,450</u>	△ 10.7	<u>8,317</u>	△ 16.4	△ 6.0
국내 동종물품	판매물량	<u>1,000</u>	<u>943</u>	△ 5.7	<u>901</u>	△ 4.4	<u>357</u>	△ 18.7	△ 10.6
	시장점유율			(3.6%p)		(△10.8%p)		(△4.2%p)	(△10.9%p)
	판매가격	<u>10,000</u>	<u>11,187</u>	11.9	<u>10,598</u>	△ 5.3	<u>9,102</u>	△ 16.6	△ 3.1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주) 덤핑물품·기타물품 판매가격=CIF가격+관세+통관제비용(2.1%)

< 덤핑물품 이외 수입물품의 판매단가 현황 그래프 >

(단위 : 천원/톤)

<비공개>

나. 국내소비 변화¹⁵⁵⁾

1) '18년도 국내소비 감소 관련

가) 수입자측 의견

-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18년도에 FDY 국내소비가 전년대비 12.1% 감소한 것은 앞서 “Ⅲ.2.나.1).가) 덩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섬유산업(니트, 화섬 등 후공정 직물업체 등)은 구조적인 고임금,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외 FDY 원사가격 상승,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따른 염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제품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FDY 수요량이 절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¹⁵⁶⁾

나) 신청인측 의견

- 신청인측은 '18년의 국내소비 감소 원인을 '18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후공정 원단(직물)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 및 원단의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라 FDY 원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함¹⁵⁷⁾

다) 조사실 검토

- 수입자 및 신청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8년 중 국내 후공정 직물 업체(니트, 화섬 등)는 구조적인 고임금, 원화강세, 염료가격 상승,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외 FDY 원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원단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오더가 부진함에 따라 FDY에 대한 수요량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18년도에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국내소비량의 전년대비 감소폭($\Delta 12.1\%$) 보다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의 전년대비 감소폭($\Delta 5.7\%$)%이 작고, 금액기준으로 보면 국내소비 감소($\Delta 4.2\%$)에도 불구하고 동종물품 내수

155) 국내소비는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출하량과 수입량의 합계임

156) 미도교역(주)의 국내수입자 현지실사 답변서('21.7.19. 제출)

157)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5.4. 제출) 및 현지실사 답변서('21.8.4. 제출)

판매액이 전년대비 증가(5.4%)한 것을 볼 때, '18년도에 있어서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물량	<u>1,000</u>	<u>879</u>	△12.1	<u>1,052</u>	19.7	<u>457</u>	△10.0	△3.0
	금액	<u>10,000</u>	<u>9,576</u>	△4.2	<u>10,545</u>	10.1	<u>3,967</u>	△25.4	△7.4
덤핑물품 수입	물량	<u>1,000</u>	<u>820</u>	△18.0	<u>1,303</u>	58.9	<u>609</u>	△0.8	6.8
	금액	<u>10,000</u>	<u>8,679</u>	△13.2	<u>12,316</u>	41.9	<u>5,062</u>	△17.0	0.4
동종물품 내수판매	물량	<u>1,000</u>	<u>943</u>	△5.7	<u>901</u>	△4.4	<u>357</u>	△18.7	△10.6
	금액	<u>10,000</u>	<u>10,545</u>	5.4	<u>9,545</u>	△9.5	<u>3,252</u>	△32.2	△13.4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2) '20년 상반기 국내소비 감소 관련

가) 수입자측 의견

- 수입자측은 COVID-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섬유제품 수요 감소, 수출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20년 상반기 국내수요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함¹⁵⁸⁾

나) 신청인측 의견

- 2020년 전세계적인 COVID-19로 인해 국내소비가 감소하였으나, '20년 상반기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확대된바, 국내수요 감소가 국내산업 피해발생 원인의 일부일 수도 있으나,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함¹⁵⁹⁾

158) 국내수입자들(xxx사, xxx사, xxx사, xxx사 등)은 '20년 상반기 국내수요 감소원인으로 COVID-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섬유제품 수요 감소, 수출수요 감소 등을 들고 있음(국내 수입자 답변서, '21.3.8. 제출)

159)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5.21. 제출)

다) 조사실 검토

- '20년 상반기 중 국내소비가 전년동기대비 10.0% 감소하였고,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18.7% 감소한 것을 볼 때, '20년 상반기 중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감소가 국내소비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20년 상반기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xxx% 수준으로 저가 판매되었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변동폭(전년동기대비 $\Delta 0.8\%$)이 미미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확대('19: xxx% → '20상: xxx%, 4.0%p)된 점 등을 볼 때, '20년 상반기 중 국내산업 피해는 국내소비 감소보다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임

3) 국내소비 관련 종합 검토

- 국내소비량이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0% 감소한데 비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연평균 10.6% 감소한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18년 중 국내소비 물량과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2.1%, 4.2% 감소하였으나, 동종물품 내수판매는 전년대비하여 물량이 5.7% 감소한데 비해 금액은 5.4% 증가한 것을 볼 때, '18년의 FDY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전년대비하여 '19년의 경우 국내소비량이 19.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4.4% 감소한 것을 볼 때, 국내소비가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또한, '20년 상반기 중 국내소비가 전년동기대비 10.0% 감소하였으나,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대비 xxx% 수준으로 저가 판매되었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Delta 0.8\%$)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시장점유율은 확대('19: xxx% → '20상: xxx%, 4.0%p)된 것을 볼 때, 국내산업 피해는 국내소비 감소보다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임

다. 수출실적

1) 수입자측 의견

-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공청회('21.9.16.)에서 '18년~'21년 상반기 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물량은 중국으로부터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대비 2.2배에서 3.6배에 이르고, 이러한 밀어내기식 출혈수출로 인한 적자가 국내산업 피해 원인 중의 하나이며,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는 미약하다고 주장하였음¹⁶⁰⁾
- 미도교역(주)는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 수출은 '19년 월평균 10,649톤에서 '21년 상반기 월평균 11,895톤으로 11.7% 증가한 반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은 '19년 월평균 '19년 4,813톤에서 '21년 상반기 3,339톤으로 30.6% 감소하였으며,
- 이러한 국내생산자의 밀어내기식 출혈수출로 인해 터키정부에 Polyester 완전연신사가 반덤핑 제소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터키측 소식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덤핑협의 상태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함

<우리나라의 국내 동종물품 수출 및 조사대상물품 對중국 수입 현황>

(단위 : 톤)

연도	동종물품 수출물량		조사대상물품 對중국 수입물량		조사대상물품 수입량 / 동종물품 수출량 배율(A/B)
	연간(A)	월평균	연간(B)	월평균	
2018	116,424	9,702	36,358	3,030	3.2
2019	127,783	10,649	57,752	4,813	2.2
2020	107,379	8,948	47,009	3,917	2.3
2021상반기	71,370	11,895	20,033	3,339	3.6

* 자료 : 미도교역(주) 제출(원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160) 미도교역(주)의 공청회 발언요지('21.8.27. 제출)

- 미도교역(주)는 공청회 후 제출한 보완자료¹⁶¹⁾에서, 2020년도에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TPA, MEG 가격과 해상운임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2021년도에는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TPA, MEG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FDY 원사단가가 약 U\$0.20/kg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해상운임 인상으로 인해서도 FDY 원사단가가 약 U\$0.50/kg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등 총 U\$0.70/kg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바,
- 조사대상공급자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 및 해상운임 인상폭을 수입가격에 반영함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국내 생산자들의 수출단가는 5~6배 인상된 해상운임*은 물론 원자재 인상폭조차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출혈수출을 지속하고 있음이 아래 수출 통계자료와 관련 언론기사¹⁶²⁾를 통해 증명되며, 조사대상물품은 국내 산업의 적자와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조사대상물품에 덤핑관세를 부과할 정도의 국내산업 피해는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하였음

* SCFI(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¹⁶³⁾ : '20.6월 925.5 → '21.9월 4,502.65

<우리나라의 동종물품 수출 및 조사대상물품 수입 현황>

(단위 : 톤, U\$/kg)

연도	조사대상물품 對중국 수입		동종물품 수출	
	월평균 수입량	수입단가	월평균 수입량	수출단가
2020	3,917	1.09	8,948	1.81
2021.1~8월	2,995	1.29	11,818	1.83

* 자료 : 미도교역(주) 제출(원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161) 미도교역(주)의 공청회 후 보완자료('21.9.24. 제출)

162) 미도교역(주)의 공청회 후 보완자료('21.9.24. 제출) : ①국제섬유신문 '21.9.6.일자 기사 제목 "해운 대란 화섬사 수출 직격탄"(요지 : 전 세계적인 해상 운송 대란으로 인한 컨테이너 운임 폭등 여파로 국산 화섬사의 대 터키 수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음), ②국제섬유신문 '21.6.21.일자 기사 제목 "중국산 화섬사 10년 세도 마감"(요지 : 국내 화섬 메이커들은 수년간 안방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산에 내주면서 고전해 왔으나, 올 들어 중국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 원자재 가격 인상, 물류대란에 따른 납기 지연 등으로 잇따라 가격을 올린 중국산 보다 가격, 납기, 품질에서 유리한 국내 화섬 메이커들이 안방시장을 다시 탈환하고 있음)

163) SCFI(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spot)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로 20ft 컨테이너(TEU)당 미달러(USD)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임에 기초하여 산정됨(출처 :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

<원자재 가격 동향>

(단위 : U\$/톤, %)

구분	2020년 평균가격	2021.1~8월 평균가격	증감율
TPA	xxx	xxx	xxx
MEG	xxx	xxx	xxx

* 자료 : 미도교역(주) 제출(원자료 : CCFGroup(ccfgroup.com, 중국 화학섬유 전문 정보제공기업))

<해상운임 동향>

구분	2020.11월	2021.9월
From 상해 to 부산	U\$100/40ft (U\$0.005/kg)	U\$600/40ft (U\$0.03/kg)
From 부산 to 터키	U\$2,000/40ft (U\$0.10/kg)	U\$12,000/40ft (U\$0.60/kg)

* 자료 : 미도교역(주) 자체 작성 자료

주) 40ft container full loading capacity 20ton기준

2) 신청인측 의견¹⁶⁴⁾

- 신청인측은 공청회 시('21.9.16.) 수입자측의 국내산업의 출혈수출과 그로 인한 적자발생이 국내산업의 적자 원인의 하나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하였음¹⁶⁵⁾
- 먼저, 신청인측은 본 건 조사대상기간은 '17년에서 '20년 상반기까지인바, 수입자측이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자료는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상황을 나타내는 적절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 설령 수입자측이 제시한 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내생산자는 '21년에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터키정부의 국내생산자들에 대한 FDY 반덤핑조사와 관련, “Turkey 측 소식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덤핑협약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단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¹⁶⁶⁾

164)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5.21., '21.5.28. 및 '21.8.20. 제출)

165) 신청인측의 공청회 후 보완자료 및 반론자료, 국내산업 추가답변서('21.8.27., '21.9.24. '21.10.13. 제출)

166) 신청인측은 “국내생산자는 '21년에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국내생산자들도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고, 터키정부의 국내생산자들에 대한 반덤핑조사와 관련, xxx년 xxx월 답변서 제출 후 터키정부로부터 아무런 추가 조치(추가질의 등)가 없는 상황이고, '20년 상반기의 경우를 보면 동종물품의 수출 판매가격이 내수 판매가격 보다 높게 형

-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이 국내생산자들이 출혈수출을 하고 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자들의 수출 판매가격이 내수 판매가격보다 더 높으며, 수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내수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 (참조) 아래 3) '조사실 검토' 상의 <수출동향> 및 <동종물품 전체(내수+수출) 손익현황> 표 참조

- 또한, 신청인측은 국내생산자들은 가동률이 낮아 생산능력에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확대되더라도 내수판매를 축소할 이유가 없으며, 수출 확대에 의해 생산량이 확대되면 내수판매를 포함한 전체 제품 원가가 하락하므로 오히려 국내산업 피해지표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함¹⁶⁷⁾

- 신청인측은 내수 판매량 및 매출액, 영업이익, 투자수익률 등 국내산업 피해지표는 내수부문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표에 있어서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으며, 생산량, 재고, 제조원가,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피해지표에 있어서는 내수와 수출부문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수출과 내수부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바, 아래와 같이 국내산업 피해가 수출실적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나,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함

- (생산량)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Delta 10.6\%$)하고, 수출판매량도 대체로 감소('18년 0.6%증가, 연평균 $\Delta 13.5\%$)함에 따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연평균 $\Delta 12.7\%$)하였지만, 수출판매량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상쇄하기 위한 내수판매량이 확대되었다면 생산량은 증가하였을 것인바, 덤핑물품 수입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내수판매량이 충분히 증가되지 못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였

성되어 있는바, 수입자측의 주장 근거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음(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10.13. 제출)

167) 신청인측은 제품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는데, 고정비는 생산량이 변동되더라도 변동되지 않는 원가이며(예, 감가상각비), 변동비는 생산량이 변할 경우 그에 따라 변동되는 원가임(예, 재료비).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 1개당 고정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품 원가도 감소하게 됨. 아울러, 수출이 있음으로 인하여 생산량, 가동률, 고용인원 및 임금 등 산업피해지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함(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10.13. 제출)

다고 주장함*

* (참조) III.2.다.1) '생산량 및 가동률'

- (기말재고) 국내산업의 생산량이 소폭 감소('18년 $\Delta 1.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 기말재고가 전년대비 25.9% 증가한 것은 내수판매량('18년 $\Delta 5.7\%$) 및 자가소비('18년 $\Delta 34.4\%$) 감소에 따른 영향이며, '19년 기말재고가 계속 증가(8.8%)한 것은 '18년에 증가한 재고자산이 여전히 판매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수출판매량이 소폭 감소('19년 $\Delta 0.9\%$)한 상태에서 국내소비 확대('19년 19.7%)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 수입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19년 $\Delta 4.4\%$) 및 시장점유율이 축소('18년 xxx% \rightarrow '20상: xxx%) 되었기 때문이며, '20년 상반기의 기말재고 증가(6.1%)도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확대('19년 xxx% \rightarrow '20상: xxx%)에 따른 영향이라고 주장함*

* (참조) III.2.나.1).나) <국내소비 및 시장점유율 현황> 표 및 III.2.다.2) '판매 및 재고'

- (부가가치) 고용인원 및 제조원가에 대해 내수와 수출부문으로 구분할 수 없어 1인당 부가가치도 내수와 수출부문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 및 수출판매 손익이 모두 악화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가 악화('17년 xxx백만원 \rightarrow '20상 xxx백만원, 연평균 $\Delta 11.0\%$)되었는 바, 이는 주로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인해 충분한 내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 (참조) III.2.다.10) '생산성'

- 신청인측은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는지 문제와 국내 산업 피해지표상에 수출과 내수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수출판매 시의 수익성이 내수판매 보다 높아서 내수판매를 줄이고 수출 시장에 주력할 경우에는 내수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악화 등 국내산업 피해는 덤핑수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출실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그러나, 본 건의 경우에는 일부 피해지표가 내수와 수출부문이 혼재되어 있어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수출을 제외하여 고려하더라도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내수부문 매출 감소에 따라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아울러, 본 건의 경우 수출비중이 내수비중 보다 높지만, (i) 가동률에 여유가 있어 수출과 내수판매를 모두 증대시킬 여력이 있고, (ii) 수출 판매량 감소가 내수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iii) 오히려, 수출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내수판매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데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한 실정이며, (iv) 수출판매량의 증감과 내수판매량의 증감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¹⁶⁸⁾, 본 건에 있어서는 수출실적의 하락이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함

3) 조사실 검토

-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17년 1,000톤에서 '18년 1,006톤으로 0.6% 증가하였으나, '19년 998톤, '20년 상반기 324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34.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5% 감소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xxx%에서 '20년 상반기 xxx% 수준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1.8%p 하락하였음
- 톤당 수출 판매가격은 '17년 10,000천원, '18년 10,538천원, '19년 10,194천원, '20년 상반기 4,757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6%p 하락하였음
- 수출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7년 xxx%, '18년 △xxx%,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1.2%p 하락하였음

168) 신청인측은 '18년의 경우 수출량이 0.6% 증가하였으나 내수판매량은 5.7% 감소하였고, '19년에는 수출량이 0.9% 감소, 내수판매량이 4.4% 감소하였고, '20년 상반기에는 수출량이 34.9% 감소, 내수판매량이 18.7% 감소한 점을 볼 때, 수출량과 내수판매량간에 상호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8.20. 제출)

- 수입자측은 '20년~'21년 상반기 기간 중 국내생산자들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대비 2.2~3.6배에 이르는 동종물품에 대한 밀어내기식 출혈 수출로 인한 적자가 국내산업 피해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동종물품의 수출 판매가격이 내수 판매가격 보다 높았고, 수출부문의 조사대상기간 전체 영업이익률(xxx%)이 내수부문의 조사대상기간 전체 영업이익률(Δ xxx%) 보다 높은 점, 국내산업이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내수부문의 손익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수출동향 >

(단위 : 톤, %, 천원/톤,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량(a)	<u>1,000</u>	<u>987</u>	△1.3	<u>973</u>	△1.4	<u>332</u>	△31.2	△12.8
수출량(b)	<u>1,000</u>	<u>1,006</u>	0.6	<u>998</u>	△0.9	<u>324</u>	△34.9	△13.5
수출비중(b/a)								(△1.8%p)
수출 판매가격	<u>10,000</u>	<u>10,538</u>	5.4	<u>10,194</u>	△3.3	<u>4,757</u>	△8.6	△1.6
내수판매량(c)	<u>1,000</u>	<u>943</u>	△5.7	<u>901</u>	△4.4	<u>357</u>	△18.7	△10.6
내수비중(b/a)								(2.0%p)
내수 판매가격	<u>10,000</u>	<u>11,187</u>	11.9	<u>10,598</u>	△5.3	<u>9,102</u>	△16.6	△3.1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동종물품 전체(내수+수출)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17-'20상 합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	<u>10,000</u>	<u>10,591</u>	5.9	<u>10,018</u>	△5.4	<u>3,122</u>	△38.6	△14.5	xxx
내수 판매	<u>10,000</u>	<u>10,545</u>	5.4	<u>9,545</u>	△9.5	<u>3,252</u>	△32.2	△13.4	xxx
수출 판매	<u>10,000</u>	<u>10,607</u>	6.1	<u>10,173</u>	△4.1	<u>3,079</u>	△40.5	△14.9	xxx
영업이익		△	적자전환	△	적자감소	△	적자전환	적자전환	△
내수 판매	△	△	적자감소	△	적자감소	△	적자전환	적자지속	△
수출 판매		△	적자전환	△	적자감소		흑자지속	△31.6	
영업이익률		△		△		△		(△1.6%p)	△
내수 판매	△	△		△		△		(△2.5%p)	△
수출 판매		△		△				(△1.2%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라.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xxx% 수준으로서, 주요 원재료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 글리콜(MEG)이며 기타 첨가제¹⁶⁹⁾ 등이 사용됨
 - * 국내산업의 원재료비 구성('19년 기준) : TPA xxx%, MEG xxx%, 기타 xxx%
- 톤당 TPA 가격은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12,463천원으로 전년대비 24.6% 상승하였으나, '19년 10,608천원, '20년 상반기 7,48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4.9%, 34.8%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2% 하락하였음
- 톤당 MEG 가격도 '17년 10,000천원에서 '18년 9,798천원, '19년 6,853천원, '20년 상반기 5,48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0%, 30.1%, 20.3%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2% 하락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가 연평균 8.5% 하락한데 비해 제조원가는 연평균 3.0%하락함에 따라,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대상기간 중 xxx%p 하락('17: xxx% → '20상: xxx%)하였음
 - 제조원가 대비 원재료비 비중은 '18년(xxx%)에는 기준연도('17년 xxx%) 대비 xxx%p 상승하였으나, '19년 xxx%, '20년 상반기 xxx%로 기준연도 대비 각각 xxx%p, xxx%p 하락하였음
-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TPA, MEG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의 하락은 원가부담 완화로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원재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xxx~xxx%)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격 하락 내지 상승이 억제된 것으로 보임

169) FDY 생산 시 xxx, xxx 등 다양한 종류와 용도의 첨가제를 사용함(국내산업 추가답변서, '21.5.4. 제출)

<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TPA	<u>10,000</u>	<u>12,463</u>	24.6	<u>10,619</u>	△14.8	<u>7,485</u>	△34.8	△9.2
MEG	<u>10,000</u>	<u>9,798</u>	△2.0	<u>6,814</u>	△30.5	<u>5,480</u>	△20.3	△18.2
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0</u>	<u>11,187</u>	11.9	<u>10,598</u>	△5.3	<u>9,102</u>	△16.6	△3.1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내수 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 (변화율))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판매가격(a)	<u>10,000</u>	<u>11,187</u>	11.9	<u>10,598</u>	△5.3	<u>9,102</u>	△16.6	△3.1
제조원가(b)	<u>10,000</u>	<u>11,027</u>	10.3	<u>10,047</u>	△8.9	<u>9,140</u>	△11.9	△3.0
원재료비(c)	<u>10,000</u>	<u>11,522</u>	15.2	<u>9,768</u>	△15.2	<u>7,673</u>	△25.8	△8.5
TPA	<u>10,000</u>	<u>12,463</u>	24.6	<u>10,619</u>	△14.8	<u>7,485</u>	△34.8	△9.2
MEG	<u>10,000</u>	<u>9,798</u>	△2.0	<u>6,814</u>	△30.5	<u>5,480</u>	△20.3	△18.2
기타	<u>10,000</u>	<u>11,254</u>	12.5	<u>12,882</u>	14.5	<u>13,821</u>	4.0	11.4
비중(c/b)								()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0</u>	<u>10,580</u>	5.8	<u>9,450</u>	△10.7	<u>8,317</u>	△16.4	△6.0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마.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

1) 수입자측 의견

-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공청회('21.9.16.)에서 저부가가치 일반 Polyester 완전연신사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6개 국내생산자들간의 내수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저가 판매가 국내산업의 막대한 적자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음¹⁷⁰⁾

- 그러나, 수입자측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¹⁷⁰⁾ 수입자 미도교역(주)의 공청회('21.9.16. 개최) 발언요지('21.8.27. 제출)

2) 신청인측 의견

- 신청인측은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가격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보다 훨씬 높는데¹⁷¹⁾,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국내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출자들과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가격이 높은 것은, 해외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덤핑물품의 저가판매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¹⁷²⁾
- IV.2.다. <수출동향>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 판매가격이 내수 판매가격보다 높는데, 이와 같이 내수 판매가격이 낮은 것은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 때문이 아니라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함
- 즉, 어느 시장에서나 경쟁을 하고, 국내시장에서도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나, 아무리 경쟁을 하더라도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영업손실을 보면서까지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인바,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이 없었다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이 주장하듯이 국내생산자들간에만 경쟁을 하였다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지 못하였을 것인바, 이러한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음

3) 조사실 검토

- 수입자측은 내수시장에서의 국내생산자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판매가 국내산업 적자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

171) 신청인측은 수출 통계는 FOB기준이고, 수입 통계는 CIF기준인 점을 감안할 경우,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가격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 간의 가격차이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함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 '21.10.12. 제출)

172)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10.12. 제출)

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앞서 “ I.4.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생산품과 덤핑물품은 동종물품으로서 국내시장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음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17: xxx% → '20상: xxx%, 14.2%p)은 확대된 반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17: xxx% → '20상: xxx%, △10.9%p)은 하락하였고, '19년과 '20년 상반기에는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보다 높았으며, 수입품 중 상당부분이 조사대상국산임을 고려하면*, 덤핑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조) III.2.나.1).나) ‘덤핑물품 수입의 상대적 증가 여부’

- 아울러, '18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로 판매되었고,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내지 가격상승이 억제되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피해는 국내 동종물품간의 경쟁보다는 덤핑물품과의 경쟁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조) III.2.나.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바. 기타 요인

-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서 열거한 외국 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상품 생산성 등 사항은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증빙이 충분히 포함된 주장을 제기 하지 않았음

사. 소결

-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과 관련하여, 기타국산 물품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국내 소비의 변화,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 수출실적 및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 이 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덤핑물품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은 내수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18년 이후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덤핑물품의 물량 및 가격 효과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국내산업은 연평균 고용인원 등 일정 수준을 유지한 부문도 있지만, 생산량 및 가동률, 시장점유율, 재고 및 내수 판매량 등이 하락 내지 악화되었고, 제조원가(판매가격의 xxx~xxx%)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 내지 그 상승이 억제됨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자본조달 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이 저해되어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은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과 관련하여, 기타국산 물품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국내소비의 변화,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 수출실적 및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으며,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가 연평균 3.0% 감소한데 비해 동종물품 내수 판매는 연평균 10.6% 감소하였고, '19년의 경우 국내소비 증가(19.7%)에도 불구하고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이 감소($\Delta 4.4\%$)한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TPA, MEG 등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 (연평균 원재료비 $\Delta 8.5\%$)으로 인해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17: xxx% \rightarrow '20상: xxx%, Δ xxx%p)하면서 원가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동종물품의 수출 판매가격이 내수 판매가격 보다 높았고, 수출부문의 조사대상기간 전체 영업이익률(xxx%)이 내수 부문의 조사대상기간 전체 영업이익률(Δ xxx%) 보다 높은 점, 국내산업 이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실적이 내수부문의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17: xxx% \rightarrow '20상: xxx%, 14.2%p)은 확대된 반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17: xxx% \rightarrow '20상: xxx%, Δ 10.9%p)은 하락하였고, '19년과 '20년 상반기에는 덤핑물품의 시장점유 윳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보다 높았으며, '18년부터 '20년 상반기 까지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로 판매되었고, 조사대상기 간 전체적으로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내지 가격상승을 억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피해는 국내 동종물품간의 경쟁 보다는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 덤핑물품과의 경쟁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V.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 최종 덤핑률

- 조사대상공급자(selected respondent)로 선정되어 전체 답변서를 제출한 ‘형이 및 그 관계사’, ‘신평밍 및 그 관계사’, ‘티앤성’, ‘귀왕 및 그 관계사’ ‘형리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각각 3.95%, 5.79%, 6.11%, 10.91%, 5.00%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 그 밖의 공급자¹⁷³⁾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i)¹⁷⁴⁾ 단서,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¹⁷⁵⁾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공급자인 ‘신평밍 및 그 관계사’, ‘귀왕 및 그 관계사’의 덤핑률을 對 한국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7.75%의 덤핑률을 산정함

조사대상공급자	대한국 수출량(톤)	최종덤핑률(%)	가중평균(%)
신평밍 및 그 관계사		5.79%	xxx%
귀왕 및 그 관계사		10.91%	xxx%
가중평균 덤핑률			7.75%

- 덤핑률 수준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공급자	덤핑률	비 고
형이 및 그 관계사	3.95%	조사대상
신평밍 및 그 관계사	5.79%	조사대상
티앤성	6.11%	조사대상
귀왕 및 그 관계사	10.91%	조사대상
형리 및 그 관계사	5.00%	조사대상
그 밖의 공급자	7.75%	-

173)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함

174) “이 항의 목적상 당국은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과 제6조제8항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덤핑마진은 무시한다. ”

175)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후략)”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가.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산정방식

-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함
- 또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 동종물품의 목표 판매가격, 덤핑수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앞서 “Ⅲ.2.나.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상승 억제 등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적정판매가격과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을 상호 비교하고, 그 차액을 덤핑물품의 수입가격(CIF기준)과 대비시켜 도출한 비율만큼을 산업피해 구제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적절한 산정방식으로 봄

$$\text{산업피해 구제수준(\%)} = \frac{\text{동종물품 적정판매가격} - \text{덤핑물품 판매가격}}{\text{덤핑물품 수입가격(CIF기준)}} \times 100(\%)$$

나.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 21.40%

- 조사실은 관세청 통관자료, 적정영업이익률¹⁷⁶⁾ 등 신청인측 제출 자료 등을 기초로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중 최근 1년 6개월('19년~'20년 상반기)간의 국내 동종물품의 적정판매가격, 덤핑물품의 판매가격 및 덤핑물품의 수입가격(CIF기준)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한 아래 산정방식 통하여 21.40%의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산정함

$$\text{산업피해 구제수준(\%)} = \frac{\text{동종물품 적정판매가격} - \text{덤핑물품 판매가격}}{\text{덤핑물품 수입가격(CIF기준)}} \times 100(\%)$$

$$\Rightarrow \frac{\text{xxx(천원/톤)} - \text{xxx(천원/톤)}}{\text{xxx(천원/톤)}} \times 100(\%) = 21.40\%$$

<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

(단위: 천원/톤, %)

구분 \ 연도	'19년	'20년 상반기		평균가격 ('19~'20상)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0</u>	<u>8,803</u>	△16.4	xxx
덤핑물품 수입가격(CIF)	<u>10,000</u>	<u>8,799</u>	△16.4	xxx
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0</u>	<u>8,590</u>	△16.6	xxx
동종물품 적정판매가격	<u>10,000</u>	<u>9,164</u>	△10.4	xxx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1) 덤핑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2.1%)

주2) 동종물품 적정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비) ÷ (1 - 적정영업이익률)

주3) 평균가격은 '19년~'20년 상반기 기간의 가중평균 수치임

176) 신청인측은 조사대상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기업경영분석」 “화학섬유(C205)” 업종의 '16년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6.05%를 적정영업이익률로 제출한바, 이를 적용함(조사신청서 및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5.14 제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와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산업피해구제수준 산정 시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생산자의 이익률',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자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 등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음

3.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덤핑방지관세율은 최소부과원칙¹⁷⁷⁾에 따라 덤핑률 수준과 국내산업피해 구제 수준 중 낮은 것을 선택함
- 따라서, 최종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공급자별로 3.95~10.91%로 산정함

< 덤핑률 수준과 산업피해 구제수준의 비교 >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률 (dumping margin)	산업피해율 (injury margin)	최종 부과수준
중국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형이”) 및 그 관계사	3.95%	21.40%	3.95%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신평밍”) 및 그 관계사	5.79%		5.79%
	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 (“티앤성”)	6.11%		6.11%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 (“귀왕”) 및 그 관계사	10.91%		10.91%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형리”) 및 그 관계사	5.00%		5.00%
	그 밖의 공급자	7.75%		7.75%

177)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VI.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1. 산업피해조사 관련 의견 검토

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 조사실은 WTO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 진술과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회의(‘21.4.14.)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21.9.16.)를 개최하였음
- 이해관계회의(‘21.4.14.) 시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은 참석하였으나, 피신청인(조사대상공급자)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음
 - 조사실이 이해관계인회의 시 주장사항에 대한 서면자료와 관련 증빙자료 등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한 데 대해,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이 “국내생산자의 다양한 소위 ‘차별사(특수사)’¹⁷⁸⁾ 생산 가능 여부” 관련 의견을 제출¹⁷⁹⁾한바 이를 아래 “나.1)”에서 검토함
- 공청회(‘21.9.16.) 시에는 신청인측, 수입자측 및 피신청인측이 참석하였으며,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은 공청회 발언요지와 추가 보완자료 등을 각각 제출¹⁸⁰⁾하였으나, 피신청인(조사대상공급자)측은 공청회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 조사실은 신청인측과 수입자측이 제출한 의견 중 국내산업의 FDY산업에 대한 사양산업 인식 및 설비투자 관련은 본 보고서 “Ⅲ.2.다.13)”에서, 국내산업 적자원인으로서의 출혈수출 관련은 본 보고서 “Ⅳ.2.다.”에서,

178) FDY는 일반사와 차별사(특수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사는 Semi-dull로서 제품 단면이 “O”형인 범용 대량생산 원사를 말하며, 차별사(특수사)는 Micro(세섬사, 50D이하) 원사, Multi-Filament (Denier per Filament 1 이하) 원사, Polymer(중합체) 개질(Cation Dyeable (양이온 염색 가능), Full-dull, 난연, 항균, 발열, 흡한속건 등) 원사, 특수단면사(편평사, 중공사, 이형단면사 등) 등 원단 수요에 맞춰 특별한 기능과 특성을 부여한 원사를 말함

179) 수입자측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21.4.21. 제출) 및 신청인측 반박의견(‘21.4.28. 제출)

180) 미도교역(주)의 공청회 발언요지(‘21.8.27. 제출), 공청회 후 보완자료(‘21.9.24. 제출) 및 신청인측에 대한 반론자료(‘21.10.1. 제출)와 신청인측의 공청회 발언요지(‘21.8.27. 제출), 공청회 후 보완자료(‘21.9.24. 제출) 및 수입자측에 대한 반론자료(‘21.10.1. 제출)

국내생산자들간의 과당경쟁 관련은 본 보고서 “IV.2.마.”에서 각각 검토하였고, 국내생산자들의 다양한 차별사 생산 가능 여부는 아래 “나.1)”에서 검토함

* (참조) III.2.다.13)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IV.2.다. ‘수출실적’ 및 IV.2.마. ‘국내생산자들간의 경쟁’

- 또한, 조사실은 WTO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관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간조사보고서(수정본)’ 공개본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21.10.19.)
- 그러나, 이해관계인들은 ‘중간 조사보고서(수정본)’ 공개본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의견을 제출(제출기한: ‘21.10.25.)하지 아니하였음

나.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1) 국내생산자의 다양한 차별사 생산 가능 여부 문제

가) 수입자측 의견

- 이해관계인회의(‘21.4.14.) 시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자사가 국내 독점수입권을 가진 주요 조사대상공급자인 xxx사¹⁸¹⁾의 경우 xxx~xxx기의 중합로(重合爐)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자들은 xxx사(중합로 xxx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합로를 1기씩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 수요제품인 Semi-Dull류의 일반사만 생산하고 있으며, 이의 생산을 중단하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차별화 원사를 생산할 여력은 없다고 주장함
- 국내생산자들은 일부 차별사 제품의 경우 칩(Chip)방사(용융방사) 방식*으로 생산은 가능하지만, 생산비용 증가, 품질 안정화 문제, 다양한 종류의 원사에 대한 최소생산량 문제 등으로 인해 조사대상공급자와 달리 적기에, 적량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181) xxx사

* (참조) 1.2.마. '제조공정'

- 이와 관련, 미도교역(주)는 수입자 답변서에서 동사가 수입하는 조사 대상물품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국내생산 기피 또는 국내생산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총 46개 품목의 목록을 제시¹⁸²⁾하였음
- 공청회('21.9.16.) 시 수입자인 미도교역(주)는 FDY 생산은 장치산업의 일종으로서 중합로에 의한 직접방사 방식으로 생산되는 일반사의 생산과는 다르게 칩(Chip)방사 방식에 의할 경우에도 1회 생산량이 100톤을 넘어야 안정된 품질의 원사를 경쟁력 있게 생산가능한데, 국내생산자의 경우 데니어, 필라멘트의 수, 광택 등 측면에서 다양한 수십가지 종류의 차별사를 생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Antimonium free 원사 등 차별사의 생산실적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¹⁸³⁾

나) 신청인측 의견¹⁸⁴⁾

- 신청인측은 국내생산자별로 1기의 중합로만 보유하기 때문에 적시에 차별사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이해관계인회의('21.4.14.) 시 수입자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
- xxx사는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중합설비가 xxx기인데, 이 중 xxx기는 배치(batch)중합용으로서 필요시 마다 소량 다품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합과 방사가 연속되는 직접방사(Direct Spinning) 설비 외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대의 용융방사(Melt Spinning, Chip방사) 설비를 통해서는 칩(chip)을 용융하여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음
- xxx사는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중합설비가 xxx기이며, 동 설비를 통해서는 중합과 방사가 연속하여 이루어지지만,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여러 대의 용융방사(Melt Spinning, Chip방사) 설비에서는 칩(chip)을 용융하여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음

182) 미도교역(주)의 수입자 답변서('21.3.8. 제출)

183) 수입자 미도교역(주)의 공청회 발언요지('21.8.27. 제출)

184) 이해관계인회의 후 신청인측의 반박의견('21.4.28. 제출), 국내산업 답변서, 실사답변서 및 추가답변서('21.8.4., '21.8.13. 및 '21.8.25. 제출) 및 신청인측의 공청회 후 보완자료('21.9.24. 제출)

- xxx사의 경우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중합설비가 xxx기이며, 동 설비를 통해서는 중합과 방사가 연속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사와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음
- xxx사의 경우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중합설비가 xxx기이며, 동 설비를 통해서는 중합과 방사가 연속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중합체(Polymer)는 냉각하여 칩(chip)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합방사설비 외에 여러 대의 용융방사 설비를 통해서는 칩(chip)을 용융하여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음
- 한편, 국내생산자들은 미도교역(주)가 수입자 답변서에서 제시한 조사 대상물품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국내생산 기피 또는 국내생산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총 46개 품목의 목록에 대하여, 국내생산 유사 또는 동일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중 41개 품목은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5개 품목도 기술적으로 생산가능하다는 생산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였음¹⁸⁵⁾
- 아울러, 신청인측은 국내시장은 소량, 다품종 시장으로서 적기에 적량의 차별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직접방사 보다는 개별 소규모 생산설비인 칩(Chip) 방사 설비가 품종 변경 및 생산량 증감 등을 통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며, 투자 소요금액 및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칩(Chip)방사가 직접방사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측은 국내산업은 '19년도 기준 FDY 생산량 중 약 xxx%를 차별사¹⁸⁶⁾로 생산하고 있고, 칩(Chip) 방사 설비를 통해 CD(Cation Dyeable), FD(Full-Dull), Dope Dyed, Recycled, Antimonium free, Multi filament, 세섬사, 태섬사, 고신축사, 분섬사, 편평사, 중공사, 저융점사, 향균사 등 다양한 차별사¹⁸⁷⁾를

185) 신청인측의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21.4.21. 제출)

186) 국내산업은 '19년도 FDY 생산량 xxx톤(4개사 기준) 중 일반사 xxx톤(yyy%), 차별사 xxx톤(yyy%)를 각각 생산함. 다만, 일반사와 차별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업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음

187) CD(Cation Dyeable): 염기성 염료 염색 가능 원사, FD(Full-Dull): 광택이 낮은 원사, Dope Dyed(원착사): 방사시 염색하여 실자체가 염색된 원사, Recycled: 리사이클 칩을 사용하여 생산된 원사, Antimonium-free: 무안티몬사, Multi-filament: 필라멘트 수가 많은 원사, 세섬사(micro): 굵기가 가는 원사, 태섬사: 굵기가 굵은 원사, 분섬사: 나뭇가지 형태를 지닌 원사, 편평사: 단면이 넓은 직사각형의 원사, 중공사: 단면에 중공(구멍)이 있는 원사, 저융점사(low-melt): 녹는점이 낮아 접착효과가 있는 원사, 향균사: 세균번식을 막아주는 원사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중국산 물품의 덤핑수입 등의 이유로 중국산 물품에 비하여 가격측면에서는 국내 동종물품이 불리할 수 있음을 주장함

- 신청인측은 공청회 후 (주)티케이케미칼의 경우 '21.8월 기준으로 약 xxx개 종류의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다는 생산실적 자료를 제출¹⁸⁸⁾하였으며, xxx사의 경우 Antimonium free FDY의 생산 및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¹⁸⁹⁾하였음

다) 조사실 검토

- 국내생산자는 중합로를 1기씩(xxx사 제외)만 보유하고 있다는 수입자측의 주장과 달리, xxx사는 중합로를 xxx기, xxx사는 중합로를 xxx기, xxx사는 중합로를 xxx기, xxx사는 중합로를 xxx기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xxx사는 중합로 xxx기 중 xxx기를 칩(Chip) 생산을 위한 배치(batch)중합용으로 사용하고 있음¹⁹⁰⁾
- 아울러, 국내생산자들은 다수의 칩방사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바, 직접방사 방식을 통해서는 주로 일반사를 생산하고 있고, 차별사는 주로 칩(Chip)방사 방식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음¹⁹¹⁾
- 수입자측이 국내생산자들의 다양한 차별사의 실제 생산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생산자들은 Antimonium free FDY를 포함한 수십종류의 다양한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음
- 수요가 뒷받침될 경우 수입자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직접방사 방식이 유리한 차별사의 종류도 있는 반면¹⁹²⁾,

188) 신청인측의 공청회 후 보완자료('21.9.24. 제출)

189) 국내산업 추가 답변서('21.9.8. 제출)

190) xxx사, xxx사, xxx사, xxx사 등 국내생산자 4개사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함('21.8.20., '21.8.24., '21.10.8. 및 '21.10.13.). <별책 : 붙임자료> “11. 국내생산자 등 현지실사 결과보고서” 참조

191) 일부 국내생산자의 경우에는 직접방사 방식을 통해서 일반사 외에 원재료의 변경이 필요 없이 원사 단면의 변경(이형단면사 등)에 의하여 생산이 가능한 차별사도 생산하고 있음(국내산업 추가답변서, '21.8.25)

192) xxx사의 경우 '19년도 덤핑물품 수입물량(xxx톤) 중 차별사의 한 종류인 xxx를 xxx톤(전체 수입물량의 약 xxx%) 수입한 것을 볼 때, 상당한 수요가 있는 차별사의 경우는 직접방사

수요에 따라서는 생산자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칩(Chip) 방사 방식이 유리한 차별사의 종류도 많은 것으로 보임

- 국내산업은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19년도 기준 국내 동종물품 생산량의 상당부분(xxx%)을 차별사로 생산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차별사를 생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자측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차별사를 적기에 적량을 공급할 능력은 보유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차별사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차별사의 종류 및 물량, 생산자의 생산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칩방사 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수입자 실사답변서 '21.7.16. 제출)

2.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 검토

- 국내 수입자 미도교역(주)는 Recycled FDY 및 Antimonium Free FDY¹⁹³⁾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¹⁹⁴⁾함

1) 미도교역 의견

- 미도교역(주)는 일반 폴리에스테르 FDY와 구분되는 Recycled FDY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Antimonium Free FDY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함
- (Recycled FDY) Recycled FDY은 페트병을 재활용¹⁹⁵⁾하여 생산되는 제품으로 GRS 인증¹⁹⁶⁾ 및 T/C발행¹⁹⁷⁾을 통해 생산·판매·유통이 가능하며, 판매가격이 높고 시장이 분리되어 있어 다른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Antimonium Free FDY)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진 Antimonium이 첨가되지 않은 섬유제품에 대한 개발이 국내외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산업은 해당물품의 생산실적이 없으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2)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Recycled FDY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차별성이 없고 Antimonium Free FDY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대함

193) Antimonium이 첨가되지 않은 FDY로, Antimonium은 TPA와 MEG의 중합과정에서 고분자 배열을 촉진하는 첨가제로서 극소량이 투입되며 인체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내분비 계통을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음

194) '21.9.16 공청회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공청회 전후 '21.8.27., '21.9.24. 의견서를 제출함

195) 페트병을 소비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척 후 분쇄한 얇고 작은 칩(Chip)을 원재료로 사용함

196) **Global Recycled Standrd**: 섬유, 의류제품의 생산·판매·유통 전 단계에 있어 재활용된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기준으로 네덜란드 인증 전문기업인 Control Union에서 인증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섬유협회인 Textile Exchange(미국)가 인증 마크 소유권을 보유 중임

197) **Transaction Certificate**: GRS 인증 체계내에서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 판매가 되었음을 추적하기 위한 거래 증명서로 예컨대 원료 → 섬유생산 → 의류생산 등의 Supply Chain에서 특정거래의 이전 단계까지 모두 GRS 인증이 이루어 졌을 경우, 해당거래의 T/C 발급이 가능)

- (Recycled FDY) Recycled FDY의 원재료인 재생 페트 칩은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중합체와 동일한 물질¹⁹⁸⁾ 이고, Chip을 방사하여 생산하는 과정은 조사대상물품 제조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Recycled FDY와 일반 FDY는 물리적 특성 및 용도의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과대상 제외에 반대함
- (Antimonium Free FDY) 국내산업에서 Antimonium Free FDY를 실제 생산 및 개발하고 있으며, FDY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다양한 첨가물 중 한 물질의 투입 여부만으로 부과제외를 인정할 경우 첨가제의 투입량이나 종류를 조절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

3) 조사실 검토

- 국내산업의 생산실적 여부, 생산 가능성, 우회덤핑 가능성,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Recycled FDY 및 Antimonium Free FDY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가) Recycled FDY

- 국내산업에서 GRS인증을 받은 Recycled FDY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은 국내산업의 생산·판매 현황* 및 샘플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함
 - * xxx, xxx 등 xxx개 국내산업에서 '20년 동안 xxx톤을 생산하였으며, xxx톤 (xxx원)을 판매함
- 일반 FDY와 Recycled FDY는 동일 성분 및 유사한 물리적 특성으로, 통관시 물품식별이 불가능해 부과제외 자체가 관세 행정상 기술적으로 곤란함
- Recycled FDY(칩방사)는 TPA와 MEG를 중합한 PET을 방사(직접방사)하는 제조시설과 동일하고, 두 생산방식의 원재료(TPA + MEG)가 다르지 않아 물리적 특성이 같으며, 이에 따라 용도의 차이가 없어 경쟁 및 대체 관계¹⁹⁹⁾에 있음

198) TPA와 MEG를 중합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FDY를 비롯한 섬유 및 페트병, 포장 필름 등의 원재료로 널리 사용됨

xxx Recycled FDY GRS 인증서	xxx Recycled FDY GRS 카탈로그

나) Antimonium Free FDY

-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장과 달리, 국내산업에서 Antimonium Free FDY를 실제 생산하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산업에서 생산·판매 현황 및 샘플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함
 - * xxx에서 '20.3월~'21.4월동안 xxx톤을 생산하고 xxx톤 xxx원을 판매
- Antimonium Free FDY 생산에 별도의 추가적 제조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조사대상물품의 일반적 생산과정²⁰⁰⁾과 동일하여 국내산업에서 수요 여부에 따라 기존 생산 여건으로 Antimonium Free FDY를 생산할 수 있음
- FDY Antimonium은 극소량이 투입되는 보조적 첨가제(additive)로서 첨가제의 투입여부에 따라 부과제외가 허용될 경우, 반덤핑조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199) 수입자 역시 '21.9.24 제출한 의견서에서 Recycled FDY와 일반 FDY는 차별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경쟁 및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함

200) Antimonium이 첨가되지 않은 칩을 방사하는 방식으로, 중합(無 안티모니움) ⇒ 칩 생산 ⇒ 칩 용융 ⇒ 폴리머 방사 ⇒ 제품 과정으로 생산

<xxx의 Antimonium Free FDY 생산, 판매 관련 증빙자료>

원 재 료	제 품

거래명세서(샘플)

전자세금계산서(샘플)

VII.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201), 202), 203), 204), 205), 206)

<비공개>

201)
202)
203)
204)
205)
206)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참고 1

산업피해조사 조사경과

- '20. 11. 26. : 한국화학섬유협회의 덤프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신청
- '21. 1. 20. :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개시 결정
- '21. 1. 27.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1-2호)
- '21. 1. 29. : 조사질의서(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송부(답변기한 : '21.3.8.)
 - '21. 3. 8. :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21.3.8. → '21.3.22.)
 - '21. 3. 8. : 국내수입자(6개사) 및 수요자(2개사, 수입자와 중복) 답변서 제출
 - '21. 3. 22. : 국내생산자 및 신청인 답변서 제출
- '21. 2. 9. : 중국섬유수출입협회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 참여 신청 접수
- '21. 4. 12. : 예비조사기간 연장(당초 : '21. 4. 26.까지 → 연장 : '21. 6. 26.까지)
- '21. 4. 14. : 국내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 '21. 3. 24. :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안내(공문 발송)
 - '21. 4. 6. : 수입자(미도교역(주))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 제출
 - '21. 4. 8. : 신청인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 제출
 - '21. 4. 21. : 수입자(미도교역(주))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 제출
 - '21. 4. 21. : 신청인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 제출
 - '21. 4. 28. : 신청인 수입자측의 추가의견에 대한 반론 제출
- '21. 6. 17. : 예비판정 무역위원회 보고 및 의결
- '21. 8. 4. : 수입자(1개사) 현지실사
- '21. 8. 13. : 무역위원회 추가질의('21.7.6.)에 대한 국내생산자 2개사 답변서 신규 제출
- '21. 8. 24. : 국내생산자(2개사) 현지실사
- '21. 9. 14. : 본조사기간 연장(당초 : '21. 9. 25.까지 → 연장 : '21. 11. 25.까지)

- '21. 9. 16.: 산업피해조사 공청회(화상회의) 개최
 - '21. 8. 12.: 공청회 개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1-11호)
 - '21. 8. 27.: 수입자(솔상인터내셔널(주) 및 미도교역(주)) 공청회 발언요지 제출
 - '21. 8. 31.: 신청인 공청회 발언요지 제출
 - '21. 9. 13.: 중간보고서(공개본) 공청회 참가 이해관계인에게 배포 및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 '21. 9. 24.: 신청인 공청회 후 보완자료 제출
 - '21. 9. 24.: 수입자(미도교역(주)) 공청회 후 보완자료 제출
 - '21. 10. 1.: 신청인 수입자측의 공청회 후 보완자료에 대한 반론 제출
 - '21. 10. 1.: 수입자(미도교역(주)) 신청인측의 공청회 후 보완자료에 대한 반론 제출
- '21. 10. 8.: 국내생산자(2개사) 추가 현지실사
- '21. 10.19.: 중간보고서(수정본) 이해관계인 송부(의견제출기한 : '21.10.25)
 - * WTO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핵심사실을 통보
- '21. 10.25.: 이해관계인들은 중간보고서(수정본) 관련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함
- '21. 11.18.: 무역위원회 최종판정

참고 2

덤핑조사 조사경과

- '20. 11. 26. : 한국화학섬유협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신청
- '20. 12. 01. : 공급국 정부(주한 중국대사관 상무부)에 신청 접수사실 통지
- '21. 1. 20. :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개시 결정
- '21. 1. 27.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1-2호)
- '21. 1. 27. : 조사질의서(공급국 정부, 조사대상공급자) 송부(답변기한 : '21.3.9.)
 - '21. 3. 8. :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21.3.9. → '21.3.23.)
 - '21. 3. 22. : 조사대상공급자(3개사) 답변서 추가 연장 요청('21.3.9. → '21.3.30.)
 - '21. 3. 23. : 조사대상공급자(2개사) 답변서 제출
 - '21. 3. 30. : 조사대상공급자(3개사) 답변서 제출
- '21. 5. 12. : 조사대상공급자(귀왕) 부과제외 요청
- '21. 5. 18. : 보충질의서 발송
- '21. 5. 27.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 '21. 6. 25. : 피신청인에게 예비판정 결과 통보
- '21. 7. 7. : 피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7. 22. : 신청인, 의견서 접수
- '21. 8. 12. : 덤핑사실조사 1차 이해관계인 회의
- '21. 9. 23 ~ 9.24. : 피신청인 실사 검증
- '21. 11. 2. : 덤핑사실조사 2차 이해관계인 회의

참고 3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현황

207), 208), 209)

<비공개>

207)
208)
209)

<비공개>

참고 4

조사대상공급자의 생산능력 현황

210), 211), 212), 213), 214)

<비공개>

210)
211)
212)
213)
214)

<비공개>

참고 5

조사대상공급자의 매출량 현황

<비공개>

무 역 조 사 실

무역조사실장 신 동 준

조 사 단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한 상 덕
조 사 관	산업피해조사과	신 영 수
조 사 관	산업피해조사과	김 지 은

[덤핑사실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과장	이 원 희
조 사 관	덤핑조사과	박 종 희
조 사 관	덤핑조사과	이 용 욱